2007 SK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BOOK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SK(주) / SK에너지 \ SK텔레콤 / SK네트웍스 \ SK케미칼 / SKC \ SK C&C / SK건설 \ SK해운 / SK증권 \ 워커힐 / SK E&S \ SK가스 /

2007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Book

2007 SK사회공헌활동 백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WWW.SK.CO.KR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2007 SK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BOOK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SK(주) / SK에너지 \ SK텔레콤 / SK네트웍스 \ SK케미칼 / SKC \ SK C&C / SK건설 \ SK해운 / SK증권 \ 워커힐 / SK E&S \ SK가스 /

SK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SK 사회공헌 VI

사랑의 홀씨

온 세상에 퍼져 희망을 알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사랑의 홀씨'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담았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SK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contents

004 CEO 인사말
006 발간사

화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제1부 행복나눔 경영
024 사회공헌활동 발자취
030 사회공헌활동의 이념과 방향
040 그룹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050 1사 1대표 프로그램
관계사 자원봉사단장 인터뷰

제2부 행복한 상생
064 소외청소년의 자립·자활
070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076 행복나눔재단
080 무주택가정 주거안정
084 전문가 기고 1
088 전문가 기고 2

제3부 행복한 참여
094 사회복지 부문
120 교육·장학 부문
136 환경보존 부문
146 문화·예술·체육 부문
154 글로벌 부문
162 자원봉사 부문

제4부 행복한 변화
202 도표로 보는 SK 사회공헌
206 릴레이 인터뷰

부록
226 관계사 소개
230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풍성하게 소유하기보다는 풍성하게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고객의 사랑과 신뢰로 성장해 온 SK는 보다 강하고 건전한 기업,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으로 쉼없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의 성과이자 고객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여러분들이 SK에 보내 주신 믿음과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SK가 꿈꾸고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큰 만족감을 느껴도, 내 옆의 가족, 이웃이 불행하다면, 나 역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끼는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일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 SK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SK 54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토대를 다지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며, SK는 보다 선진적인 지배구조,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에도 SK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 소외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행복날개'에 담긴 뜻 그대로, 행복을 나누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SK 임직원 가운데 88.4%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단에 가입해 1인당 18.5시간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지난해 봄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SK 가족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 드리고, 또 가을에는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SK와이번스 선수들과 함께 인천에서 연탄을 배달하며, 자원봉사의 소중함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을 자신의 두 손에 꽉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다 보면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나눔을 통해 우리는 모두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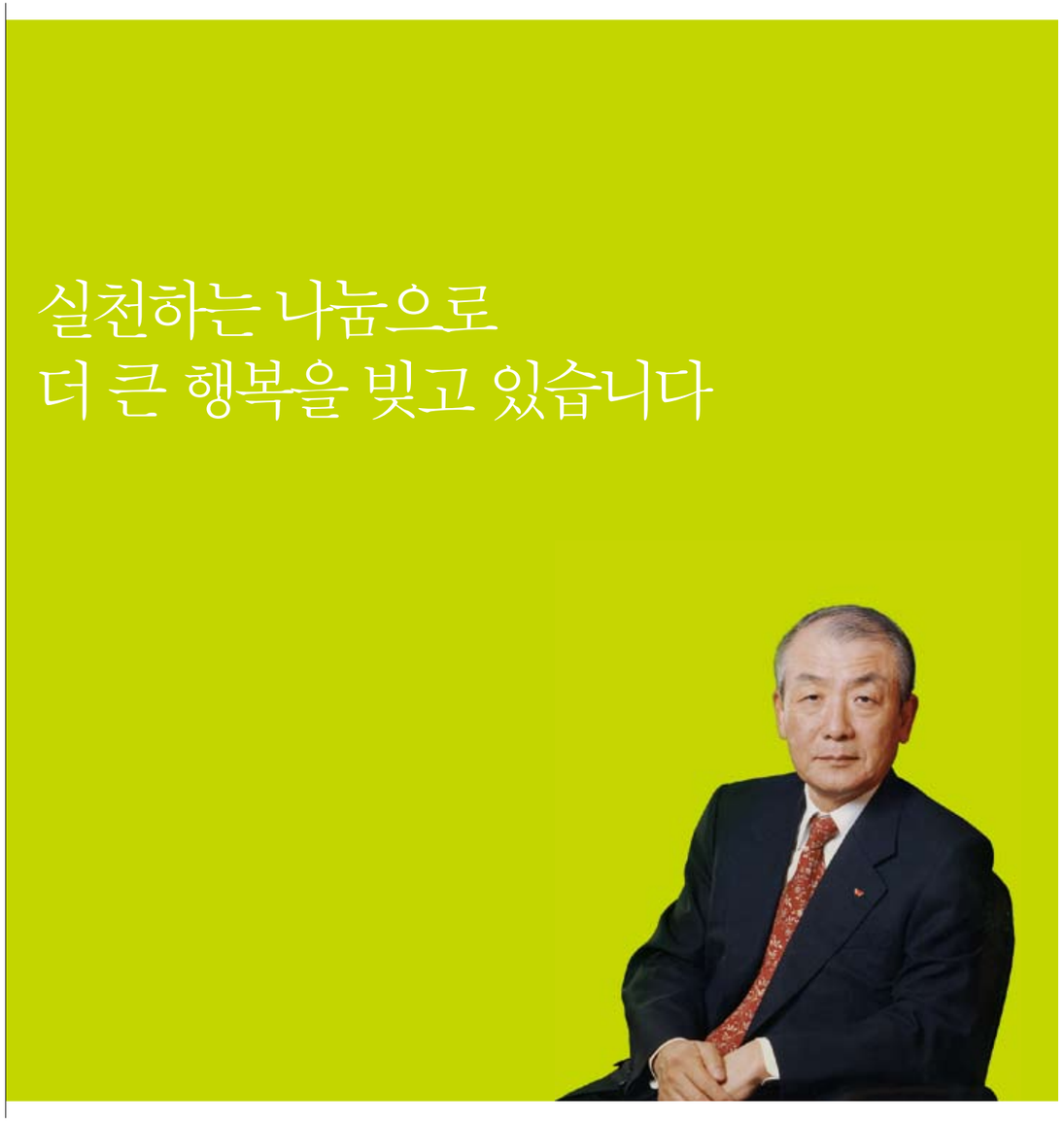
SK가 매년 이렇게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자원봉사의 소중함과 그 기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나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SK회장 최태원

실천하는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빚고 있습니다



SK는 고객과 사회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경영의 결실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미래 꿈나무 육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격차 해소 사업, SK자원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도 행복나눔을 실천하며 글로벌 나눔경영을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양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전략화·전문화·차별화를 꾀하여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SK가 앞장서서 행복나눔을 실천할 때 행복은 더 큰 행복을 낳으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3년 동안 총 5,700여 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소외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1318 해피존,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해피 뮤직 스쿨 등 소외계층 청소년의 교육 지원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립 이래 '인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교육 · 장학 사업을 전개해 온 SK 사회공헌의 자산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에는 2만여 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1인당 18.5시간, 총 38만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SK 임직원이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업문화가 되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지속성은 강제되지 않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SK자원봉사단은 일시적인 지원이나 단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외부의 평가로도 이어져 세계적 경제전문지인 '포천(Fortune)'지가 세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서 SK는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44위에 오르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한 1318 해피존, 행복도시락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모바일 미아 찾기 등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2007년 2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2007 하버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K는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07 SK 사회공헌활동 백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SK 각 관계사가 '따로 또 같이' 행복을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때로는 함께 힘을 모았고, 때로는 각 관계사별로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흘리는 작은 땀방울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SK의 사회공헌활동에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 인사들과 NGO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K는 '행복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SK자원봉사단 단장 조정남 조정남

행복은 가까이 있다

도시락을 만드는 웃음 띤 얼굴에
장애학생과 함께 걷는 다정한 발걸음에
무료 IT 교육원에서 배움에 열중하는 진지한 얼굴에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희망을 일구는 굵은 땀방울에
그리고 나눔으로 늘 함께하는 SK의 옆에.









사회복지 부문

어려움 속에서도 싹트는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발걸음마다 작은 기쁨들이
들꽃처럼 피어납니다.
이제 꿈과 희망이 밝은 내일을 열어 간다는 것을
나눔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웃의 웃음을 마주할 때 SK도 행복합니다.
함께 꿈을 키우고 희망을 나누는 동안
행복이 또 한 뼘 자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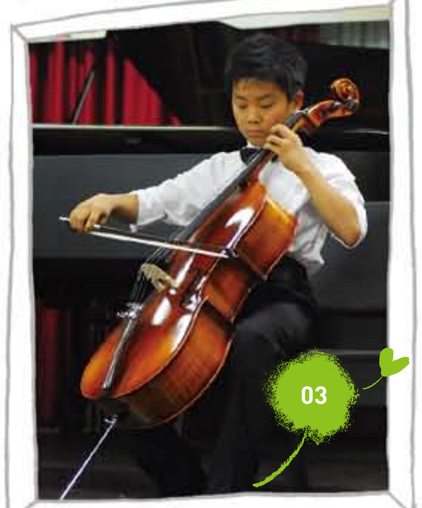
01_SK건설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02**_SK케미칼 **북한동포 의약품 지원** **03**_SK C&C **효마당** **04**_SK네트웍스 **살레시오의 집 후원**



01



02



03



04



05

교육 · 장학 부문

인등산에 작은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30여 년 세월 동안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황량했던 인등산은 지금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SK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01_SK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02**_SK해운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 **03**_SK텔레콤 해피 뮤직 스쿨 **04**_SK 1318 해피존 설립·운영

05_SK C&C 성남지역 청소년 행복장학금 전달

울산시민의 희망을 담아
산업도시 울산에 110만 평의 거대한 푸른 허파,
울산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강에서
소중한 자연의 생명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지켜 갑니다.
산 따라 강 따라 늘 푸른 대한민국,
SK는 맑고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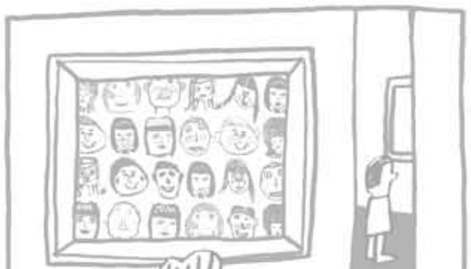

03


04

01_SK **충남 연기군 장례문화센터 건립** **02**_SK네트웍스 **남산 한옥마을 환경정화활동** **03**_SKC **국립현충원 환경정화활동**

04_워커힐 **자연보호 캠페인 및 유적지 환경개선**

공연장을 처음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작은 음악회에서 타악 연주를 선보이는 장애우에게
울산대공원 아티스트의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감동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스며듭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문화예술임을 알기에
SK는 오늘도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1



02





03



04

01_ 워커힐 민속공연 02_ SK가스 신예프로 10걸전 후원 03_ SK텔레콤 전국휠체어농구대회 04_ SK에너지 울산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육성



01

02

03

글로벌 부문

중국의 SK애심소학교에서
베트남과 연변의 IT교육센터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배움이 자랍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고
지진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 페루의 작은 마을에도
희망을 심었습니다.
SK의 나눔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초월해
온 세상으로 행복이 퍼져 갑니다.

01_SK건설 인도네시아 현장 인근 초등학교 후원 **02**_SK텔레콤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 지원 **03**_SK에너지 중국 SK우호림 조성



자원봉사 부문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를 희망으로 채웁니다.
기름 띠 대신 사랑의 띠로 태안반도를 감쌉니다.
100만 장 연탄에 온기를 실어 나르고
25만 포기 김장김치에 따뜻한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리겠다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지만
오히려 당신이 나눠 준 행복을 받아 옵니다.
작은 나눔을 엮어 큰 사랑을 만드는 실천으로
SK자원봉사단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_SK에너지 사랑의 연탄 나눔 02_SK E&S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손질 봉사 03_SK케미칼 노인장애요양원 내와동산 봉사 04_SKC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행복나눔 경영으로 다가올 50년을 약속하다

창립 이래 50여 년 동안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흔들림 없는 철학과 앞선 통찰력으로
사회공헌의 모범을 만들어 온 SK는
지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부르는 큰 힘으로 변화하듯
SK의 행복날개는 우리 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향후 50년을 향한 그 힘찬 날갯짓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여정

SK는 인재 양성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난 반 세기 동안 끊임없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이제 행복을 나누는 기업 SK는 모두의 꿈과 행복을 위해 시대를 넘어 미래로,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행복나눔'을 확산하고 있다.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의 행복이 여러 개의 행복으로 흩어져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을 돌아본다.

1973

MBC '장학퀴즈' 시작

SK의 단독 후원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장학퀴즈'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장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건전한 교양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1996년 10월 MBC의 프로그램 개편으로 종영된 후 1997년 1월부터는 EBS 교육방송을 통해 30여 년의 전통을 이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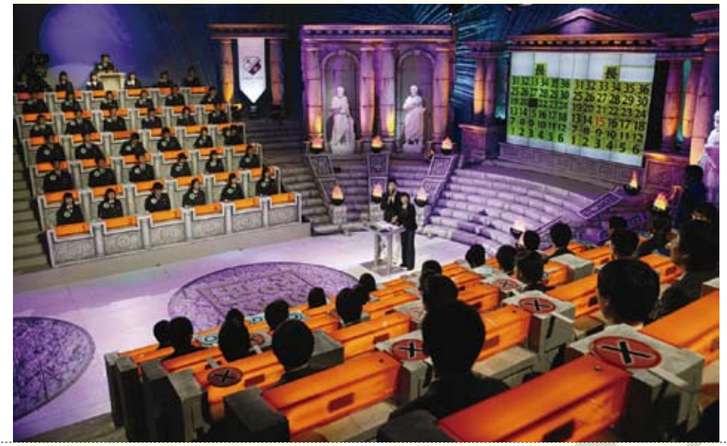


한국고등교육재단

1974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매년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퀴즈

1982

국악대공연 지원

국악의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일보와 함께 시작한 행사로 독창·연주·창극 등의 형태로 유지·발전시켜 가고 있다.



워커힐 미술관

1984

워커힐 미술관 개관

워커힐 미술관은 국내 젊은 미술가를 후원하고 외국 미술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으며, 2000년 12월에는 '아트센터 나비'로 새롭게 출발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순수미술 중심이었던 워커힐 미술관과 달리 멀티미디어와 넷 아트(Net Art)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론과 미학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이에 바탕이 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장학 시업의 뜻을 세우다

1970~

1980~



SK수원도서관



울산대공원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 사업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1990+1991

서울대 SK경영관 기증

1990년 SK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기증한 SK경영관은 연면적 3,29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강의실·세미나실·교수연구실·컴퓨터실·자료실·회의실·동시통역실·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SK대입학력경시대회

1991년 시작된 것으로, 전국 고교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시상함으로써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4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작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활 속의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로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제15회를 맞은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환경의 날(6월 5일) 공식행사로 적극 활용하는 등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1995

SK수원도서관 기증

SK는 수원시민의 문화생활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SK그룹 창업자인 고 최종현 회장의 애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수원시에 도서관을 건립·기증했다. 대지 3,600평, 연면적 2,5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40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어, 수원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강북구청 어린이집 무상 기증

SK건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생업을 돕고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강북구청에 무상 기증했다.

1996+1997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 사업 시작

1996년부터 SK텔레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민얼굴기형돕기와 함께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여건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베트남 어린이에게 정상적인 얼굴을 찾아 주고 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12년 동안 약 2,500여 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했다.

울산대공원 조성

SK에너지는 회사 발전의 터전이자 후원자였던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1997년부터 울산대공원을 조성해 2006년 무상으로 울산에 기증했다. 울산 남구 옥동·신정동 일원 110만평 부지에 조성된 울산대공원은 연간 이용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휴식공간이자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청소년지킴이집 운영

1997년 SK텔레콤은 학교 주변의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 등에 청소년지킴이집을 설치·운영했다.

1998

불우아동 의료사업 시작

SK텔레콤은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의료·복지 사업을 펼치는 민간기구 '글로벌 케어'를 돕기 위해 이동진료차량, 수술비, 의료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화여대 SK텔레콤관 기증

SK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공사비 전액과 정보통신연구소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화여대에 SK텔레콤관을 준공했다. SK텔레콤관은 연건평 2,000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이화여대 정보통신연구소로 활용되고 있다.

KAIST SUPEX경영관 기증

고 최종현 회장의 산학협동 기반 조성비와 정부 재원으로 기존 이학동을 보수해 준공되었다. 연건평 5,228평에 지상 5층으로 건립되었으며, KAIST는 고 최종현 회장의 산학협동을 기념하기 위해 5층에 최종현홀을 마련했다.

1999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시작

장애청소년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는 '장애청소년 IT챌린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단순한 정보검색대회 차원을 넘어서, 장애청소년들이 IT 활용 능력을 겨루고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공헌 철학을 확대 전개하다

1990~



SK장원방



아트센터 나비(Art Center NABI)



SK자원봉사단 발대식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1318 해피존

2000+2001

중국 'SK장원방' 방영 시작

한국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장학퀴즈'가 2000년 1월부터는 중국 북경 TV에 의해 'SK장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중국 7개 지역에서 방영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Art Center NABI) 설립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이 아트센터 나비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 의류 기부 시작

SK네트웍스는 2000년부터 학생복(스마트)과 캐주얼 의류(코너스)를 몽골·라오스·이란 등에 기부하고 있다.

국제학술교류사업 시작

SK는 2000년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우수한 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린맵 대장정 시작

2001년 SK텔레콤은 녹색연합과 함께, 일반인과 환경 전문가들이 동해·남해·서해의 해안지역을 도는 대장정을 통해 해안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환경사랑 캠페인을 벌이는 '그린맵 대장정'을 전개하고 있다.

2003

행복나눔 바자회

SK는 2003년부터 매년 연말 KBS와 함께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전 임직원이 판매 물품을 수거·손질하는 일에서부터 판매원으로 활동하여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및 기아대책에 기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엔크린 소년소녀가장돕기

SK에너지는 2003년 7월부터 '고객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SK 주유소'를 모토로 고객들이 SK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때마다 SK에너지가 10원씩 적립한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Sunny 대학생 자원봉사단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 2003년 고객봉사단 Sunny를 발족시켰다. '선한 이'라는 뜻의 Sunny는 국내 최초의 고객 참여 봉사단으로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이 모두 참여하는 고객봉사단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성장하여 SK텔레콤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다.

2004

SK자원봉사단 출범

SK는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04년 7월 SK자원봉사단을 출범, 사회 구성원의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실천에 옮기고 있다. SK자원봉사단 단장은 SK텔레콤의 조정남 부회장이, 12개 관계사별 단장은 각 사의 CEO가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미아 찾기 전개

미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은 2004년 5월 경찰청·한국복지재단과 협정을 맺고 휴대폰을 통해 미아를 찾는 '모바일 미아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5월부터는 이 서비스의 대상을 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바일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운영

SK C&C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성남과 일산에 무료 IT 교육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문화된 IT 교육을 통해 2007년 현재 총 2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127명이 취업했다.

베이징포럼 지원

SK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중국 북경대학이 주관하는 베이징포럼을 2004년부터, 중국 복단대학이 주관하는 상하이포럼을 2005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나래를 펴다

2005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SK는 2005년부터 (재)행복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에 도시락 급식센터를 설립하여,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06년 2월 중구점을 1호점으로 2007년 12월 현재 전국 29개소가 운영 중인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결식이웃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영양사·조리사·배달원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스피드메이트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는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전문 기술인으로서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스피드메이트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스피드메이트의 인턴사원으로 채용, 교육기간 동안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정비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SK에너지는 YMCA와 함께 자녀들의 보육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육기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할 뿐 아니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또한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야간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등을 선발·교육·파견하는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SK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시·해비타트와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협약식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부지매입과 공사비용 등 모두 6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SK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곡반정동에 2006년 3개동 18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개동 12세대, 2009년에 3개동 1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1318 해피존 설립·운영

SK는 1318세대(13~18세 청소년) 청소년들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정보·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1318 해피존'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국 29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07

해피 뮤직 스쿨

SK텔레콤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해피 뮤직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국에 SK우호림 조성

SK에너지는 중국의 황사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7㎢의 'SK우호림'을 조성했다. SK우호림은 국내에 황사 피해를 주는 진원지로 알려진 네이멍구 쿠부치사막의 모래 양을 줄여 황사 먼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6년에도 몽골지역의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후원했다.

베트남에 SK텔레콤 IT센터 설립

SK텔레콤은 베트남 IT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 12월 베트남 호치민 12구 광쭝지역에 'SK텔레콤 IT센터'를 설립했다. 숭실대·SK C&C와 협력하여 JAVA, UNIX, ORACLE 등의 전문 IT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 인력들에게는 한국으로의 유학, 인턴십 및 취업 등을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에 힘을 모으다

2004~

2005~

사회 구성원의 행복 극대화를 향해 . . .





SK는 안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영구히 존속·발전함으로써
고객·기업 구성원·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는 기업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는 1953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인간을 중심에 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그리고 50여 년의 역사 동안 SK의 소중한 자산인 SK 경영시스템 SKMS(SK Management System)와 SK 브랜드, 그리고 '행복나눔'의 기업철학을 갈고 다듬어 왔다.

교육·장학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사회공헌을 경영활동의 일부로 실천해 온 SK는 사회와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문화를 통해, 그리고 구성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행복경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 추구

1979년 SK인 모두가 합의한 경영관리체계를 갖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SKMS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2004년 10월, 이해관계자의 가치 추구 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수용, 향후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기법을 추가했다. 새롭게 정립된 SKMS의 핵심 명제는 회사의 영속성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고객·구성원·주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고 행복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SK가 추구하는 경영은 '인간 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Super Excellent) 추구'라는 '행복경영'의 원칙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과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SK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SUPEX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SK의 기본 이념이다. 사람은 기업의 물적 요소인 동시에 제도와 운영의 주체이며, 나아가 SUPEX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다. SK는 구성원 개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 SK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같은 경영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이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이념에서 확장된 활동이다. SK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는 관계사별로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을 향한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우리 사회의 행복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SK식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지가 세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서 SK는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44위를 차지했다. 또한 1318 해피존, 행복도시락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모바일 미아 찾기 등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2007년 2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2007 하버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행복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SK는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도, 또 그 나눔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세상, 그리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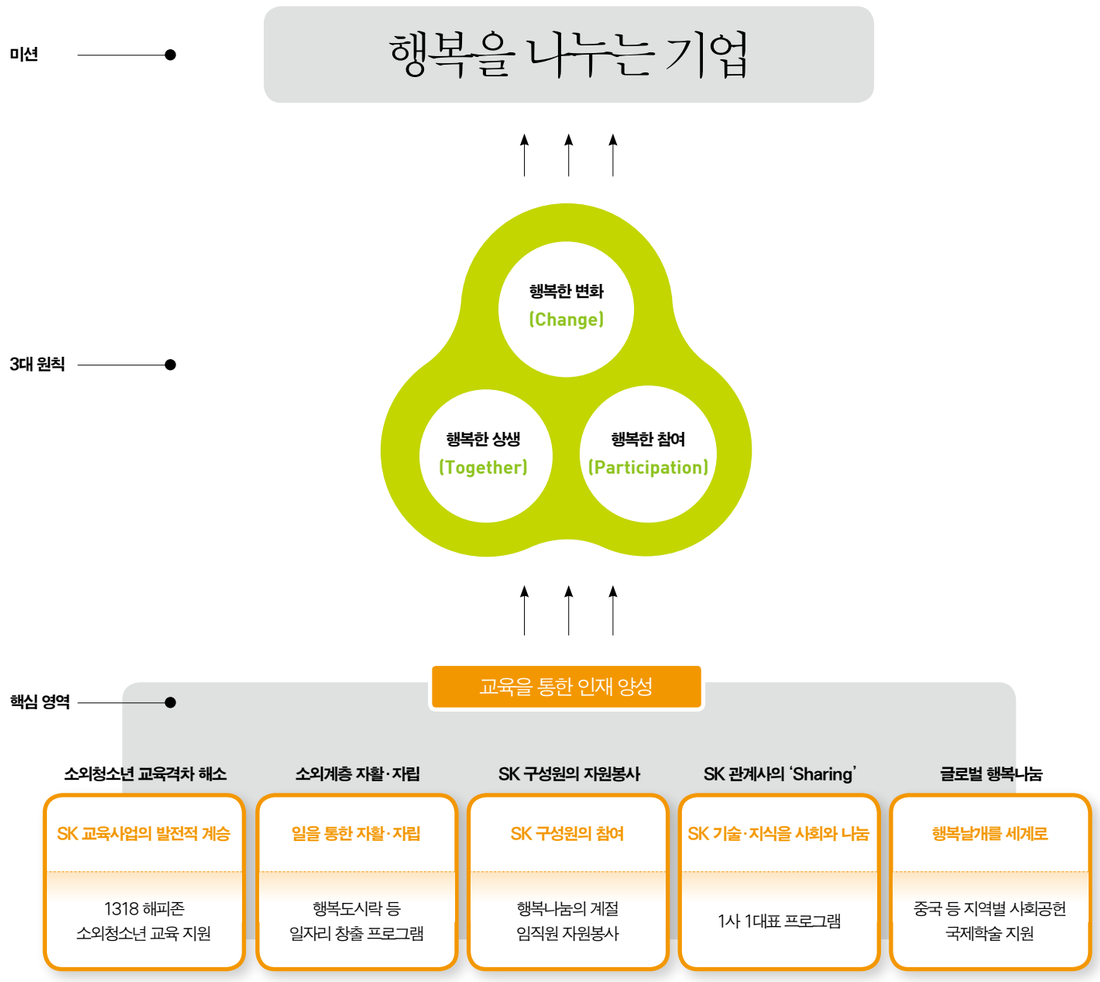
행복한 상생, 행복한 참여, 행복한 변화의 원칙

사회와 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SK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목표로 전략적·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SK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사회공헌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행복한 상생(Together), 행복한 참여(Participation), 행복한 변화(Change)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나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이념에서 확장된 활동이다. SK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K 사회공헌활동 체계도 |



'인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믿음

충청북도 충주에는 가래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인등산이 자리잡고 있다. 선대 최종현 회장은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지역주민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는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황무지였던 인등산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다. 그리고 인등산 기슭의 묘목이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즈음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꾸준한 지원으로 나무를 키우듯 인재를 길러 왔다. 인등산 숲에는 '인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SK의 기업관이 깃들여 있다.

중국 속담에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필요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100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그 작은 묘목이 울창한 삼림을 이룰 때까지 보살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SK는 '인재 양성'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1970년대부터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교육·장학 사업을 진행해 왔다. 1973년 SK 단독으로 '장학퀴즈' 후원을 시작한 이후 1974년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교육·장학 사업은 SK 사회공헌의 모태가 되었다.

'장학퀴즈'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한 SK의 장학사업은 사회공헌의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동시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고, 나무를 키우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같다'는 SK의 인재 양성에 대한 신념은 지난 반 세기 동안 흔들림 없는 기업이념으로 이어져 SK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교육사업이라고 해도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기업의 역할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이 요구되던 시기에 SK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엘리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인 것처럼 이제 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SK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토대로 '국가를 이끌어 갈,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SK는 그 동안 쌓아 온 교육·장학 분야에서의 역량과 자산을 바탕으로 소외청소년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318 해피존,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무료 IT 특강 등을 통해 균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SK는 21세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를 품에 안고 지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권 학술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북경대를 비롯해 7곳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 및 아시아권 학자들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지원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의 학문 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아시아와 세계의 지식인들이 교류하는 베이징포럼과 상하이포럼을 후원하여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다.

SK의 해외 사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페루 등의 국가에서도 현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서관 지원 사업, IT센터 건립, 학술지원 사업, 소학교 건립 등 각 국가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기초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창립 이래 지난 반 세기 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장학 사업을 펼쳐 온 SK는 앞으로도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 묘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듯 그 풍성한 결실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쓰일 것이다.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모색

SK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 아직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와 문

'장학퀴즈'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한 SK의 장학사업은 사회공헌의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 동시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고, 나무를 키우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같다'는 SK의 인재 양성에 대한 신념은 지난 반 세기 동안 흔들림 없는 기업이념으로 이어져 SK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 관계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전략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결식자의 증가, 실업률의 급증, 무주택 소외계층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SK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면하도록 돕는 일보다는 소외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결식이웃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무주택 소외계층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락',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등 결식이웃과 무주택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NGO·지방자치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협력모델을 만들어 냈다. 기업 또는 NGO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아직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기업·정부·NGO가 합심하여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냈고, 이러한 협력모델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2007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

2007년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 '행복나눔'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직적·체계적 틀을 갖추며 활성화된 시기였다. 특히 3년째를 맞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복도시락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사업 등을 통해 계획(4,844개) 대비 17%를 초과한 총 5,711개(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특히 노동부로부터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도시락' 사업은 2007년까지 총 29개의 급식센터를 개소해 하루 1만여 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5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SK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2007년 8월부터는 도시락과 함께 기부받은 책까지 배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여성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보조원으로 파견하는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소외계층 중에서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 등을 채용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보육시설 지원 사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경정비 기술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을 돕는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무료 IT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장애인·불우청소년 등이 자활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역간·계층간 확대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1318 해피존'은 2006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의 1호점을 시작으로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29개 해피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복지·문화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청소년 지원 모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사 1교 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피 뮤직 스쿨,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청소년들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희망·꿈을 키워 주었다.

또한 SK자원봉사단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CEO의 솔선수범 하에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SK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 아직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 관계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인적 · 물적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전략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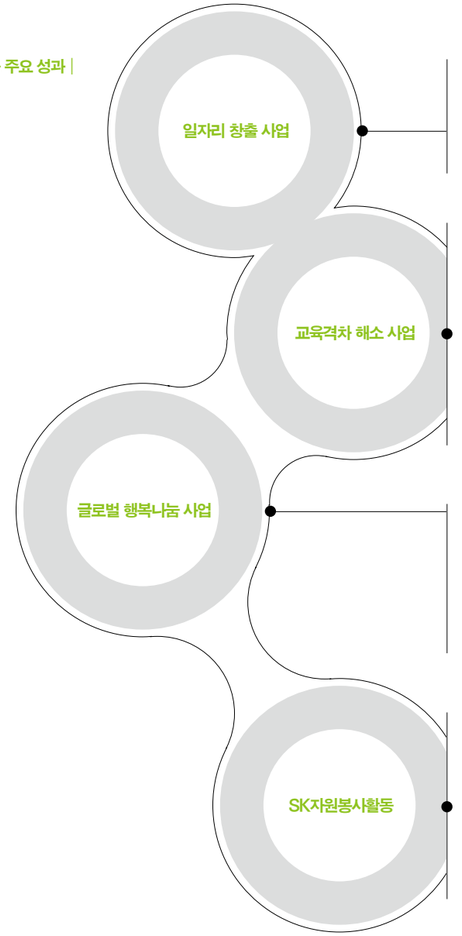




펼쳤으며,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및 태안 기름유출 현장 등 신속한 복구가 관건인 재해지역에 자원봉사단을 즉각 파견하고 긴급구호 물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등의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SK는 해외사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페루·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 지역에서도 SK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SK우호림'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SK애심소학교 건립, 연변 IT센터 건립, 베트남 도서관 지원 사업, 베트남 SK텔레콤 IT센터 건립,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페루의 복구 지원 등 국경을 초월한 행복 나누기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SK의 면모를 한층 공고히 했다. 2007년 SK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교육·장학, 환경보존, 문화·예술·체육, 글로벌 부문에서 활발하게 펼쳐졌다.

| SK 사회공헌활동 주요 성과 |



5개 사업에서 2007년 3,153개 일자리 창출(누계 5,711개)
- 행복도시락,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 대표적 사회적서비스 기업으로 평가

1318 해피존
- 2007년 추가 14개소 구축(누적 29개소)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참석(11월)
- 교육부총리 감사패 수상

1사 1교 운동 지원
- 공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
- 전국 8개교 3년간 20억원 지원

중국
- 중국 SK애심소학교 설립(11월)
- 중국사회공헌위원회 발족

페루
- 5년간 의료·교육 프로그램 지원

베트남
- 베트남 SK텔레콤 문고 설립·운영(총 10개)
- SK텔레콤 IT센터 오픈·운영(12월)

봉사단원 2만여 명(가입률 88.4%)
- 인당 봉사시간: 18.5시간(2006년 17.6시간)
- 자원봉사의 달(5월), 행복나눔의 계절, 태풍 '나리' 피해지역 및 태안 기름유출 긴급구호활동









사회복지 부문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얻었다. 2006년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전국에 29개소가 건립되어 총 5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돕는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2,786명을 각급 학교에 파견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각각 1,915개, 271개, 2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회째를 맞은 '행복나눔의 계절'은 전 관계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배춧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에 25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100만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등 낮은 곳으로 행복나눔의 물결이 이어졌다.

교육·장학 부문

교육·장학 부문에서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활동을 진행했다. SK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1318 해피존은 2006년 15개소에 이어 2007년 14개소를 추가로 건립해 총 29개소를 운영 중이며, 1318세대의 소외청소년들에게 학습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채워 주는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318 해피존은 지역사회 복지력을 향상시키는 복지 인프라 구축의 형태로 운영되어 종사자 신규 채용으로 129명의 전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325명의 열린운영위원 및 375명 전문영역교사, 961명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해피 뮤직 스쿨, IT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저소득 청소년 무료 IT 특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각 관계사들은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불우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펼쳤다.

환경보존 부문

2007년에도 전국 주요 SK 관계사들은 1사 1산 1하천 보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최근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실시해 본체 13만대를 포함, 배터리·충전기 등 총 30만대를 수거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또 2007년 15회를 맞은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에는 전년 대비 15% 상승한 8만 5,000여 편이 응모되는 등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SK는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와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07년에는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여자 골프대회 및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주최하고,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을 후원하였으며, 각 관계사별로 지역사회의 문화제 개최, 지역문화 살리기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SK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총력을 다했다.

글로벌 부문

SK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현지화가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SK는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사막지역에 'SK우호림'을 조성한 것을 비롯해 페루 지진피해 복구 지원, 베트남 도서관 지원 사업, 베트남 IT센터 건립,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시술 사업, 베트남 및 중국 학술지원 사업, 연변 IT센터 건립, 대학생 봉사단 Sunny의 글로벌 봉사활동, 장학금 지원 등 현지사회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자원봉사 부문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는 이제 일상으로 스며들어 2007년에는 전체 임직원 2만 3,000여 명 중 2만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들도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해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최태원 회장은 서울노인복지급식센터 급식 봉사와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고, 최신원 SKC 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각 관계사 CEO들도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 마라톤 기금 마련 행사, 소외아동 복지시설 봉사 등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SK자원봉사단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와 태안 기름유출 현장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각 관계사들은 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했다.



따로 또 같이 만들어 가는 행복나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SK의 기업문화와 브랜드를 공유하는 '따로 또 같이' 원칙을 잘 살려 SK 공동 프로그램에 관계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프로그램과 관계사의 개별 특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큰 행복을 만들고 있다.



SK 각 관계사는 기업문화와 브랜드를 공유하는 한편 각 관계사가 자율경영을 통해 SK Value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키워 나가는 '따로 또 같이'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업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SK 고유의 기업철학과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며, 브랜드를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명과 상표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넘어 고객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SK의 기업문화와 브랜드를 공유하는 '따로 또 같이'

근본적으로 '따로 또 같이'의 경영원칙은 각 관계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는 '따로'와, 모든 독립된 관계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따로'를 더 잘하기 위해 '같이'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며, '따로 또 같이'를 통해 각 관계사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SK 12개 주요 관계사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K 공동 프로그램과 관계사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사는 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SK 공동 프로그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SK의 독특한 사회공헌 방식은 '각 사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룹의 기업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따로 또 같이' 경영방침과 연결된다. SK는 '따로 또 같이'의 원칙을 잘 살려 각 사의 개별 역량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그룹 공동의 프로그램에 각 관계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SK 공동 프로그램

SK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관계사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SK자원봉사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관계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하나로 힘을 모아 진행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SK가 그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공동 프로그램은 각 관계사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사의 프로그램은 SK 공동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각 사의 특징과 장점을 반영해 진행되고 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는 마음가짐으로 SK의 각 관계사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공동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SK는 2005년부터 소외이웃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불우청소년 등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 SK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며, 소외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투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SK와 행복나눔재단이 진행하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전국에 29개 센터를 열고 하루 1만여 개의 도시락을 배달하며 5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2005~2007년 저소득층 여성을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로 양성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을 통해 1,479명,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을 통해 436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경정비기술을 무료로 교육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저소득층 여성을 일정 기간 교육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돕는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운영 등으로 2007년 3,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본적으로 '따로 또 같이'의 경영원칙은 각 관계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는 '따로'와, 모든 독립된 관계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따로'를 더 잘하기 위해 '같이'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며, '따로 또 같이'를 통해 각 관계사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 1318 해피존

SK텔레콤은 기존의 초등학생 위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1318세대에게 다양한 학습·정보·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1318 해피존'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교육과 복지를 결합하여 기초적인 생존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은 1318 해피존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1318 해피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여 현재 도시형 20개소와 농산어

| SK 사회공헌활동 주요 사업 |



일자리 창출,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SK자원봉사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관계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하나로 힘을 모아 진행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마음가짐으로 SK의 각 관계사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공동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촌형 9개소 등 전국 29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318 해피존은 지역사회 복지력을 향상시키는 복지 인프라 구축 형태로 운영되어 129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325명의 열린운영위원 및 375명 전문영역교사, 961명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수원 해비타트-SK 행복마을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수원 해비타트-SK 행복마을'은 SK그룹의 발원지인 수원지역의 무주택자를 위해 3년간 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SK 12개 관계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6년 3개동 18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개동 12세대, 2009년에 3개동 18세대를 건립해 총 8개동 48세대의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을 완공할 계획이다. SK자원봉사단, Sunny 대학생 자원봉사단, 글로벌 인턴 자원봉사단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SK자원봉사단

SK는 2004년 창립 51주년을 맞아 '뉴 SK'를 선언하면서 재도약을 천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그 동안 관계사별로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 SK자원봉사단을 결성하였다.

SK자원봉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고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사회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는 SK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관계사 CEO들의 솔선수범 하에 '사랑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5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쿠키 만들기 봉사와 연탄 배달, 2006년에는 저소득 가구 집고치기와 강원도 수재민을 위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서울노인복지급식센터 급식 봉사와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KC 최신원 회장,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등 각 관계사 CEO들도 태안 기름 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 마라톤 기금 마련 행사, 소외아동 복지시설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고경영층의 봉사활동은 이웃돕기의 참뜻을 되새기고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SK 전 임직원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이제 자원봉사는 SK의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2007년에는 2만여 명(가입률 88.4%)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행복나눔의 참의미를 실천했다.

● 행복나눔의 계절

SK는 그룹 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SK의 기업이념인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그룹 사회공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겨울마다 '행복나눔의 계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행복나눔의 계절'로 선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각 관계사 CEO와 임직원 2만 3,000여 명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소외계층돕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K 행복나눔 바자회', '행복김치 담그기', '소외계층 연탄 나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2007 행복나눔의 계절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됐다.

- SK 행복나눔 바자회

SK는 2003년부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하는 'SK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있다. 2007년 12월 12일 용산 KTX 역사에서 진행된 바자회는 SK그룹 전 관계사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SKC 최신원 회장을 비롯해 SK

텔레콤 김신배 사장, SK C&C 윤석경 사장, 워커힐 유용종 사장 등 각 관계사 CEO와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에게 애장품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박태환(18·경기고) 선수는 자신의 금메달 수영복을 불우이웃을 돕는 데 내놓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SK와이번스 김광현 선수 등은 사인 볼과 사인 방망이 등을 내놓아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이날 물품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NGO 기아대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등록금과 교복·학용품 지원에 쓰였다.

- 행복김치 담그기

SK그룹 12개 주요 관계사 CEO와 임직원들이 참여해 총 25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2007년에는 배춧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2006년 20만 포기보다 25% 양을 늘려 소외계층 20만여 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25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 소외계층 연탄 및 난방비 지원

SK는 주요 관계사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2007년에는 최태원 회장과 창단 이후 최초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선수들이 구단 연고지인 인천시 중구 답동에서 불우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한 것을 비롯하여 SK그룹 임직원들은 최빈곤계층 4,000여 가구에 연탄 100만 장을 배달하고 난방유도 공급했다.

● 행복나눔 자원봉사의 달

SK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일시적인 사회공헌이 아니라 SK그룹의 문화로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임직원 자원봉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SK는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을 자원봉사의 달로 정하고 '행복한 상생', '행복한 참여', '행복한 변화' 등의 '행복나눔' 원칙에 따라 전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1인 1후원계좌 갖기'와 '1인 1자원봉사 참여' 등으로 구성된 '1+1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프로그램은 SK그룹 임직원이 소외아동 및 청소년 돕기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NGO를 통해 후원하는 방식으로 각 관계사별로 NGO를 선정하고 임직원들이 후원계좌를 개설, 지원하고 있다. 1인 1자원봉사 프로그램은 SK그룹 내 380여 개의 자원봉사팀이 연간 자원봉사 계획과는 별개로 5월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 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380여 개의 자원봉사팀이 각 팀별로 1명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과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자원봉사 기간에는 CEO 릴레이 자원봉사를 포함,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 60여 개 협력사, 고객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도 참여했다.

● 긴급구호활동

SK는 2007년 7월 19일, 여름철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구호시스템을 확립하고 긴급구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SK의 긴급구호시스템은 재난 발생시 관계사 지역네트워크에 있는 상황실을 통해 재난 상황을 파악한 뒤 재난 구호품 전달 및 자원봉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구호 자원봉사단 발대식 후에는 재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14개 품목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 2,000개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티셔츠 4장·세탁용품·비옷·수건 등 14가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는 생수·가스연료 및 빵 등의 단기 보관 생필품과 함께 재난 현장에 전달된다.

2007년 SK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남지역에서 다양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긴급구호 키트 1,500세트 및 피해복구 성금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피해지역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무료차량 제공(SK에너지), 고객 요금 감면 및 임대폰 지급(SK텔레콤), 의류 지원 및 차량 무상점검(SK네트웍스), 건설 중장비 지원(SK건설), 가스온수기 설치(SK가스) 등 다양한 긴급구호활동으로 제주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도왔다.

SK는 2004년 창립 51주년을 맞아 '뉴 SK'를 선언하면서 재도약을 천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그 동안 관계사별로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월 22일 SK자원봉사단을 결성하였다. SK자원봉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고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사회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는 SK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관계사 CEO들의 솔선수범 하에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회장의 철학과 이상을 따라 1974년 인재양성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4개의 장학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34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박사학위자 446명을 배출했다. 또한 아시아연구센터,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등 국제학술지원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 해외유학 장학제도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주 장학제도로서 사회과학, 순수자연과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유명 대학원에 유학시켜 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매년 30여 명을 선발하여 5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며 지금까지 534명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37명을 선발, 현재 세계 25개 대학에서 185명의 장학생이 해외유학 중에 있다.

- 대학원 장학제도

동양학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1990년부터 실시한 동양학연구 장학제도는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 중 동양학 분야의 연구를 원하는 인재를 선발, 국내 및 해외 박사과정을 지원한다. 매년 10여 명을 선발하여 등록금과 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보통신 장학제도는 1997년부터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지금까지 134명을 지원했다.

- 대학특별 장학제도

사회과학·순수자연과학·정보통신 분야에서 학자적 자질을 가진 우수한 대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학문에 전념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지도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해외유학 장학제도를 통해 해외에 유학시켜 우수한 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로서, 197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40여 명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월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금까지 939명을 지원했다.

- 한학연수 장학제도

전통학문에 대한 연구능력을 함양하여 장차 동양학문을 계승·발전시킬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로서, 197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인문과학 분야 또는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 중 동양 관계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우수한 대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지원한다. 매년 10여 명을 선발하여 3년간 월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금까지 297명을 지원하였다.

- 아시아연구센터

아시아 각국의 주요 대학과 학술기관에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시아학술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학문 발전과 상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아시아 7개 국 16개 기관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아시아 학자들의 우수 연구과제·학술회의·연구출판·초청강연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학술성과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Asia Research Network〉(영문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의 아시아연구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각 아시아연구센터에서 거둔 연구 성과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내에 '세계아시아연구정보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연구센터들의 주관으로 중국 인민대학 '제4차 국제유학회의', 중국 전매대학 '제5차 아

시아미디어포럼', 요녕대학 '제3차 동북아국제회의',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 '제1회 하노이 IT국제회의', 캄보디아 왕립한림원 '제3차 동남아문화가치국제회의'가 열렸다.

- 베이징포럼

베이징포럼은(Beijing Forum)은 세계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인류 문명의 발전과 미래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국제학술포럼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북경대학·북경시가 공동 협력하여 2004년 창설한 이래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 42개국에서 450여 명의 초청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명의 조화와 공동 번영: 인류 문명의 다원적 발전모델'을 주제로 제5회 베이징포럼을 개최했다.

- 상하이포럼

상하이포럼(Shanghai Forum)은 세계의 저명학자·관료·기업인들이 참가하여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이론과 정책과 실무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토론하는 경제포럼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복단대학·상해시가 공동 협력하여 2005년 창설하여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 23개국에서 300여 명의 초청인사들이 참석하여 '경제글로벌화와 아시아의 선택: 에너지, 화폐, 공동시장'을 주제로 제2회 상하이포럼을 개최했다.

-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은 아시아 각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1년간 학문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학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부터 매년 50여 명의 학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시아 11개국 73개 기관에서 총 411명의 학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57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기업의 특성과 노하우가 반영된 체계적이고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SK 12개 주요 관계사는 그룹 공동 프로그램 외에 각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SK는 매년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정사업 기부를 통해 시민단체들과 3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사업 기부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 기업의 기부 의도 및 관심 방향에 따라 지원 지역,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SK의 주요 지정사업은 '꿈 이루기 성장프로그램'(제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한센인 및 2·3세 지원'(참길복지), '틴스비전 프로젝트'(YMCA),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볼런티어21),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이다.

● 글로벌 행복나눔

SK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베이징포럼·상하이포럼·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 등을 펼침으로써 국제학술교류 및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가 진출한 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행복나눔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중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SK China, SK에너지 중국 법인, SKT China 등으로 구성된 '중국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국사회공헌위원회는 향후 중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SK 12개 주요 관계사의 특성을 반영한 1사 1대표 프로그램

2007년 5월 주간지 〈이코노미21〉에서 진행한 국내 19개 그룹 및 4대 금융그룹의 CSR 진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에게 적합하게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일수록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중의 인지도와 호감도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과 노하우가 반영된 체계적이고 적합한 사회공헌활동일수록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SK 12개 주요 관계사는 각 사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화학회사로서 '울산대공원 사업'과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펼치는 SK에너지, 이동통신기업으로서 '모바일 공익사업'을 펼치는 SK텔레콤, IT 회사의 역량을 살려 장애인에게 무료로 IT 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취업에까지 연계하는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을 운영하는 SK C&C, 건설회사의 특성을 살려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SK건설, 해운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SK해운, 금융회사라는 특성을 살려 '청소년 경제교실 '을 진행하는 SK증권 등 SK 12개 주요 관계사의 1사 1대표 프로그램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과물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K에너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랑의 연탄 나눔

SK에너지는 에너지 회사라는 기업 특성에 걸맞은 따뜻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행복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추위와 싸워야 하는 소외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2004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2005년부터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SK에너지 신헌철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부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지속성, 자활·자립

신헌철 자원봉사단장은 지난해 태안 기름유출현장을 찾아 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방제작업을 벌였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기름으로 오염되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태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또 소록도를 찾아 온갖 설움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한센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도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다 도울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개인·NGO·기업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SK에너지의 사회공헌활동은 회사의 설립 및 성장 그리고 현재 위상과 궤를 같이 한다. SK에너지가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발해 국내 최대 종합에너지·화학기업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화학 메이저로 도약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나 의미 면에서 더 나은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 자원봉사단 출범 당시 39개 봉사팀 1,234명이었던 것이 2007년 말에는 52개 봉사팀 3,665명으로 늘어났고, 봉사시간 또한 1만 7,200시간에서 5만 3,000시간으로 증가한 것만 봐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봉사팀과 참여인원이 늘어난 게 다가 아니다. 공사비 1,02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울산대공원을 2006년 울산시에 기부채납한 데 이어 2007년에는 SK텔레콤과 공동으로 공사비 500억 원에 달하는 '장례문화센터'를 충남 연기군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착공했다.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투명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경영 관련 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2007년 최우량기업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신헌철 단장은 이러한 외형상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진정성, 지속성, 자활·자립이 전제되어야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원칙은 SK에너지 사회공헌활동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자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좀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 가는 사회, SK에너지 신헌철 단장이 이루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다.

SK텔레콤

모바일 공익사업

SK텔레콤은 그 동안 구축해 온 앞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미아·장애인·치매노인 찾기, 긴급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모바일 헌혈,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또 휴대폰을 통한 기부문화(1004♥사랑나눔) 활성화,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청소년 휴대폰 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모바일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동통신기업만이 펼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SK텔레콤 김신배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일, 행복 극대화의 시작입니다

해마다 12월 1일이면 거리에서 구세군을 만날 수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종소리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한 해를 떠올리게 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2007년 12월에는 이 구세군 자선냄비가 모바일에도 등장했다. 휴대폰으로 네이트에 접속해서 현금은 물론 각종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었던 것.

이제 휴대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기부를 할 수 있고, 잃어버린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찾을 수도 있다. 이처럼 휴대폰이 다양한 공익사업의 한 중심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SK텔레콤 김신배 자원봉사단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휴대폰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창출하는 메신저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적 경영자원을 사회와 공유할 때 보다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겠다는 김신배 단장의 신념은 SK텔레콤이 펼쳐 온 사회공헌활동 곳곳에 스며 있다. 2007년에는 소외청소년의 교육 양극화 문제 해소 및 SK텔레콤의 기술·지식 나눔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참여하여 벌이고 있는



'1318 해피존'과 '행복도시락'은 기업·정부·NGO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김신배 단장은 SK텔레콤이 가진 진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인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이 정부와 NGO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NGO의 전문성, 기업의 자원이 결합되면 사회의 소외된 영역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신배 단장이 강조하는 이 같은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은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승화된다. 현장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땀냄새 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구성원의 90%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Sunny 봉사단 등 고객들까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 지역까지도 행복날개를 더욱 넓게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김신배 단장을 비롯한 SK텔레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일자리 창출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 정비자격증 취득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드메이트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정만원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SK네트웍스 정만원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사랑의 찐빵 나눔 봉사'에 쏟는 애정은 남다르다. 이 행사는 SK네트웍스 '사랑의 찐빵 나눔 봉사동호회'가 서울 인근 복지기관을 방문해 함께 찐빵을 만들며 복지기관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정만원 단장도 200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어르신들과 함께 손에 밀가루 반죽을 묻혀 가며 찐빵을 빚는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보람이 참 큽니다. 더구나 갓 쪄낸 찐빵을 받아 든 사람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 제 마음까지도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찐빵을 만드는 활동에는 수혜자와 봉사자가 함께 빚은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그 감동이 더 크다는 정만원 단장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참된 봉사활동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는 베푸는 것'이라는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베푸는 것은 자칫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효율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봉사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진정한 봉사는 수혜자나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즐거워야 합니다."

수혜자와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는 정만원 단장의 생각은 '스피드메이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잘 나타나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문 기술과 취업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만원 단장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SK네트웍스 전 구성원이 자원봉사단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2007년만 해도 SK네트웍스 임직원 1인당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6시간을 웃돈다.

정만원 단장은 CEO가 자원봉사단을 총괄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CEO 겸 자원봉사단장이 봉사현장을 찾는 모습을 통해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까닭이다.

"현장에 나갈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구성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구성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가 주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수혜자와 봉사자, 모두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 더욱 비중을 두겠다는 정만원 단장은 앞으로 소외계층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등의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SK케미칼

서울장애인복지관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파주 주보라의집 결연



SK케미칼은 지역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펼치는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임직원들은 행복날개 수련원 지도사범과 함께 월 2회 순환조를 편성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기체조를 돕고 있다. 또 파주 주보라의집은 SK케미칼 직원이라면 꼭 한 번 이상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시설로, 직원들은 매년 이곳을 찾아 빨래, 집수리, 목욕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김창근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부회장

행복은 효율로 따질 수 없습니다



SK케미칼 김창근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12월이면 복지관 뒷마당에 앉아 김장을 담는다. 2007년 12월 김장을 담던 날은 날씨가 제법 추웠지만, 이웃들의 식탁과 마음이 자신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코가 빨개지는 줄도 몰랐다.

서툰 솜씨로 직접 김장을 담는 것보다 성금을 전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김창근 단장의 생각은 확고하다. '행복은 효율로 따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기업의 CEO라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또 그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공헌활동은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단장이 아니라 CEO로서도 사회공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EO는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영에 임할 때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자원봉사단장으로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서야 직원들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김창근 단장의 이런 신념 때문인지 SK케미칼은 얼마 전 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관계사별 사회공헌 실태 조사'에서 '활동 참여자의 자발성'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내용 면에서 우수한 SK케미칼의 사회공헌활동을 잘 보여 준 결과이기도 했다.

실제로 SK케미칼은 본사를 비롯하여 지방 사업장마다 자체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본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서울장애인복지관(화학부문)과 한국우진학교(생명과학부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는 활동이 주축을 이룹니다. 이 활동들은 임직원들 사이에 호응이 커서 각 본부가 자발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참여할 정도입니다. 본사 못지않게 수원·울산·안산·오산 등 각 공장과 연구소의 봉사활동도 활발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랑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 위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은 바로 그런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김창근 단장이 밝히는 SK케미칼의 2008년 사회공헌활동 방향은 2007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에서다.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이슈가 아니라 따뜻한 온정입니다. 그 관심과 지원이 식지 않고 훈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KC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청소년 후원



SKC는 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어려운 여건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사원 1가정 형식으로 소년소녀가정에게 매달 교육비 및 생필품 비용을 생계 능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초·중·고생 150명에게 매월 5만 원씩 9,000만 원을 후원했다.

SKC 박장석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사회에 불어넣는 긍정의 힘



"봉사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에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원봉사단장으로서 이웃에 대해 좀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는 박장석 단장.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이 CEO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2007년 여름 성남의 중동 제2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던 기억만 해도 그렇다. 그날 박장석 단장은 200여 인분의 밥을 푸는 일을 맡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한여름에 뜨거운 밥을 푸려니 아찔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러 오신 어르신들께 한 끼의 식사를 손수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뻐근했던 팔에 대한 기억도….(웃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KC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박장석 단장. 실제로 SKC는 2007년 한 해 동안 스쿨 업그레이드,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청소년 후원, 선경 최종건재단 10억 기부 등 다양한 교육·장학사업을 펼쳤다.

박장석 단장은 특히 직원과 회사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들을 후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다.

2008년에도 박장석 단장은 일회성·이벤트성 봉사활동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의 봉사활동을 유지·확대하는 한편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SKC는 행복을 나누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눔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K C&C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SK C&C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과 일산에 무료 IT 교육원을 설립, 전문화된 I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두 군데의 무료 IT 교육원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12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SK C&C는 장애인 업체와의 연계고용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SK C&C 윤석경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IT와 봉사활동이 만나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SK C&C의 사회공헌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업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IT를 통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은 그러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원봉사단장으로서 윤석경 단장은 'IT를 통한 사회공헌'에 목소리를 높인다. 소외계층의 생계 지원 형태인 '불우이웃돕기'를 뛰어넘어 전문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이라는 생각에서 SK C&C는 성남과 일산에 무료 IT 교육원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IT 전문교육 및 장애인 연계고용을 실시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07년 IT 봉사단을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 12월에는 정보통신부 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기업으로 상을 받았다.

SK C&C의 사회공헌활동을 움직이는 한 축이 'IT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면 또 한 축은 '전 구성원의 자원봉사'. 2004년부터 모든 구성원이 30여 개의 결연기관에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연말에는 CEO와 전 임원이 부부 동반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사를 3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2006년과 2007년에는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2회 연속 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많은 봉사활동 중 윤석경 단장이 가장 감동을 받았던 곳은 지난 봄에 방문했던 성남의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지체장애를 안고 태어난 큰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돌봐 주는 이 없는 장애아를 하나 둘 맡다 보니 지금은 20여 명의 대가족으로 늘어났다며 환하게 웃는 목사 부부를 보면서, 세상의 낮은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정신지체 장애아동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놀아 주고 공부하는 삶에 익숙해진 중년의 목사님 내외를 보면서 행복한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느끼기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윤석경 단장. 세상을 좀더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SK C&C의 활동도 그래서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SK건설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건축주택부문 C/S본부 소속 4개 고객센터(서울·수도권·중부·영남)는 2006년부터 매월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75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매월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 지역 복지단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SK건설 유웅석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더 많은 봉사활동으로 해외의 이웃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SK건설의 2007년 사회공헌활동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먼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는 점.

"2007년 4월에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열었는데, 행사에 참여한 태국 근로자들은 물론 태국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당사에서 가장 필요한 행사였다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좀더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 만큼 그날 행사에 참여한 태국인 근로자들의 행복 가득한 얼굴은 유웅석 자원봉사단장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때의 감동은 9월 인도네시아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유웅석 단장은 인도네시아 SK건설 L-Project 현장을 찾았다가 현장 근처의 Dumai 초등학교에 교과서를 후원하고 고아원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였는데, 이 일이 현지 신문(Dumai Pos)에 보도될 만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것.

그래서 SK건설은 2008년부터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회공헌활동을 개편·추진하는 동시에, 환경보존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 진출국(태국·쿠웨이트·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팀별 봉사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 공통 봉사 프로그램 외에 각 팀별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자체적·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면서 이룬 성과이다. 유웅석 단장은 무엇보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부문·부서별 봉사활동 참여도 편차를 줄여 전체 봉사 참여율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웅석 단장도 매년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12월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은 참 행복한 경험이었다.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이웃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지만,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수혜자의 행복한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드리겠다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나누어 준 행복을 받아 오는 것 같습니다."

SK해운

수상구조대



SK해운은 해운회사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수상구조대를 조직하여 긴급재난구조활동, 해양·하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한국해양소년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신체 장애로 수상체험활동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한 '배 태워 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수상활동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K해운 이정화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봉사를 통해 행복을 경험한다

SK해운 이정화 자원봉사단장은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하던 지난 11월의 기억이 생생하다. 독거노인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컸지만, 행여 연탄이 바닥에 떨어질세라 참여한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몸이 되었던 경험은 아직도 가슴 뭉클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쓰다 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화 단장의 이러한 마음은 임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SK해운 임직원들은 자발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도시락 나눔·학습지도·주거환경개선·울타리공동체 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상구조대'는 SK해운의 대표 봉사활동. 수상구조대는 긴급재난구조, 해양·하천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소년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07년은 해양소년단과 연계한 장애우 배 태워 주기 행사를 통하여 평소 신체적인 장애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상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우들에게 수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정화 단장은 2008년에도 해운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사회공헌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공헌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갖추었다.

"기업 특성을 반영한 핵심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화되면서도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정착시켜 갈 것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 및 포상제도 운영으로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다질 것입니다. 또한 지방사무소 활성화와 NGO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룹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이정화 단장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다. 대표이사가 자원봉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SK이기에 가능한 모습일 터.

CEO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모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길임을 이정화 단장이 증명하고 있다.

SK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SK증권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과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 2006년부터 청소년 경제교실을 열고 있다. 초창기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 등 기초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한 데 비해, 2007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올바로 이해하는 한편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2007년 한 해, 서울 및 각 지역의 10개 봉사팀이 사회복지시설 및 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교실을 개최하였다.

SK증권 김우평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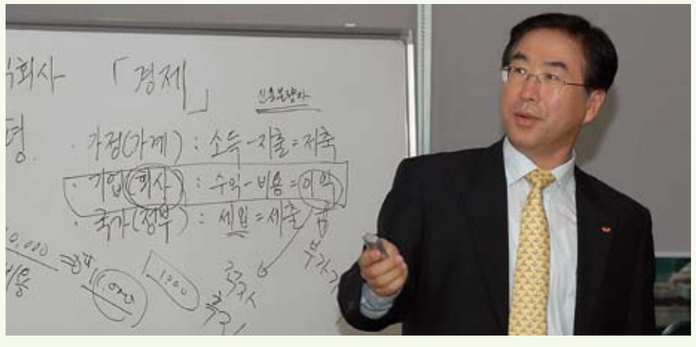
봉사활동의 내실을 높여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우평 자원봉사단장은 먼저 한 통의 편지부터 소개했다. SK증권은 2007년 6월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봉사팀별로 조손가정 44가구 77명의 청소년을 일대일 후원하고 있는데, 김우평 단장도 한 소년과 결연을 맺고 있다. 그 편지는 바로 그 소년에게 온 것이었다.

"'전기가 들어올 때도, 수도에서 물이 나올 때도, 전화가 울릴 때도, 보일러가 돌아갈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앞으로 더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영향력이었을까. SK증권의 2007년 사회공헌활동은 예년에 비해 참여 임직원 수, 활동 횟수, 활동 시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목욕 봉사, 노인마을 김장 담그기, 결손아동과의 놀이활동, 독거노인 돕기,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김우평 단장이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SK증권에 '임직원 1% 나눔 봉사활동'이 있는데, 임직원들이 연간 근무시간 1%(약 20시간)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1인 1봉사 활동입니다.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팀별로 상황이나 인원에 맞게 노숙자 무료급식, 결손아동 돕기, 환경보호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 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봉사하는 기업, 행복으로 보답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2008년은 SK증권 자원봉사단이 구성된 지 5년째. 김우평 봉사단장은 올해는 봉사활동의 수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와 교육·장학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환경·문화예술·글로벌 분야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SK증권의 대표직도 또 자원봉사단 단장직도 어느 하나 만만하지는 않지만, 김우평 단장에겐 그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다.

"CEO로서 자원봉사단장을 겸하니까 좋은 점이라면… 의무감이 크죠.(웃음) 하지만 그 의무의 무게만큼 더 큰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마음은 즐겁습니다."

워커힐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민속공연



워커힐은 지난 2002년 '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아사모)을 창단한 후 지금까지 연 3회 이상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창립기념일을 기념하여 실시되는 캠페인에는 임직원 20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지역 환경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워커힐 에능팀의 민속공연은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민속공연 관람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진구청·구리시청과 연계해 지역뿐 아니라 광역권까지 공연을 확대하고 있다.

워커힐 유용종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

워커힐의 사회공헌활동은 '나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눔을 통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워커힐은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눔이야말로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유용종 자원봉사단장의 얼굴은 그래서인지 은은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눔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수혜자 분들의 행복 가득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져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수혜자 분들이 나누어 준 행복을 받아 오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행복나눔'을 봉사활동의 제1 가치로 두고 있다는 유용종 단장. 실제로 워커힐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용종 봉사단장이 꼽는 체계적인 운영은 바로 실·본부 차원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2007년도에는 실·본부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151개 개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 '2007 서울특별시 봉사상'에서는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동종 호텔업계 최초로 '서울특별시 봉사상'(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나누는 행복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다고 강조하는 유용종 단장에게 2007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일까?

"모든 봉사활동이 새록새록 기억에 새롭지만 특히 NGO 및 지역단체, 지역 유치원생과 실시한 '행복 나비와 함께하는 아차산 자연사랑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룹 CI를 고려해 나비 방생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광역권까지 아우르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유용종 단장. 자원봉사단장과 CEO를 겸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뿌듯함이 컸다고 회고한다.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더욱이 직원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니 일석이조죠. 봉사활동은 자가 발전하는 행복 충전소인 것 같습니다."

SK E&S

재활용품 살리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전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K E&S는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재활용품 살리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된 재활용품과 물품들이 다시 판매될 수 있도록 손질, 가격 매기기, 운반 과정에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손을 도왔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여 소외계층에 지원했다.

SK E&S 김중호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봉사현장은 저의 또 다른 집무실입니다



김중호 자원봉사단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구성원들이 시간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봉사활동에 즐겁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CEO로서 그리고 자원봉사단장으로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SK그룹의 일원으로서 관계사들과 함께, 또 9개 자회사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와 함께 '따로 또 같이'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전 구성원이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말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전국 9개 자회사와 함께 펼친 봉사활동은 SK E&S 창립 이래 첫 번째로 기록될 합동 자원봉사활동으로서, 김중호 단장이 2007년의 성과로 꼽는 활동이기도 하다.

현재 SK E&S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은 '재활용품 살리기'.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일은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서 SK E&S가 앞장서야 할 일이기도 했다.

"저 역시 2007년 11월에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손질센터를 찾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분류·손질하는 일은 신체적으로 참 고된 일이더군요. 도움을 받을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고는 참아 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그날 함께 묵묵히 활동하던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 생활의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찾아내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김중호 단장. 그에게 봉사현장은 움직이는 집무실이기도 하다. 봉사활동 시간이 직원들에게는 업무의 또 다른 연장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는 기우를 씻은 것도 바로 봉사활동 현장에서였다.

"임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 현장처럼 스스럼없는 곳이 또 있겠습니까? 봉사활동 시간은 내 시간의 한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SK E&S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SK가스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 후원



SK가스는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과 평택 인근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매월 쌀과 학용품비를, 자매결연을 맺은 울산 선암초교·평택 원정초교의 결식아동에게는 매월 쌀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 초등학교에는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날·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는 후원아동 초청행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SK가스 김치형 자원봉사단장·대표이사 사장

기업의 발전은 사회공헌과 함께한다



2002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한 SK가스는 2004년 자원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울산·평택 기지 인근의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 후원은 직원들이 매월 성금을 모금하여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와 저희 직원들의 도움이, 후원학생들 본인이 희망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SK가스 김치형 자원봉사단장. 물론 그 또한 자원봉사단장이라고 해서 뒷전에 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재활원에서 점심 배식, 목욕 봉사 등 SK가스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곳에 김치형 단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밥을 떠 먹여 주거나 몸을 씻어 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몇 번 얼굴만 비치는 자원봉사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봉사처 사람들이 'SK가스다', '김 과장은 오늘 안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는 김치형 단장. 그러고 보면 2007년 SK가스 임직원들은 최소 한 번쯤은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전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원봉사의 생활화'는 김치형 봉사단장이 꼽는 2007년의 대표적 성과이기도 하다. 김치형 단장은 여기서 안주할 마음이 없다.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 수준도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 글로벌 클린 에너지(Global Clean Energy), 친환경 유틸리티(Utility) 기업이 되고자 하는 우리 회사의 전략 방향 및 그룹의 전략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치형 단장에게 기업의 발전은 사회공헌과 함께 가야 할 톱니바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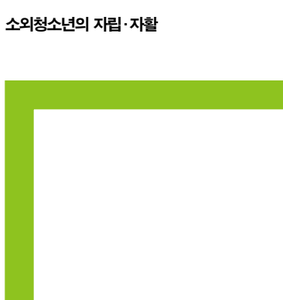
제2부 ● 행복한 상생
- 소외청소년의 자립·자활
탐방 취재 : 서대문 1318 해피존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탐방 취재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중구점
* 행복나눔재단
* 인터뷰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1기 수료생 박정자 씨
- 무주택가정 주거안정
* 인터뷰 :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입주자 임경숙 씨
- 전문가 기고 1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연관성
- 전문가 기고 2 |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물결, 소외계층의 자립·자활

넘어진 이웃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한 사람의 희망은 작은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실천하는 사랑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가꿔 갈 수 있도록
SK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꿈을 향해 딛고 설 수 있는 계단

도전할 만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이 있다. SK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보다 앞선 안목과 멀리 보는 지혜로 소외청소년에게 든든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교육은 나무를 키우듯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일이다. 토양이 나쁘다고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아니라 SK는 그 땅에 거름을 주고 바람을 막아 주어 거목으로 길러 낸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SK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SK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교육·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을 사회공헌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외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립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주관사	프로그램 내용
학습지도	1318 해피존	SK텔레콤	저소득층 청소년 전용센터 건립 및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해피 뮤직 스쿨	SK텔레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 제공
	Sunny 하이티처	SK텔레콤	대학생 봉사자가 보육시설 아동 학습지도
	행복한 홈스쿨	SKC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후활동 지원
정보격차 해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정보격차 해소 지원
	Sunny IT 봉사단	SK텔레콤	대학생 봉사자가 IT 교육 자원봉사
	저소득층 아동 무료 IT 교육	SK C&C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청소년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

가능성을 키워 가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SK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길러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318 해피존' 건립 사업은 소외청소년 지원 모델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318 해피존 외에도 SK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음악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해피 뮤직 스쿨, Sunny 하이티처, 행복한 홈스쿨 등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1318 해피존

SK는 소외계층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지원센터로 '1318 해피존' 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펼치고 있다. 1318 해피존은 기존의 초등학생 위주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대상을 사각지대에 있던 1318세대(13~18세 청소년) 소외청소년들에 맞추어 설립된 지원센터로 학습·자립·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지금까지 교육·복지·문화·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례는 있었어도 교육·복지·문화를 결합하여 기초적인 생존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1318세대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은 1318 해피존이 유일하다.

도시형 1318 해피존은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 제도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행복한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에서는 인근 학교들의 거점형태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1318 해피존 성과와 계획

연도	참여 청소년 (누적)	도시형 해피존 (누적)	농산어촌형 해피존 (누적)	내용
2006년	750명	8개	7개	• 1차 오픈 및 시범운영
2007년	2,200명	20개	9개	• 2차·3차 오픈 및 33개소 운영
2008년	3,850명 (예정)	22개 (예정)	11개 (예정)	•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개발 •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표준안 정책 제안
2009년~	전국 확산			•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정부정책화 및 전국 확산

2006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의 1호점을 시작으로 2007년 말 현재 도시형 20개소(강원 춘천, 경기 성남, 경기 용인, 경남 진해, 서울 관악, 서울 서대문, 서울 송파, 울산, 강원 강릉, 경기 부천, 경기 평택, 경기 하남, 경남 김해, 광주, 대전, 부산, 서울 광진, 인천, 전북 군산, 제주도), 농산어촌형 9개소(강원 홍천, 경남 거창, 경북 영덕, 전남 곡성, 전북 장수, 충남 서천, 충북 단양, 전남 강진, 전남 함평) 등 전국 29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318 해피존은 청소년을 위해 ▲학습 지원 ▲정보 지원 ▲문화 지원 ▲안전 및 급식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지역 특화프로그램 제공 ▲Skids 프로그램(캠프) 제공 등 7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수학·논술 등 학습지원과 SK자원봉사단과 연계한 IT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청소년을 선발하여 체계적 진학과 취업 지원까지 제공한다.

1318 해피존은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SK는 1318 해피존을 소외청소년 지원 성공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1318 해피존의 모범적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함께 희망과 꿈을 키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해피 뮤직 스쿨

SK텔레콤은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으로 음악을 포기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해피 뮤직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적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서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해피 뮤직 스쿨은 줄리어드 음대의 MAP(Music Advancement Program)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였다. MAP는 1991년부터 뉴욕시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아프리카계·라틴계 등) 및 빈민가정의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7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재능 있는 음악 영재들에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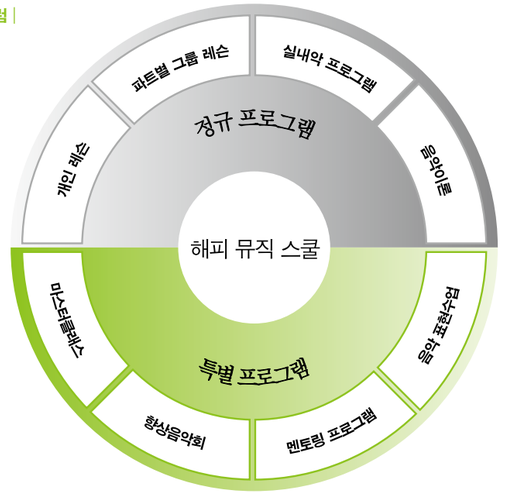
해피 뮤직 스쿨은 줄리어드 음대의 교육복지 디렉터인 앨리슨 스콧 윌리업스가 고문을 맡았으며,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정상급 첼리스트인 송영훈 연주자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피아노·바이올린·첼로의 3개 파트로 진행되며 각 음악파트장은 백주영 서울대 음대 교수, 현민자 연세대 음대 명예교수, 주희성 서울대 음대 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맡고, 13명의 각 파트별 전문강사가 개인 레슨을 담당하는 등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초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의 단계를 거쳐 2007년 2월 입학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45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총 26주간에 걸쳐 전문강사의 개인 레슨, 앙상블 및 그룹 레슨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줄리어드 음대의 마틴 캐닌 교수 등 세계적인 음악 교수진을 초청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 시행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소외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지도와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 해피 뮤직 스쿨 커리큘럼 |



해피 뮤직 스쿨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 모델로,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영재를 세계적 음악가로 키우는 선진국형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Sunny 하이티처

'하이티처(Hi-Teacher)'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각 지역 보육원 및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고 멘토 활동까지 하는 1:1 학습지원 자원봉사활동이다. SK텔레콤은 Sunny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교재와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는 전국 10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개의 아동시설에서 총 500여 명의 대학생 Sunny들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16주간 활동을 펼쳤다.

● 행복한 홈스쿨

SKC는 NGO·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울산지역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SKC가 시설 운영비 후원과 자원봉사를, NGO 기아대책이 사회복지사를 통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종교단체 흰돌교회는 공부방과 식당 등의 장소를 지원하는 '기업·NGO·시민단체'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 형편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에게 학습지도와 특기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식(저녁)까지 제공해 방과후학교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IT 경쟁력 키우는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손끝 하나로 열리는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되는 정보통신 세상을 열어 가고 있다. SK는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누구라도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특수학교, 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등 정보화에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K의 다양한 IT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이 IT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장애청소년 IT챌린지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고, 자유롭게 IT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키울 동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청소년 IT챌린지'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 9회째를 맞은 장애청소년 IT 챌린지는 1999년

부터 매년 진행하던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를 2005년부터 '장애청소년 IT챌린지'로 바꾼 것으로, 단순한 정보검색 능력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IT 운영기술을 겨룸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이 IT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7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전국에서 1,235명이 참가해 부산, 광주, 대구, 전남, 경북, 제주,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예선을 치렀으며, 총 350명이 6월 28일 본선에서 기량을 겨뤘다. 특히 2007년부터는 장애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에서 30세 미만의 장애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IT 능력을 겨루는 'e-Life 챌린지', 업무용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e-Tool 챌린지', 인터넷 게임 대회인 'e-Sports 챌린지' 부문 외에 'e-Job 챌린지' 코너를 신설하여 장애청년의 취업 상담을 지원하였다.

e-Life 챌린지와 e-Tool 챌린지의 청소년부 참가자 중 각 장애유형별 1등 수상자들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장학금과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졌다. 영역별 영예의 1위 수상자들은 담당 지도교사들과 함께 8박 9일간 미국을 방문해 교육시설 및 선진 장애인시설을 견학했다. e-Sports에서도 장애유형별 1위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수여하는 명예 선수증과 명예 프로게이머 자격이 수여됐다.

장애청소년들이 장애의 문턱이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찾고 의사를 소통하는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단순한 정보검색대회 차원을 넘어서, 장애청소년들이 IT 활용 능력을 겨루고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 Sunny IT 봉사단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IT 봉사단은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IT를 통해 교류하는 IT 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 9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개 시설에서 Sunny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명이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6주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무료 IT교육

SK C&C는 기업의 특성을 살려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에서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IT를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무료 IT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성남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분당 SK C&C 사옥에 초청하여 무료 IT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4번째를 맞은 무료 IT 교육은 SK C&C가 추진 중인 'IT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정보화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IT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2007년 2월 SK C&C가 행복장학금과 교복을 전달한 성남지역 중·고교생들 및 성남 1318 해피존 학생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80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포토샵 과정'과 '워드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했다.



탐방 취재 서대문 1318 해피존

소년 소녀, 세상을 향해 외치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자리잡은 서대문 1318 해피존. 독립문을 등지고 서대문 1318 해피존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왼쪽에는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나 나올 법한 동네가 펼쳐진다.

2006년 11월, 청소년지원센터 '1318 해피존' 1호점으로 문을 연 서대문 1318 해피존에는 〈난쏘공〉 주인공들처럼 최악의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문화적 혜택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학습·정보·문화·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전한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40여 명의 학생들 대부분은 한부모 자녀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

1318 해피존에서 찾은 푸르른 내일

박은정(가명) 양도 그 중 한 명.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박 양은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꿈을 꾸는 건 사치인 학생이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엄마와 동생, 셋이서 어렵게만 살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터였다. 하지만 서대문 1318 해피존에서 연세대 작곡과에 다니는 자원봉사자 언니를 만나면서 박 양에게도 작곡가가 되고픈 꿈이 생겼다. 꿈이 생겨서인지 성적도 쑥쑥 올랐다.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주관한 음악회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할 정도가 되었다.

박 양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서대문 1318 해피존에 나오면서 푸르고 싱그런 꿈 하나씩을 키울 줄 알게 되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는 전국 중고생 대상의 청소년문학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시)과 장려상(수필)을 받았다. 자신들의 수상에 아이들 스스로도 놀랐다. 아이들의 그런 변화가 백광흠 대표는 말할 수 없이 대견하고 기쁘다.

"아이들이 처음엔 말도 없고 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나와 자신의 꿈을 갖게 되면서 생기 있고 활달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고 나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무척 밝고 집중력이 높다'고 할 정도니까요."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희망

백광흠 대표는 청소년들이 이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대문 1318 해피존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가족 같은 정을 꼽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과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 연세대·이화여대 등의 대학생들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과외 형태로 지도하고 있으며 감신대는 방학 중에도 강의실을 개방해 아이들이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수준 높은 학습지도 덕에 평균 20~30점씩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은 몰라보게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모했다.

서대문 1318 해피존은 이 밖에도 아카펠라, 원어민 수업 등 동아리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연 관람 및 스키·래프팅 등 각종 캠프를 정례화해 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 학기 중에는 저녁을,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학교 급식에 비해 비용이 2~3배 이상 더 든다고 하니, 1318 해피존이 청소년들에게 기울이고 있는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서대문 1318 해피존의 청소년들은 어느새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뒷받침하는 한가족으로 엮여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해피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는 행복한 곳'이라고 할 때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백광흠 대표. 그 책임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느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자립의 시작

일자리는 자립·자활의 시작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스스로 행복을 가꿔 가는 SK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도시락 급식센터에서, 장애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우리 이웃이 활짝 웃고 있다.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창시자 유누스 교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소액 신용대출 사업의 의의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먹을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과 함께 쌀 농사 짓는 법을 알려 주고 그 터전까지 지원한다면 배고픈 사람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가 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소외이웃에게 쌀과 함께 쌀 농사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과 같다. 일시적 도움보다는 자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외이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SK가 소외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소외이웃에게 쌀과 함께 쌀 농사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과 같다. 일시적 도움보다는 자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외이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일이다.

희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단순히 돈으로, 몸으로만 하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당당하게 독립과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SK의 2007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 3,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낳았다.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주관사	프로그램 내용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SK에너지	저소득층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보육교사 파견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SK텔레콤	위생·영양을 갖춘 도시락 급식센터 설립 및 지원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SK텔레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교육 및 전국 초·중학교 파견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	저소득 청소년 대상 스피드메이트 교육 및 취업 지원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IT 교육

일자리 창출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17	392	1,506	1,915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	300	212	512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437	1,096	1,253	2,786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34	68	125	227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122	92	57	271
계	610	1,948	3,153	5,711

●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행복한 일자리)

SK에너지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행복한 일자리 사업은 SK에너지·㈔부스러기사랑나눔회·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파견사업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야간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등을 선발·교육·파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2006년 179개소에 162명의 교사를 파견했으며,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 1,001개소에 총 1,305명의 교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행복한 일자리를 통해 파견된 교사들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40,000명에게 학습·상담·보건·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방치된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들의 취업 기반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는 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SK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일자리는 소외이웃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인 것이다.

●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마을과 아이들·아가야)

SK에너지는 정부·기업·NGO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인 '마을과 아이들'과 '아가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24시간 보육사업인 '마을과 아이들'은 SK에너지가 YMCA와 함께 자녀들의 보육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마을과 아이들'을 통해 2005~2007년 사이 총 14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 최초의 영유아 시간제 보육사업 '아가야'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노동부의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아가야'는 시간제 보육을 통해 여성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06~2007년에 전국 16개소에서 29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현황(2007년)

구분	행복한 일자리	마을과 아이들·아가야
협력기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YMCA
프로그램 내용	• 지역아동센터 전담 교사 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112명) • 훈련된 교사 파견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요보호 아동에게 학습·상담·보건·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1,193명 창출 • 3년간 1,479개의 일자리 창출	• 마을과 아이들 – 영유아 24시간 보육시설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70명) 및 취업 지원 • 아가야(노동부 협력으로 확대) – 영유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131명) • 3년간 436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충청, 전라 지역 1,001개소	26개 지역(마을과 아이들10개소+아가야 16개소)
수혜아동	아동 40,000명(직접) 기타 80,000명(간접)	영유아 7,300명(직접) 기타 21,000명(간접)

●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 및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무료 도시락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생과 영양 면에서 우수한 도시락을 공급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SK와 (재)행복나눔재단·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2006년 2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점을 1호점으로 2007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9개 센터를 개소했다. 이들 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만여 식의 도시락을 소외이웃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영양사·조리사·배달원 등 5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결식이웃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행복도시락'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SK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SK는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식이웃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행복도시락' 운영 모델은 2007년 2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2007 하버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대통령 주재의 사회서비스 창출 성과보고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중 서울 관악점과 인천 남구점 2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SK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가 무료급식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소외이웃들의 지속가능한 자활 터전으로 발전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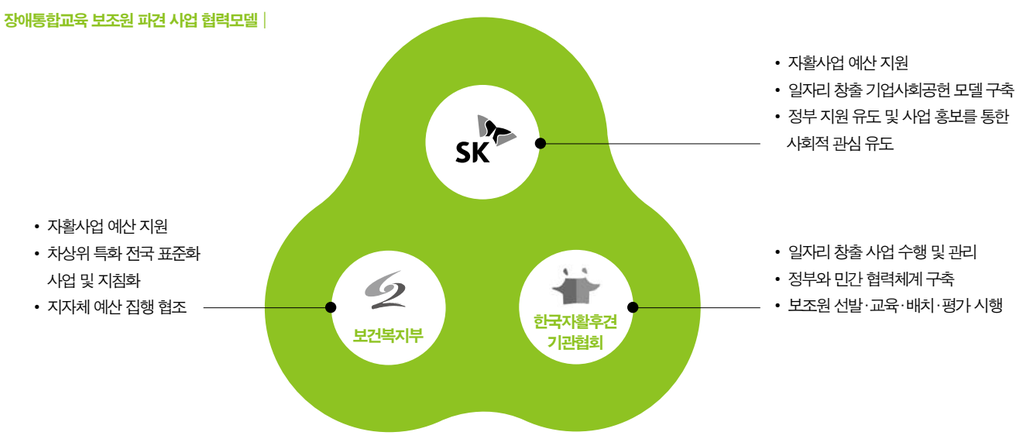
●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SK는 장애아동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선발·교육·취업을 지원하는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을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2003년 SK텔레콤이 장애아동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05년 SK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의미를 더해 보건복지부·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까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기관에 2,786명의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을 파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하였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조건을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졸업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는 소외계층 실업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

|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협력모델 |



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SK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의 영역을 기부에서 수혜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영역에까지 확대시켜 그들이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기업·정부·NGO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연계형 사회공헌모델을 제시하였다.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는 사회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18~25세)에게 스피드메이트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문 기술인으로서 사회 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만 18~25세까지의 저소득 청소년을 스피드메이트의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자동차 정비학원 또는 시립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통해 정비자격증 취득을 돕고 이후 6개월간 스피드메이트 전국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네트웍스는 직업교육과 함께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까지 저소득 청소년 총 970명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07년까지 77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그 중 40명은 스피드메이트 사업장에 취직했다.

●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SK C&C는 'IT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04년부터 성남과 일산에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 중 12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IT 교육원 운영을 통해 강사, IT 관련 업종 취업 등 27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장애인 교육뿐 아니라 실질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구성원들이 쓰는 프린터 토너를 장애인 업체를 통해 납품받도록 전환하여 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비록 작은 수이지만 의미 있는 첫출발을 시작한 만큼 SK C&C는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탐방 취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중구점

일하는 기쁨, 남을 돕는 일의 행복

2006년 2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1호점으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문을 연 중구점의 아침. 누구 하나 서 있는 사람이 없다. 점심시간에 맞춰 수백 개의 도시락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팀장·영양사 각 1명, 조리사 6명, 배달원 4명 등 저마다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비쁠 때는 동네 부지깽이라도 빌려 와야 할 판이니 내 일 네 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자신들이 만든 도시락이 방과후의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가서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기 때문이다. 급식 대상자들은 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이거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조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다. 학기 중에는 밑반찬을 포함해 하루에 보통 280여 명, 방학 동안에는 360여 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도시락으로 나누는 이웃 사랑

무료 도시락이라고 해서 음식의 질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 끼당 3,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락에서 순수 식재료비만 2,400원이며 영양에 최대 비중을 두고 있다. 김선미 영양사는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 음식의 맛과 영양가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생선 등을 밑반찬으로 자주 만들기 때문에 학교 급식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한다.

중구점은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 외에도 매년 김장김치를 담아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한 가정당 5kg씩을 배달하고 있다. 또한 명절이나 생탄절 등 특별한 날에는 햄, 김 세트, 롤 케이크 등을 전달하고 있다. 하소희 운영팀장은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며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전화를 하거나 쪽지를 건넬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고백한다.

직장인으로서 누리는 행복

중구점 직원들은 불우이웃들에게만 행복을 나르는 것은 아니다. 그 자신들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으니, 그야말로 도시락을 나르는 일은 자신들의 행복을 길어 올리는 화수분이었던 셈.

도시락센터의 직원들 중 영양사를 제외한 직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중구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현수(가명) 씨의 경우만 해도 이곳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이기 이전에 그에겐 직장이다. 중구점이 개소할 때부터 근무했다는 강 씨는 "5년 전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어 넋을 놓고 있다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집에서 가까운 중구점에 오게 됐다"며 "대학생인 자식 2명을 뒷바라지하기엔 넉넉하진 않지만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일이 힘들긴 하지만,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데 제가 한몫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함도 금세 잊어요.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센터에는 반듯한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할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드는 일의 행복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무료급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화롯불'

SK는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인 행복도시락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 중에서 조리사와 배달원을 채용해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과 외로운 노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재)행복나눔재단은 결식이웃에게는 따뜻한 무료급식을,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6월 SK가 설립한 재단으로, 행복도시락 사업은 재단 설립 이후 한층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6월 설립

결식아동 및 노인에게 위생과 영양 면에서 우수한 도시락을 공급하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은 행복나눔재단 출범 이후 본격화되어 2007년 말 전국에 총 29개의 급식센터를 개소했다. 이들 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만여 식의 도시락을 결식이웃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양사·조리사·배달원 등 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2007년 8월부터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을 전달하는 '맛있는 도시락,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몸의 양식'인 도시락과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도 전해 주자는 뜻에서 출범했으며, 2007년 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무료급식과 일자리 창출 외에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NGO 경영컨설팅 지원, 결식아동 멘토링 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성장으로 기업 사회공헌 이정표 제시

행복나눔재단이 진행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은 노동부와 기업·NGO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결식이웃과 실직 빈곤층을 지원하여 결식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SK와 지자체·노동부·NGO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행복나눔재단은 운영을 맡고, SK는 시설 자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탁하면서 비용을 지급한다.

이러한 행복도시락 운영 모델은 지난 2007년 2월, 미국 하버드대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진과 사회공헌 관련 교수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에서 사회공헌의 선도모델로 소개되었다. 또한 컨퍼런스 기간 동안 행복도시락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고든 블룸(Gorden Bloom) 교수의 '사회적 기업가 과정' 강의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민관협력포럼에서 주최하는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중 서울 관악점과 인천 남구점 2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행복나눔재단의 주요 사업 프로그램 |

행복나눔재단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지원**
  - 도시락센터 개소 및 시설 설비·운영 지원, 수익모델 개발 지원, 위생관리 지원, 교육 지원
- **결식자 급식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연구**
  - 결식이웃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개발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 실업극복국민재단과 공동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NGO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NGO를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등 무료 경영컨설팅 지원
- **결식아동 멘토링 캠페인 전개**
  - 영양 및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학습부진과 문화적 소외 등을 해소하도록 멘토링 전개
- **사회책임투자 성격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정립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협력모델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나눔재단	SK	지역 NGO	정부(노동부)	지자체
사업 관리·운영 관리	시설 설비비 지원 운영비 지원	위탁운영	제도적 기반 조성 인건비 지원	급식서비스 조성 수혜자 발굴



행복나눔재단은 결식이웃에게는 따뜻한 무료급식을,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6월 SK가 설립한 재단으로, 행복도시락 사업은 재단 설립 이후 한층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복나눔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행복나눔재단은 (재)실업극복국민재단과 공동으로 2006년 12월 숭실대에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경제 등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이다.

숭실대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에는 국내 사회적 기업 활동가, NGO와 자활후견기관·사회복지기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등이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 제고와 리더십 강화,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자원연계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복나눔재단은 숭실대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을 매년 두 차례 정례화하는 한편, 2007년에는 부산대 등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편 SK는 행복도시락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발전

행복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단순히 한 끼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일자리를 찾는 이웃에게는 일하는 기쁨을 제공하는 행복한 나눔의 공간이다.

앞으로도 행복나눔재단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의 기회를 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독립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인 빈곤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인력 훈련과 경영컨설팅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다.

인터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1기 수료생 **박정자** 씨

사회적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

장애인 대안 일터인 '큰날개'의 대표이자 장애인자립센터 '프랜드케어' 사무처장인 박정자 씨. 박 씨의 꿈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주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 모델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박 씨의 가장 큰 화두다.

일반 기업에서 10여 년, 사회복지단체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박 씨는 평소 기업과 단체를 비교·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서비스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4년 시작한 큰날개는 그런 관심의 결실이었다.

고민을 해결해 준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하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반 사업과는 다른 점이 많아 무엇보다도 경영, 마케팅 전략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2006년의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운영자로서 한계점을 느끼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특히 일반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체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크하게 됐습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실시된 아카데미는 그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매주 1회, 총 100시간의 교육기간이 녹록치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가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담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활동가들에게 곧바로 스며들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카데미를 통해 같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지닌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동료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 큰 날개 달 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1기 수료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박 씨는 아카데미 교육이 큰날개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들을 조금씩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큰날개의 조직을 사업단위별 '소사장 제도'로 바꾼 것. 현재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소사장들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면서 단위별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사업단위별 소사장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박 씨는 2008년 2월 더 큰 비상을 위해 큰날개를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3월이면 발표가 나는데 어떻게 날지 벌써 떨리네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큰날개가 더욱 큰 날개를 다는 것인 만큼 장애인·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한 희망의 근거

SK행복마을은 단순히 평평한 땅에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믿음을 키우는 일이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흘린 땀방울이 모여
어려운 이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다.



집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며 생활의 기반이다. 특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과 자활의 시작이 된다. 잠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야말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SK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무주택가정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을 건립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기업 단독 후원으로, 국내 최대의 행복마을을 건립하면서 SK는 관계사 차원의 지원에서 나아가 SK그룹 전체의 힘을 모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대학생 봉사단도 대규모로 나서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소외이웃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SK의 행복을 나누는 마을인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SK 최태원 회장이 2004년 8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한국해비타트) 봉사활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다. SK는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무주택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수원지역의 무주택가정을 위해 3년간 총 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SK는 2005년 3월 수원시·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행복마을을 건립하는 협약식을 맺고, SK 단독 후원으로 수원시 곡반정동에 무주택가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있다. SK행복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수원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이 태동한 곳으로, 현재도 SKC와 SK케미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SK는 남들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오랫동안 묵묵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사회공헌 역사를 소중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SK행복마을은 SK의 '행복나눔' 경영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기업 단독 후원으로 행복마을을 건립하면서 SK는 관계사 차원의 지원에서 나아가 SK그룹 전체의 힘을 모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대학생 봉사단도 대규모로 나서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무주택가정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SK의 행복을 나누는 마을인 것이다.

| SK행복마을 협력체계 |



소중한 땀방울이 이룬 기적

SK행복마을은 2006년 10월 첫 결실을 맺었다. 3개동 18세대의 주거공간이 완공되어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정들이 평생 살아 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SK행복마을이 첫 결실을 맺기까지는 불가마 같은 공사현장에서 쉼없이 땀 흘리던 SK자원봉사단의 노력이 있었다. 2006년 7월 11일 발대식 이후 9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펼쳐진 SK자원봉사단의 대장정에는 1,8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1만 4,000

여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고, SK 신입사원, 글로벌 인턴,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선경 최종건 장학생'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다. SKC 최신원 회장을 비롯해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 등 관계사 CEO에서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급을 초월해 망치질·도배·페인트까지 실제적인 건축작업을 수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행복마을 입주 세대 역시 최소 500시간 이상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SK가 지향하는 행복나눔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즉 노동을 통해 땀을 분담함으로써 단순한 기부의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는 부지 매입과 공사비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한 지역 전체에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과정을 지원해서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가정을 위한 행복마을을 건립했다. 그것은 '집짓기'라는 사회공헌을 통해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여정'이었다.

기업·NGO·지자체의 성공적 협력모델

SK는 SK행복마을을 건립하면서 기업·NGO·지자체의 성공적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SK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 및 건설자재 구입비, 실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도 참여하였으며, 한국해비타트는 입주자 선정, 기타 자원봉사자 관리, 입주 후 행복마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수원시는 이를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SK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해비타트는 안정적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까지 함께함으로써 해비타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무주택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NGO·지자체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SK행복마을 건립 모델은 기업의 경제적 지원과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NGO의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효과적으로 결합한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사회공헌 3자 협력의 이정표가 되었다.

총 8개동 48세대의 행복마을을 꿈꾸며

SK는 2006년 3개동 18세대의 SK행복마을을 건립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개동 12세대, 2009년에 3개동 18세대의 행복마을을 건립해 총 8개동 48세대로 이뤄진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SK행복마을이 완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완공 후 48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입주자 가정 모두가 이곳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SK는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행복과 해비타트 운동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회 소외이웃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반으로서 따뜻한 행복 사회를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인터뷰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입주자 임경숙 씨

'진짜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한솔아파트 맞은편에는 하얀 건물 3개동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담하고 예쁜 이곳이 바로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이름처럼 행복이 묻어날 것 같은 SK행복마을에 임경숙(가명) 씨도 '스위트 홈'을 마련했다.

무주택가정에 비친 햇살

임 씨의 집 문에는 'Love House-감사가 넘치는 우리 집'이라고 쓰인 앙증맞은 푯말이 붙어 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가졌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 푯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이 입주한 2006년 11월 21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그때까지 사글세로 남의 집 더부살이를 면치 못했었는데, 그날 비로소 그 세월을 청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진짜 우리 집'을 갖기까지 임 씨네 가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결혼할 때부터 어려웠던 살림살이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 1990년 수원으로 이사할 때까지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사업이 기우뚱하고 채무가 늘어 가던 중에 IMF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 치 앞의 삶도 내다보기가 힘들었다. 급기야 2002년 12월에는 살던 아파트 사글세조차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임 씨의 가족을 딱하게 여기고 두 칸짜리 다세대 주택을 얻어 주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줄 수가 없었어요. 마침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방 하나는 우리 부부가 쓰고 남는 방 하나를 아들이 쓸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온 딸은 우리 부부와 함께 잤는데, 말은 안 했어도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생애 처음 마련한 '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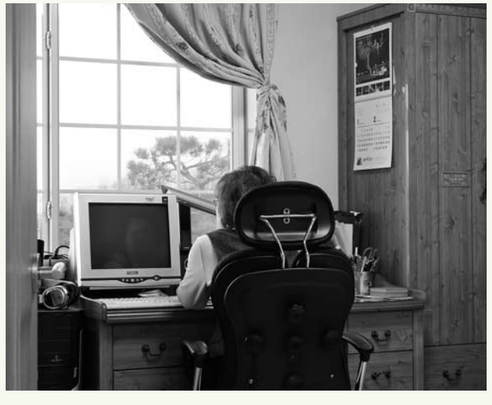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즈음 임 씨의 기도 제목은 '우리 집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임 씨에게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조성 계획이 들렸다. 임 씨는 그 소식을 접하고 해비타트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하며 관심을 기울였다. 행복마을 입주 신청에 세 번째로 접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관심과 절박함의 표출이었다.

SK행복마을이 조성될 당시 실직자였던 남편은 두 달 동안 현장 일을 했고, 임 씨와 아이들도 수시로 건축현장을 도왔다.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즐거움에 힘든 줄도 몰랐다.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2002년 다세대 주택에 살기로 했던 기간이 4년이어서 2006년 12월 24일이 만료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만기 한 달 전에 SK행복마을에 입주했잖아요. SK행복마을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저희 가족이 지금쯤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2007년 봄에 아들이 입대하면서 임 씨의 딸은 비록 임시긴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게 됐다. 그 동안 자신의 방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던 딸아이도 내심 좋았던지, 집으로 한 번도 데려온 적 없던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며 임 씨가 환하게 웃는다. 비록 방 두 칸짜리 집이지만, 이제는 쫓겨날 걱정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스하다.





복지와 고용,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NGO의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재웅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성장의 잠재력 약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장기 실업 및 불완전 고용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2007년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경제활동인구는 1,495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단기 아르바이트·구직포기자·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실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는 소득 양극화와 빈곤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현재의 정부 및 민간의 역할만으로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회와의 상생' 사회공헌 활발

이 같은 산적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정부·기업·시민 등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거대한 시민인 '기업'에 거는 기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는 복지수요의 확대를 불러왔으며, 이는 곧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정부·시민은 물론 기업을 향한 사회적 책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또한 이러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기업 또한 '사회와의 상생' 이라는 인식 하에 자신들이 가진 물적·인적 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지역사회와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경영의 목표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인해 국내 사회공헌활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공헌의 새로운 접근 '사회적 기업'

이처럼 기업 사회공헌의 관심 주제와 외연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업이 가진 특성과 전문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또한 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사회공헌이 과거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자사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회문제들을 찾아내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실업 및 빈곤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의 창조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이익도 내는 공익성 대안기업이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효되면서 간병인·장애인 보조교사·보육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05년 초부터 정부·기업·NGO 3자가 협력하여 만들어 온 '사회적 일자리 모델(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NGO의 실행, 기업의 재정투자 및 경영지원)'의 경우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 창출의 실질적인 주체로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과 공익성·창의성의 장점을 지닌 NGO가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SK와 우리 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해 온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29개소에 도시락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결식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성과를 냈다. 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사회 문제를 민간재단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수행능력, 기업의 인적·물적·기술적 자원과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일구어 낸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SK가 이와 같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여 억원대의 대규모 사회투자를 실천한 것은 한국 사회의 기업 기부를 사회책임투자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SK와 우리 재단이 시작하고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의 경우 사회적 의제와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의 선택과 집중 투자의 대표적 사례이자 사회적 책임을 제3섹터와 이루어 낸 값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장기투자형 협력 및 민간지원 확대가 과제

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고유 영역 및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범주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장기투자형 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공모델, 사업적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데다, 사회·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창출의 복잡성과 사회적 기업 활동결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부재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방식과 노무관리 문제, 자립가능성이 낮은 시장현실로 인한 장기지원의 부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상의 이익 부재 등도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업 기부와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지원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는 70%선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세제 혜택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영역의 재원 유입을 확대하고, 사회책임투자와 사회책임투자 펀드의 활성화, 민간금융권의 기금 출현, 기업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조성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기업·NGO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한 윈윈 전략을 도출하는 것 또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다각화, 사회적 기업 추진 주체가 갖춰야 할 경영마인드 및 실무역량에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단위별 혹은 소지역별 노사정·시민사회의 협력성 사회적 의제 해결구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크다.

'新사회안전망 구축' 기업·정부·NGO가 협력

현대사회에서 실업·빈곤·질병의 문제는 개인이 게으르거나 가난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는 서비스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새로운 고용 창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는 보건·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기업이 정부·NGO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사회의 거시적 흐름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진정성과 책임성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국민 복지와 기업 성장의 목적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소외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형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K 사회공헌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유난히 소외계층이 많은 사회이다.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소외 아동·노인·여성 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및 공해로 인해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일부 소수는 질 높은 삶을 누리는 반면에 소외계층은 극도의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고통이 저학력·저기능·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면서 생활고 비관으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회갈등 고조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 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커녕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지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조관계(Partnership)



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체계는 공공이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이 있다. 기업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복지는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 복지와 기업 성장의 목적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체계적 복지사업 위해 공공과 민간 협조관계 필요

오늘날의 기업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의 폭이 예전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다. 지난 2001년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배경에 대해 기업 내부적 효과와 외부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① 인적자원의 개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회 균등한 비차별 고용과 청년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②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 : 작업장에서 기본적인 보건과 안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한다. ③ 인권보호 :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무정책과 인사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아동착취 등의 폐습을 철폐한다. ④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한다.

한편 기업 외부적으로는 ① 지역사회 구성원 중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며 ② 사회



적 책임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③ 기업의 책임 있는 경제적 활동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복원하는 데 노력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④ 글로벌 협약 등의 준수를 통해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내부적인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보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로 사회복지단체에 금전적 기부나 장학사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기업의 아동·청소년 지원은 중요한 사회적 요청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수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기부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새로운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전략적 사회투자모델에 따라 '자선'보다는 '비즈니스'적 기능으로서 재구성되고 있다. 전통적 기부 방식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관심사나 관계에 따라 시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제품 판매에 공익을 연결한 공익연계 마케팅, 직원 채용이나 직원 충성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직원 자원봉사, 비영리에 벤처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사회적 벤처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스폰서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환되면서, 사회공헌의 대상이나 내용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상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현재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핵심적인 소비의 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은 어떠한 다른 인구집단보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활동 내용도 단순 원조(help)에서 자활과 자립(self-help)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부문 중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가정과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이기도 하다. 특히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오는 불리함으로 인해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에 대한 미래투자의 시대적 사명이 있는 기업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아동·청소년들의 장학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 온 SK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SK의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해 투여한 노력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회성 지원이 아닌 미래지향형 교육사업을 통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의 하나인 SK는 사회공헌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 사회공헌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사회문제 해결 모델 선도하는 SK의 사회공헌

이러한 맥락에서 SK는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날갯짓을 하겠다는 의지로 회사 로고에 날개 문양을 첨가해 가며 전사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여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과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단순 시혜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자립과 자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모델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된다. 보여주기식의 마구잡이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단지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 및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K의 사회공헌활동은 비교적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K를 선두로 최근 기업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접 운영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사회공헌 지출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의 비율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책임성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즉, 세제 혜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진정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3부 ● 행복한 참여
- 사회복지 부문
- 교육·장학 부문
- 환경보존 부문
- 문화·예술·체육 부문
- 글로벌 부문
- 자원봉사 부문

나눔과 참여로 행복지수를 높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 때문이다. 마음 속에 가득 차오르는 사랑을 더 큰 행복으로 키우고 나누려는 의지와 실천 때문이다. 슬픔은 나누어 작게 만들고, 세상의 행복은 더 알차고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된 우리들의 지난 시간은 아름다웠다.

사회복지부문

마음을 함께하면 나누는 행복이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발걸음에 행복은 하루하루 나무처럼 커 갑니다. SK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SK에너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행복한 일자리)
-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마을과 아이들·아가야)

따뜻한 겨울나기
-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 제3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복나눔 기금 조성
- 엔크린 소년소녀가장 돕기
- 마라톤 완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최태원 회장, 장애아동 위해 산타로 변신
가브리엘의 집 후원
재한몽골학교 후원
이주노동자쉼터 지원
결혼이민자·새터민 생활 프로그램 후원
국가유공자 부부 초청, 행복 로맨스 행사
제3회 행복 나누미
장애인 부부 50쌍의 행복 허니문
소외아동과 함께한 SK 행복캠프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임직원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제주지역 소외이웃 지원
'2007 가슴 펴고 활짝' 등 공익 행사 후원
부산 해운대 및 기장 저소득층 지원
추석맞이 행복나눔
제6회 SK 아동 바다체험 행사
제7회 노인문화축제
SK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울산지역 독거노인 무료건강검진 실시
장애인의 재활 돕는 SK재활관 기공
노인 간병인 사업 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
2007년 보훈문화상 수상

SK텔레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 행복도시락 사업

모바일 공익사업
- 모바일 미아·장애인·치매노인 찾기
- 긴급재난문자정보
-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
- 119 긴급구조서비스
- 모바일 헌혈
- 1004♥사랑나눔
- 청소년 모바일 상담
- 행복천사 캠페인
- 구세군 모바일 기부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 행복병원
- 레저버디
- 지킴이봉사단

2007 BCCK 어워즈 CSR 수상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고객센터 오픈
지역아동센터에 노트북 컴퓨터 기증
에이즈 감염인 돕기 '고맙습니다' 캠페인
수재 피해 고객 요금 감면 및 임대폰 지원
2007 장애통합교육 수기 공모전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스피드메이트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행사
스마트 학생복 기증
사랑의 집 후원
살레시오의 집 후원
성애원 후원
중구청 위탁가정과 자매결연
복지관 아동 초청 행사
농촌사랑 활동
극빈층 생계비 지원활동
헌혈 캠페인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지원

SK케미칼
항생제로 북한주민 돕기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개최
소외이웃과 함께 행복 나들이

SKC
전국 최초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후원
매칭펀드 후원
사랑을 나누는 헌혈운동
영이 어린이집 아동과 루체 페스타 나들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체험학습
SKC와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사회복지시설 동행원에 의류 100벌 기증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저금통' 전달
노인요양원에 휠체어 기증

SK C&C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운영
장애인 연계고용 시행
제3회 SK C&C 효마당
희망의 PC 기증
한마음 마라톤대회
2007 행복한 한가위 만들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장애아동과 함께한 대축제, '라라의 스타일기'
경기도 자원봉사상 수상
1인 1후원계좌 갖기
보치아 경기 보조를 통한 장애인 재활 지원
SK 행복나눔 바자회 연계, 장애인 제작물품 판매
장애청소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체험
장애아동과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테리폭스 마라톤 후원
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
장애인의 날 행사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후원
어르신 요리교실 개최

SK건설
행복나눔 자선레이스 기금 모으기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복지시설에 행복이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참가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개최

SK해운
매칭 그랜트 활동
군부대 위문
SK 행복나눔 바자회와 함께한 벌룬아트

SK증권
조손가정 아동 1인 1후원
유니세프 후원금 전달

워커힐
지역 독거노인에 무료식사 지원
재한몽골학교에 무료식사 지원
1인 1후원계좌로 화성영아원 돕기
삐에로와 함께하는 서커스교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에 성금 후원

SK E&S
1인 1후원계좌 갖기 참여
부산도시가스-사랑의 연탄 나눔
충남도시가스-도시가스 시설 무료 지원
충청에너지서비스-생활보호대상자 가스요금 지원
포항도시가스-소외계층 무료 가스점검
포항도시가스-사랑의 연탄 나눔
강원도시가스-사랑의 연탄 배달

SK가스
전사 헌혈행사
마라톤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동명복지재단 후원

SK에너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SK에너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행복한 일자리 사업'과 보육시설을 설립·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여성들의 취업 기반을 확보하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SK에너지는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국 1,00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30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행복한 일자리)

SK에너지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행복한 일자리 사업은 SK에너지·㈔부스러기사랑나눔회·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파견사업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야간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등을 선발·교육·파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2006년 179개소에 162명의 교사를 파견했으며,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 1,001개소에 총 1,305명의 교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행복한 일자리를 통해 파견된 교사들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40,000명에게 학습·상담·보건·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방치된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들의 취업 기반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마을과 아이들·아가야)

SK에너지는 정부·기업·NGO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인 '마을과 아이들'과 '아가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24시간 보육사업인 '마을과 아이들'은 SK에너지가 YMCA와 함께 자녀들의 보육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마을과 아이들'을 통해 2005~2007년 사이 총 14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 최초의 영유아 시간제 보육사업 '아가야'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노동부의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아가야'는 시간제 보육을 통해 여성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06~2007년에 전국 16개소에서 29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신현철 부회장과 임직원을 비롯해 NGO·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 따뜻한 겨울나기

SK에너지는 매년 10월 말에서 2월 초까지를 '행복나눔의 계절'로 정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SK에너지는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전·울산 등을 포함한 전국 47개 지역에서 총 10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첫날인 11월 7일에는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신현철 부회장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한국YMCA 자원봉사자,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원봉사자, OK캐쉬백과 엔크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SK에너지 고객 등 140여 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업·시민·NGO가 한마음으로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만든 8,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밥퍼운동본부·재한몽골학교·SOS어린이마을·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단체와 청소년쉼터 등에 전달됐다.

2004년 8만 7,000포기의 김장을 만들면서 시작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2005년 8만 4,000포기, 2006년 10만 3,200포기에 이어 2007년에도 배추 10만 200포기와 무 1만 1,000여 개를 김장하여 어려운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배춧값 급등으로 김장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 제3회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더불어 소외이웃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이 2007년 3회째를 맞았다. SK에너지는 11월 13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하여, 2007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SK와이번스 선수단과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K와이번스의 홈구장이 있는 인천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SK에너지는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과 강남 구룡마을 등 전국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임직원은 물론 신입사원 및 관계사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따로 또 같이' 의미를 되새겼다.

'㈔따뜻한 사랑의 한반도 연탄 나눔'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탄 나눔 행사는 연탄에만 의지해 난방을 해결하는 소외계층에게는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4,000여 가구에 약 100만장을 전달했다.





2007년 3회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 나눔에 최태원 회장과 임직원이 참여하여 이웃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 행복나눔 기금 조성

- 엔크린 소년소녀가장 돕기

SK에너지는 고객들이 SK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때마다 SK에너지가 10원씩 적립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SK주유소'를 모토로 지난 2003년부터 적립된 성금은 총 35억원. 그 동안 SK에너지는 신학기를 맞은 2,7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학생복을 전달했으며, 지원 품목도 점차 다양화해 가정의 달 선물, 장학금, 난방유 등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품을 전달하고 있다. 2007년 2월 21일에는 새학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새 학생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열중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7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학생복을 전달했다.



SK에너지는 고객들이 SK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적립한 기금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다.

- 마라톤 완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2004년부터 신현철 부회장과 사내 마라톤 동호회 임직원은 마라톤과 불우이웃돕기를 결부시킨 독특한 선행을 펼쳐 왔다. 신현철 부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조건으로 지인들과 임직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고, 모인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기부하는 매칭펀드로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

SK에너지는 지난 2004년 춘천마라톤을 시작으로 7회의 마라톤에 출전해 총 6억 9,000만원이 넘는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단체 및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왔다. 특히 중국 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시설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공정'에 7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 중 일부는 중국 신강 우루무치시에 2006년 9월 소학교를 건립하는 등 청소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2007년에는 추석을 앞두고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 중 일부인 3,700만원을 SK에너지 임직원 자원봉사단 '천사단'을 통해 전국 노인복지센터·장애인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급식 자원봉사를 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했다.

한편, 재계의 '마라토너 최고경영자'로 유명한 신현철 부회장은 3월 18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3시간



신현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최태원 회장은 장애아동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 하고, 산타로 변신하여 선물을 전했다.



2003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온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했다.



약 60여 명의 몽골인 학생이 재학 중인 재한몽골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인 이주노동자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결혼이민자·새터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지정기탁했다.

57분 13초를 기록해 세계 최고의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보스턴마라톤대회 출전 자격(60~64세, 4시간)을 획득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등 번호판에 후원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SK에너지 임직원들의 이름을 빽빽이 적고 달렸던 신헌철 부회장은 2008년 4월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출전해 '행복한 달리기'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 최태원 회장, 장애아동 위해 산타로 변신

최태원 회장은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장애아동 재활시설 '가브리엘의 집'에 있는 중증장애아동 35명과 교사들을 서울 서린동 본사로 초청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추석 또는 성탄절이 되면 가브리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최태원 회장은 2006년 성탄절에 SK에너지 본사에서 초청행사를 벌인 데 이어 2007년에도 나들이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본사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고 산타 차림으로 운동화·점퍼·장난감 등 선물을 나눠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또 청계천으로 나가 아이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1시간여 동안 산책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가브리엘의 집 후원

SK에너지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용산구 '가브리엘의 집' 시설보수비를 지원했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적립한 시간 포인트 중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포인트와 마라톤 성금이 모여 조성됐다. 가브리엘의 집은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이번 후원금은 동절기를 대비한 창문 보완 시공, 방염 커튼 설치 등에 쓰였다.

● 재한몽골학교 후원

SK에너지는 5월 17일 재한몽골학교 후원의 날을 맞아 몽골 학생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의 날 행사는 재한 몽골인 커뮤니티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SK에너지의 후원금은 약 60여 명의 몽골인 학생이 재학 중인 재한몽골학교의 낙후된 시설 유지보수와 학생들의 복리후생에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SK에너지는 2006년에 김장 600포기, 2007년에 1,000포기의 김장을 지원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향후 몽골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이주노동자쉼터 지원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소장 이재영)가 2007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이주노동자쉼터'와 '무료치과진료소' 개소에 일조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SK에너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주노동자쉼터는 약 26.4㎡(8평)에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직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자는 물론 산재 등 요양으로 인한 중장기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쉼터와 함께 문을 연 무료치과진료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새터민 생활 프로그램 후원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울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의 지정기탁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SK에너지의 지정기탁금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울산지역 각 복지기관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교실, 멘토를 위한 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자녀보호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됐다.
115세대 200여 명이 참여한 결혼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은 결혼생활 및 한국 제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이민자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68세대 100여 명이 참여한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이주해 온 새터민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가유공자 부부 초청, 행복 로맨스 행사

SK에너지는 2004년부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소방공무원 부부 300쌍을 초청, '행복 로맨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부 커플 티셔츠 즉석 제작, 부부 골든벨, 어게인 프러포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제3회 행복 나누미

SK에너지 임직원 자원봉사단 '천사단' 활동의 동반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족 250명을 초청하여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행복 나누미' 행사를 진행했다. 첫날은 행복나눔 공연과 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일차에는 행사 참여자들이 산타 복장으로 옷을 갈아 입은 후 쪽방촌, 장애인직업학교, 농아학교, 정신지체장애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제작한 총 2,008개의 행복선물을 전달함으로써 행복의 크기를 배가했다. 특히 행사 과정에서 제작한 행복나눔 트리를 서울 코엑스 광장에 기증하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12월을 선물했다.

● 장애인 부부 50쌍의 행복 허니문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장애인 부부 50쌍과 가족 300명을 워커힐호텔로 초청해 10월 6일~7일 이틀 동안 '제3회 행복 허니문' 행사를 열고, 이들을 위한 결혼식, 만찬, 행복음악회, 허니문 등을 마련했다. 영화배우 정준호·소유진 씨의 사회를 시작으로 조순 사외이사의 주례, SK에너지 기독교동호회 신우회의 축가와 가수 변진섭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SK에너지 임직원 및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OK웨딩클럽 웨딩플래너, 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봉사단체인 열린의사회 봉사단 등 총 1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 부부의 일대일 도우미로 참여하여 새로운 행복의 첫걸음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6월 10일 장애인 커플 2쌍을 초청해 장미꽃이 만발한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서 행복결혼식을 진행했다. 주례사에 이어 현악3중주의 축하 연주와 장애인 그룹사운드 그린나래 멤버(시각장애)의 색소폰 특별 연주가 이어져 축하의 의미를 더했으며, 청각장애인 신랑 신부와 하객들을 위한 수화 동시통역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SK자원봉사단은 이날 행복결혼식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휠체어 장애인 신랑이 소속된 울산장애인체육관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초청, 울산대공원의 주요 시설물과 장미축제 관람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너지는 2005년부터 총 3회에 걸쳐 150쌍 장애인 부부의 결혼식을 올려 주었으며, SK에너지의 웨딩컨설팅서비스인 OK웨딩클럽은 2006년 5월부터 매월 1쌍의 장애인 부부를 선정해 서울·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결혼식을 진행했다.

● 소외아동과 함께한 SK 행복캠프

제주지역의 소외아동 115명을 비롯하여 본사와 울산컴플렉스, 기술원 그리고 각 물류센터의 추천을 받은 소외아동들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1,000명을 초청,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총 5회에 걸쳐 'SK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행복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만끽했으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비보이 댄스도 배우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등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다. 특히 가로·세로 13센티미터의 합판에 각자의 꿈과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 후, 이를 모아 초대형 그림판에 붙여 만든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대형 작품은 서울시청 앞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SK에너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경기·울산 지역 독거노인 600명을 초청해 '행복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한가위를 앞두고 공경과 효의 장을 마련한 이 행사는 발마사지 등의 건강체험, 효도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



2007년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소방공무원 부부를 초청하여 '행복 로맨스' 행사를 개최했다.



12월에 열린 '행복 나누미'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산타 복장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했다.



10월에 제3회 행복 허니문 행사를 열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장애인 부부 50쌍의 결혼식을 진행했다.



SK 행복캠프에서 소외아동들이 그린 그림들이 초대형 그림판으로 완성되어 서울시청 앞에 전시됐다.



제4회 행복 나들이 행사에는 서울·경기·울산지역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발마사지, 효도공연 등을 진행했다.



SK에너지는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으로 적립한 1,100만원을 소외아동과 청소년 돕기에 후원했다.



제주지역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2007년 총 2억원을 지원, 문화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장애아동들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인 '가슴 펴고 활짝'에 행사 기구 대여료 및 참가자 500명의 기념품을 지원했다.



부산 해운대 및 기장 지역의 90여 저소득층 가구에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200장과 쌀 180포대를 지원했다.



추석을 맞아 마라톤 기금 중 3,700여 만원을 57개 봉사처에 지원했다.

그램으로 진행되었다. 4회째를 맞은 행복 나들이에는 임직원들이 봉사활동 중인 시설의 어르신 및 독거노인들도 초청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임직원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

매년 마라톤을 통해 적립한 기금으로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온 SK에너지는 행복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시행했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적립금 1,100만원은 각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의 NGO를 통해 소외아동 및 청소년 돕기에 쓰였다. SK에너지는 2008년에도 임직원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SK에너지는 급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2007년 총 2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4월 24일 울산의 결식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SK에너지 전국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했다. SK에너지는 지난 2000년부터 결식아동들이 미래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39개교 2만 9,623명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 제주지역 소외이웃 지원

프로축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FC를 운영하는 등 제주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SK에너지는 제주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2007년 총 2억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 아래 '유소년 축구 및 문화 나들이 행사' 지원과 SK 행복캠프 초청행사인 '서울 나들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SK에너지는 2006년에도 제주지역 유소년 축구선수 후원, 소외계층 문화 나들이,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다진 바 있다.

● '2007 가슴 펴고 활짝' 등 공익 행사 후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이 공동 주최하는 '가슴 펴고 활짝' 행사를 후원했다. 장애어린이들의 현장학습 행사인 '가슴 펴고 활짝'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방송국 견학, 도전 노래방, 페이스 페인팅, 에어바운스, 라디오 방송 녹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SK에너지는 2004년부터 행사 기구 대여료 및 참가자 500명의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

● 부산 해운대 및 기장 저소득층 지원

SK에너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및 기장군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과 쌀을 지원했다. SK에너지의 마라톤 성금 및 부산도시가스와의 공동 지원을 통해 송정동 및 기장군 90여 저소득 가정에 연탄 1,200장과 쌀 180포대(20kg/포대)를 지원했다.

● 추석맞이 행복나눔

SK에너지는 추석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희망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성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동아마라톤 성금 5,000여 만원과 SK에너지가 출연한 동일한 금액의 매칭펀드 성금을 적립한 마라톤 기금 중 3,700여 만원을 57개의 봉사처에 지원했다.
또한 9월에 1인 1후원계좌 갖기를 통해 조성한 1,100만원의 기금을 본사·울산컴플렉스·기술원·물류센터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나기 성금으로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 제6회 SK 아동 바다체험 행사

SK에너지 윈드서핑동호회는 8월 1일 사단법인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울산연맹과 공동으로 울산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33명을 초청,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와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제6회 SK 아동 바다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홍보영화와 전시관 관람, 공장 투어를 한 후, 진하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과 보드·수영 기초교육을 받고 팀별 수중 기마전, 바나나보트 타기 등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사회공헌팀은 참가 어린이들에게 책과 물안경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 제7회 노인문화축제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7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추억 기념촬영과 네일 아트 등 특별행사도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 SK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1일 울산장애인체육관에서 'SK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울산장애인체육관 회원 및 가족 200여 명과 SK 임직원이 참여한 이날 운동회는 각종 운동경기 및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기념품과 오브레인지 등 푸짐한 경품을 지원해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물했다.



SK에너지 윈드서핑동호회는 울산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바다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SK 바다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문화축제를 열고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SK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에는 울산장애인체육관 회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SK에너지 Netruck 사업팀
이임철 과장



이임철 과장은 2007년 한 해 동안 펼친 많은 봉사활동 중에서 SOS어린이마을의 어린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SOS어린이마을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자립할 때까지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
특히 1월에 SOS어린이마을 중고등부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위캔(We-can) 마을 쿠키 만들기 체험, 8월 강원도 물안마을에서 70명의 어린이들과 1박 2일 동안 진행한 여름캠프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랐다.
"쿠키 만들기 행사는 SOS어린이들에게, 그들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4회째 진행한 여름캠프도 농촌지원활동과 환경사랑체험을 겸해 실시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깨워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3월 SOS어린이마을 축구부 25명과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경기 관람, 5월 SOS장학기금 마련 자선바자회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이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아이들의 자존심과 자신감.
"남들보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을 키워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사내 산업보건센터로 초청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는 SK재활관 기공식이 11월 21일 거행됐다. SK재활관은 2008년 5월 완공 예정이다.



SK에너지는 보훈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26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문화상을 받았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울산지역 독거노인 무료건강검진 실시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11월 27일 독거노인과 생활 형편상 평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60여 명을 사내 산업보건센터로 초청, 가정의학 전문의의 의료상담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울산컴플렉스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인근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초청해 무료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의 재활 돕는 SK재활관 기공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울산시 소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태연재활원 내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는 SK재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11월 21일 기공식을 가졌다. 2007년 초 SK에너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8억원 중 1억원이 지원되는 SK재활관은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는 특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08년 5월 완공 예정이다.

● 노인 간병인 사업 후원

SK에너지는 노인 간병인 사업을 시행 중인 (사)영산에 3,000만원을 후원했다. (사)영산은 2006년부터 노동부 지원으로 노인보호시설 간병 인력 및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왔으며, 이번 SK에너지의 후원금은 노인 간병인 사업을 '기업 연계형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는 데 쓰였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

SK에너지는 민간 차원의 남북한 민족 화해 분위기 확산 및 남북한 긴장관계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기반 활성화를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3,000만원을 후원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정·재계 및 교육·문화·체육 분야의 20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로, SK에너지는 2005년과 2006년에도 후원한 바 있다.

● 2007년 보훈문화상 수상

SK에너지는 보훈문화의 저변 확산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는 2007년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약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SK에너지는 경상남도와 함께 선정예우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 및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SK에너지는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 전액을 영구 귀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설 명절 선물 및 생계비로 광복회를 통해 지원했다.

SK텔레콤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SK텔레콤은 소외계층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NGO와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은 장애아동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을 선발·교육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SK텔레콤이 장애아동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며, 2005년 SK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의미를 더해 보건복지부·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2007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기관에 2,786명의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을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을 도왔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사업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조건을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졸업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는 소외계층 실업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SK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의 영역을 단순 기부에서 수혜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그들이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정부·NGO의 효과적 협력모델을 통해 새로운 공공연계형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였다.

- 행복도시락 사업

SK텔레콤은 SK그룹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과 노인에게 위생과 영양 면에서 우수한 도시락을 공급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담할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복도시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중구점을 1호점으로 2007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9개 센터를 개소했다. 이들 센터를 통해 하루 평균 1만여 식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양사·조리사·배달원 등 5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에 따라, 행복도시락센터 중 서울 관악점과 인천 남구점 2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무료급식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와의 결합 등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자활 터전 마련 및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모바일 공익사업

SK텔레콤은 이동통신기업으로서 첨단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모바일 미아·장애인·치매노인 찾기

미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 5월 경찰청·한국복지재단과 협정을 맺고 휴대폰을 통해 미아를 찾는 '모바일 미아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NATE Air 단말기 보유 고객에게 미아의 인상 착의·사진 정보를 전달해 주고 이 정보를 통해 미아를 발견한 고객이 경찰청·한국복지재단에 신고하여 미아를 찾아주는 공익 서비스이다.

모바일 미아 찾기를 통해 2007년 12월까지 16명의 미아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SK텔레콤은 2005년 5월부터 이 서비스의 대상을 치매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 약 1,300만명의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 긴급재난문자정보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2005년 4월부터 재난 및 재해 발생시 그 지역의 상황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위급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문자정보를 CBS(Cell Broadcasting System)를 통해 송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NATE Air 단말기 보유 고객에게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게 발송하고 있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SK그룹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7년 12월 현재 5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모바일 미아 찾기는 미아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한 대표적 모바일 공익사업이다.



SK텔레콤은 모바일 미아 찾기 서비스의 대상을 2005년부터는 치매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재해·재난 발생시 고객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정보를 송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정을 맺고 긴급 수혈환자 발생시 헌혈을 유도하는 모바일 헌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04♥사랑나눔 기금 중 일부를 희귀질환아동 치료비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이 가정을 방문하여 환아들을 돌봤다.



청소년들에게 신변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행복천사 캠페인으로 조성한 후원금을 결식아동과 소외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

외무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2005년 5월부터 해외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에게 해외 위급상황 안내와 긴급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7월 영국 지하철 테러 발생 당시, 런던 지역 고객에게 테러 발생 상황과 긴급대응 방법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교민 안전에 기여했다.

- 119 긴급구조서비스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발신자의 현재 위치를 이동통신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활용하는 '119 긴급구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현재 위치가 SK텔레콤의 위치확인시스템을 거쳐 소방방재청 상황실로 자동 전송된다. 구조 요청인이 화재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119구조대가 구조요청인의 위치를 자체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모바일 헌혈

'모바일 헌혈' 서비스는 긴급 수혈환자 발생시 SK텔레콤에 가입한 헌혈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헌혈 참여를 권유하는 모바일 공익사업이다. 문자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헌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한적십자사의 27만 회원 중 SK텔레콤 가입고객 15만명이며, 응급 수혈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적십자사 산하의 헌혈의 집을 알려 준다.
SK텔레콤은 2007년 1월 9일 대한적십자사와 협정을 맺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정식 당일에는 SK텔레콤 임직원들이 헌혈에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가졌다.

- 1004♥사랑나눔

'1004♥사랑나눔'은 SK텔레콤과 NGO가 함께 진행하는 모바일 종합 기부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기부한 레인보우 포인트와 OK캐쉬백 포인트 및 현금을 고객이 지정한 NGO의 각종 사회공헌 관련 행사에 지원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 유니세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구세군,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등 약 20개의 NGO와 함께 하고 있다.

- 청소년 모바일 상담

SK텔레콤은 학교폭력, 성적비관, 이성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2007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신변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무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컴퓨터 채팅 형태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신 번호를 #1388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언제든지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상담 문자메시지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문 상담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사업 주체로서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전국 142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 행복천사 캠페인

행복천사 캠페인은 소액 기부 프로그램인 '행복나눔'과 콘텐츠 구매형 기부 프로그램인 '뮤직나눔' 으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결식아동·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금액은 결식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 도서 지원 등에 활용된다.
'행복나눔'은 일시후원 또는 정기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시후원은 1,000원에서 1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으며, 정기후원은 12개월 동안 매달 1,000원·2,000원·5,000원 중 선택하여 후원할 수 있고, 매달 무료 문자메시지 20건·40건·100건을 각각 제공받는다. 또한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을 병행하여 참여할 수 있는데 월 최대 1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액은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며,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후원금액의 100%를 추가 후원하고 행복나눔에 참여한 고객들에게는 통화대기음 앞부분에 설정할 수 있는 엔젤링이란 멜로디를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은 행복천사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행복나눔재단과 함께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행복 메시지 트리를 만들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2008 행복트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2008년에 이루고 싶은 행복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행복카드에 적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 놓는 것으로, 현장에서 1,000원 이상 현금을 기부하거나 SK텔레콤 고객에 한해서 휴대폰을 통해 '행복나눔'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SK텔레콤은 행복나눔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여 두 배 커진 행복과 나눔을 전달했다. 이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결식아동 및 소외청소년들의 도시락 및 도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 구세군 모바일 기부

SK텔레콤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구세군 대한본영과 함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도 하고,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는 '사랑 On ° (온도)를 높여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SK텔레콤 고객이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현금 또는 각종 포인트(레인보우 포인트, OK캐쉬백 포인트 등)로 1회당 1,000원부터 1만원까지 후원금을 내면 고객이 후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SK텔레콤에서도 기부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모바일 기부로 모인 5,200만원의 기부금을 구세군 대한본영에 전달하였으며, 이 후원금은 결식아동돕기, 장학금 및 공부방 지원 등 청소년 사업에 사용된다.



SK텔레콤은 구세군 대한본영과 함께 휴대폰으로 현금 및 각종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Sunny 봉사단원들은 전국 각 지역의 병원과 노인 및 장애시설을 돌며 마술·연극 공연, 선물 전달 등의 활동을 벌였다.



레저버디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여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 활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활동을 전개했다.



Sunny 자원봉사단은 매월 3회 이상 독거노인을 방문해 의료·복지 등의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다.

●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 행복병원

Sunny 봉사단원들이 각 지역의 병원, 노인 및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접 마술·연극 등 공연을 펼치고 선물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전하는 봉사활동이다. 2007년에는 노인과 장애인까지 활동 대상을 확장하여 트로트 공연과 안마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국 13개 지역, 40여 개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인원 1,000여 명의 Sunny가 활동하고 있다.

- 레저버디

2005년부터 시작된 레저버디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문화를 체험하는 레저버디와,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버디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 있는 공동의 레저·취미 생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며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 가는 봉사활동이다. 2007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활동을 전개했다. 7월에는 부산지역 장애인들과 Sunny가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였으며, 8월에는 서울지역 장애인들과 Sunny가 경주 서라벌 역사여행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지킴이봉사단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의료·복지서비스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Sunny 자원봉사단 100명이 매월 3회 이상 독거노인을 방문해 청소, 혈압 및 혈당 체크 등을 돕고 말벗으로 활동하였다.



기업 사회공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가 주는 기업 사회공헌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수화로 고객의 문의사항을 상담해 주는 청각장애인 전용 3G+영상고객센터를 2007년 3월 오픈했다.



SK텔레콤은 사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500대의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돕기 위해 실시한 '고맙습니다' 캠페인에는 장혁·공효진 등의 배우들도 동참하여 온정을 나눴다.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수재민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 및 임대폰을 지원했다.

● 2007 BCCK 어워즈 CSR 수상

SK텔레콤은 10월 22일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에서 주관하는 2007 BCCK 어워즈에서 기업 사회공헌(CSR)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2007년 3회째를 맞는 BCCK 어워즈는 기업의 사회공헌, 한·영 간의 무역·투자, 한·영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및 기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수상제도이다.

SK텔레콤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 극대화'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사회공헌을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로 투영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공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고객센터 오픈

SK텔레콤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수화로 고객의 문의사항을 상담해 주는 '3G+영상고객센터' 서비스를 2007년 3월 오픈했다. 국내 최초로 인바운드 방식의 영상고객상담이 제공되는 3G+영상고객센터는 사전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고객이 영상통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숙련된 전문 상담원이 수화를 통해 고객 문의사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영상통화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 이 서비스는 SK텔레콤의 청각장애인 고객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특히 영상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수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팅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2006년 4월 농아인협회를 통해 전국 청각장애인 4,100명에게 영상통화 휴대폰(W120)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06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 노트북 컴퓨터 기증

SK텔레콤은 9월 20일 서대문 1318 해피존에서 1318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용 노트북 컴퓨터 500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여의치 않은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인 동시에, SK텔레콤 사무용 노트북 컴퓨터 신규 교체에 따른 효과적 재활용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SK텔레콤은 총 500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총 85개소의 1318 해피존 및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인터넷 온라인 수업과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에이즈 감염인 돕기 '고맙습니다' 캠페인

SK텔레콤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돕기 위한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모금액 3,000만원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기부했다. '고맙습니다'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이 평소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보내는 행사이다. 무선인터넷 네이트에서 전송할 경우 고객은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30원을 부담하고 SK텔레콤이 발송 1건당 100원씩 적립했다.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를 소재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장혁·공효진 등의 출연배우들도 출연료의 일부를 기부했다.

● 수해 피해 고객 요금 감면 및 임대폰 지원

SK텔레콤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수재민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최고 5회선까지,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10회선까지 9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함) 중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했다. 또한 요금 감면 외에 긴급할 때 연락이 가능하도록 수재민 고객들에게 3,500대의 임대폰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지원했다.

SK텔레콤은 2006년 강원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재난 복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2007 장애통합교육 수기 공모전

SK텔레콤은 SK에너지와 함께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7 장애통합교육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국 9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원,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수기 공모전에는 장애아동을 돌보며 겪었던 애환과 기쁨을 담은 200여 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11월 30일 보조원 30명, 교사 5명, 학부모 5명의 수기를 우수작으로 선발해 시상했으며, 보조원·교사·학부모 각 부문별로 상금을 전달했다.



SK텔레콤은 SK에너지와 함께 장애통합교육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SK네트웍스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가 진행하는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층 청소년(18~25세)에게 스피드메이트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문기술인으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피드메이트와 연계한 자동차 정비학원 또는 시립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자동차 정비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스피드메이트 전국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며, 학생들이 원하면 현장실습을 하던 매장에 취업도 가능하다. 직업교육과 함께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되어 2007년 12월 현재까지 졸업생 중 40명이 스피드메이트 사업장에 취직하는 등 총 77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 스피드메이트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행사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차량점검과 간단한 소모품 보충 및 교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봄맞이 안전운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스피드메이트 및 협력업체와의 단합된 사회공헌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스마트 학생복 기증

SK네트웍스 학생복 브랜드 스마트는 적십자사를 통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란·방글라데시·베트남 지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는 의류 기증사업 외에도 결식아동돕기 행사, 불우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사랑의 집 후원

SK네트웍스는 경상북도 청소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원아들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정기적인 방문과 봉사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 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원아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있다. 이 밖에 사랑의 집 원아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연극 관람, 우방랜드 방문, 각종 박람회 참관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 살레시오의 집 후원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연말을 맞아 제주도 장애인보육단체 '살레시오의 집'을 방문,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SK네트웍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차량점검을 실시했다.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제주도 장애인 보육단체 살레시오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 성애원 후원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는 연말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을 방문해 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내부 생활시설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중구청 위탁가정과 자매결연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인터넷기술팀은 서울 중구청 위탁가정 2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팀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회사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복지관 아동 초청 행사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서부지사는 사회복지시설 '형제사' 어린이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8월 24일에는 광주박물관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김장김치 담그는 일을 돕고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농촌사랑 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호남본부는 '자연사랑 농촌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남 우안군 해제면 송계마을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계마을 인근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하여 농촌일손돕기 운동으로 농작물 수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극빈층 생계비 지원활동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헌혈 캠페인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관내에서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강남역 일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권유 캠페인을 진행하여 헌혈의 집으로 헌혈자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지원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호남본부는 호남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400여 가구에 8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K케미칼

● 항생제로 북한주민 돕기

SK케미칼은 5월 2일 제약협회 및 남북의료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주민 의약품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의약품을 기증했다. 지원 규모는 세파클러캅셀 200캅셀들이 800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은, 2006년 말부터 북한 동해안 및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티푸스·성홍열·파라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발생해 2007년에는 청진·원산 등 동해안 지역과 해산 등 북부지역에까지 성홍열이 확산됐으나 북한 당국이 주민 격리 이외의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SK케미칼이 지원하는 세파클러캅셀은(cefaclor 250mg)은 광범위 항생제로서 적절한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등의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케미칼이 린보사업(낙후된 특정지역에서 위생·보건·의료·교육 등의 활동을 돕는 주민복지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한 의약품들은 남북의료협력재단을 통해 북한의 조선적십자병원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1억여 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지원했다.

●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개최

SK케미칼 수원공장 사회봉사단은 5월 23일 사내 주차장에 임시 공연장을 설치, 인근지역(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70세 이상 어르신 1,000여 분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이번 경로잔치 행사는 이웃하고 있는 SKC 수원공장 사회봉사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예년의 행사보다 한층 성숙되고 의미 있는 행사로 변모하였다. 경로잔치는 초청 민요가수 열창, 관내 정자초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합주, 가야금 병창, 트로트 신동의 열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SK케미칼 수원공장 사회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 소외이웃과 함께 행복 나들이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6월 19일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인근 어르신들과 장애우를 초청, 용문산과 퇴촌 스파로 행복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행복 나들이에는 총 9명의 오산공장 구성원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장애우 약 30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애학생들이 웃으면 세상이 환해져요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이성욱 주임



2007년 봉사 코디를 맡은 이성욱 주임은 봉사활동이 주는 짜릿함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봉사활동 자체가 신이 납니다."

이 주임이 속한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봉사단 직원들은 200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한국우진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집결한다. 이곳의 장애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활동을 나가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일산 호수공원, 국립현충원, 한강 둔치 등에서 장애학생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행사에서 SK케미칼 봉사단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많다. 체험활동 장소로 장애학생들을 이동시키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학생들의 손발은 물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체험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의 식사를 돕고 식당일까지 해야 한다. 그 일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날의 체험활동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외출을 무척 좋아해요. 우리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초기만 해도 '봉사 마니아'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주임. 그러나 한국우진학교 학생들을 만난 뒤로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SKC 울산공장과 한국복지재단 울산지부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SKC

● 전국 최초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후원

SKC 울산공장은 4월 26일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울산지부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자립지원사업(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에 대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CDA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해당 지자체가 후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국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또는 양육 중인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사회 진출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후원 대상자 계좌에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SKC 울산공장과 한국복지재단은 CDA 사업 후원에 관한 협정서 체결을 통해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SKC는 4월 2일부터 한국복지재단 16개 지부별로 CDA 사업이 시행된 이후 기업 후원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참가했다.

● 매칭펀드 후원

SKC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소년소녀가정을 돕기 위해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매칭펀드 조성에는 본사 60명, 울산 20명, 수원 30명, 진천 17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매월 후원한 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여 소년소녀가정을 돕고 있다.

SKC 수원공장 한마음자원봉사단은 5월 16일 빈곤계층의 청소년을 후원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우만종합사회복지관과 매칭펀드 후원 협약식을 갖고 연 1,8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매칭펀드로 조성된 기금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들의 후원사업에 사용된다.



SKC 울산공장과 천안공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 사랑을 나누는 헌혈운동

SKC 울산공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울산지사와 공동으로 5월 2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사랑 나누기 헌혈행사를 가졌다. 이 헌혈행사에는 50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헌혈 전 간단한 건강검진, 유의사항과 헌혈관련 상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헌혈행사에서 채혈된 혈액은 수혈용과 의약품 제제용으로 구분 사용되며, 임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되었다.

SKC 천안공장은 4월 23일 노동조합 민원봉사부 주관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따뜻한 사랑으로 137명이 참여하여, 이 중 101명이 헌혈을 실시하였다.



영이 어린이집 초등학생들과 함께 영화 관람 및 저녁식사를 하고 루체 페스타를 구경했다.

● 영이 어린이집 이동과 루체 페스타 나들이

SKC는 5월 23일 영등포 영이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초등학생 11명을 초청하여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후에는 청계광장을 방문하여 SK가 청계천을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루체 페스타 조형물(가족행복·돔·은하수·자연을 형상화한 조형물 및 행복날개를 상징하는 아트조명)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체험학습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1월 19일 겨울방학을 맞은 온누리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아동 및 청소년 35명을 한국민속촌으로 초청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체험행사는 전통가옥 체험, 널뛰기, 투호, 자치기, 얼음 썰매 등의 다채로운 전래놀이로 진행됐으며, 이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원공장 홍영기 공장장은 초청 아동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2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과 함께 우리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청소년들을 한국민속촌으로 초청하여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SKC와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SKC 천안공장은 1월 30일 신아원과 덕산신생원 원생과 지도교사 120여 명을 용인 에버랜드에 초청하여 행복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SKC 천안공장은 매년 신아원과 신생원 원생들의 여름·겨울 특별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에 의류 100벌 기증

SKC 울산공장은 3월 12일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에 의류 100벌을 기증하였다. 이날 기증한 100벌의 의류는 품질관리팀에서 후원하고 있던 결손가정의 인척이 그 동안의 후원에 대한 고마움으로 품질관리팀에 기증해 온 것이다.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위치한 동향원은 지체장애인들의 보호와 재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울산공장은 5년 전부터 동향원과 결연을 맺고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저금통' 전달

SKC 울산공장은 결식아동 후원 캠페인을 전개해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 150여 개를 7월 18일 한국복지재단 울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사랑의 저금통으로 모은 성금은 한국복지재단이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만들기'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SKC 수원공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 노인요양원에 휠체어 기증

SKC 수원공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하여 휠체어 5대를 기증했다.

SK C&C

●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운영

SK C&C는 2004년부터 성남과 일산에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웹디자인·자바 등 전문화된 IT 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총 2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 중 12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성남교육원에서는 1기~7기 수료생들의 졸업작품을 모아 웹디자인 작품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SK C&C는 성남과 일산에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장애인 연계고용 시행

SK C&C는 장애인 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 자립 기반인 취업 지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토너를 장애인 업체를 통해 납품받도록 전환하여 장애인 상시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회사 비용절감에도 기여했다. 비록 작은 수이지만 의미 있는 첫 출발을 한 만큼 향후에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가정의 달에 성남지역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효마당을 개최했다.



SK C&C는 IT 기업의 특성을 살려 복지단체에 PC를 기증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서울 동작구와 성남 중원구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인프라사업본부 미드미 봉사단은 김장김치를 담가 우리공동체에 전달했다.



SK C&C는 자원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와 성남시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했다.

● 제3회 SK C&C 효마당

SK C&C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남지역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제3회 SK C&C 효마당을 개최했다. 5월 22일 근로자종합복지관(성남시 중원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독거노인 및 봉사자 200여 명이 전통놀이 및 축하공연 등으로 흥겨운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특히 임직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배운 풍선아트를 이용해 직접 행사장을 꾸밈으로써 더욱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다. 한편 10월 노인의 달에는 분당 능골공원에서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효마당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 희망의 PC 기증

SK C&C는 소외계층 IT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의 PC 기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장애인IT협회 및 어려운 복지기관에 200대의 노트북을 기증했다. SK C&C는 업종 특성을 살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00여 대의 PC를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증해 왔다.

● 한마음 마라톤대회

SK C&C는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5월 12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전 임직원과 장애인 60여 명이 함께하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했다. 임직원들의 마라톤 참여 거리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성남장애인복지관, 한빛맹아원 등 3개 복지기관에 전달되었다.

● 2007 행복한 한가위 만들기

SK C&C는 뇌병변 장애아동과 함께 한가위 맞이 '행복한 송편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서울 강동구 소재의 주몽재활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윤석경 사장과 임직원을 비롯 복지관 소속 장애아동 등 92명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온정을 나눴다. 또 장애아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특수휠체어를 전달했다. SK C&C는 이 외에도 각 봉사단별 다양한 추석맞이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사랑의 연탄 나눔

SK C&C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서울 동작구 및 성남 중원구의 저소득 가구에 연탄과 쌀을 지원하였다.

●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

SK C&C 인프라사업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미드미 봉사단에서는 연말을 맞아 장애인생활시설인 우리공동체에 김장김치를 만들어 전달하였다. 미드미 봉사단에서는 매월 이 복지시설을 찾아 3년째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아동과 함께한 대축제, '라라의 스타일기'

SK C&C에서 배급하여 KBS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동 애니메이션 '라라의 스타일기'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뮤지컬로 공연되었으며, SK C&C에서는 연말을 맞아 12월 14일에서 21일까지 암사재활관·새날복지회 등 장애아동과 저소득 공부방 아동 300여 명을 초청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경기도 자원봉사상 수상

SK C&C는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05·2006년에 이어 3년째 경기도와 성남시로부터 기업 부문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복지단체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았다.

● 1인 1 후원계좌 갖기

SK C&C는 매년 연말 성금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으며 2007년에는 연말뿐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펼쳤다.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8,700여 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은 전액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쓰였다.

● 보치아 경기 보조를 통한 장애인 재활 지원

SK C&C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소망재활원의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치아 경기 보조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 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있다. 장애인 보치아 게임대회 참여를 목표로 꾸준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경기 보조 이외에도 봉사자가 꾸준히 방문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산책 및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 SK 행복나눔 바자회 연계, 장애인 제작물품 판매

SK C&C는 성모자애복지관, 다니엘직업재활원, 한사랑직업재활시설, 주몽재활원 등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꾸준히 장애인들과 함께 재활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연말 SK 행복나눔 바자회와 연계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판매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천연비누, 한지로 만든 전통공예품(전등), 액세서리, 양말 등은 바자회의 좋은 취지와 맞물려 인기리에 판매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SK C&C는 이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자립·자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청소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체험

SK C&C에서는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투사의 노력과 일제의 강제 식민지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들에게 지난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장애아동과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SK C&C는 매달 우리공동체 장애아동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7월에는 인근 탄천 수영장에서 특별행사를 가졌다. 물총싸움·비치볼게임 등 즐거운 물놀이 게임과 수박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와 장애아동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시설 내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다.

● 테리폭스 마라톤 후원

SKC&C는 캐나다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테리폭스 마라톤을 후원했다. 테리폭스 마라톤의 수익금은 전액 난치병 아동의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 장애인 지역사회 적응훈련

SK C&C는 2007년 4월 장애인생활시설인 예가원 주최로 열린 자원봉사 대축제를 지원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 대축제는 봉사자·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했으며, 다양한 축하공연과 함께 기금 마련 행사 등을 진행했다.



SK C&C는 소망재활원의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해 보치아 경기 보조로 재활을 돕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행복나눔 바자회에서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리공동체 장애아동들과 수영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SK C&C는 정성노인의집 어르신들과 함께 어르신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SK건설은 두 차례에 걸친 행복나눔 자선레이스를 통해 마련한 행복기금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에 지원했다.



SK건설은 전국의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요·이불·베개로 구성된 행복이불을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일대 저소득층 가정에 총 3,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 장애인의 날 행사

SK C&C 윤석경 사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영락애니아의집을 찾아 장애아동 생일파티 및 사회적응훈련을 도왔다.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아동을 도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 예금 및 출금을 하는 활동을 돕고 생일을 맞은 장애아동과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후원

SK C&C는 성남시에서 주최하고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를 후원하였다. 성남중앙공원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는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기업,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다.

● 어르신 요리교실 개최

SK C&C는 양천사회복지회 정성노인의집과 공동으로 어르신 요리교실을 열었다.

SK건설

● 행복나눔 자선레이스 기금 모으기

SK건설 마라톤동호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행복나눔 자선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정 기금을 기부하고, SK건설이 동일 금액을 매칭펀드로 마련한 약 4,000여 만원의 행복기금은 연말에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07년에는 4,600여 만원의 행복기금을 마련했으며, SK건설은 이 기금으로 서울숲에 'SK건설 나눔의 숲'을 조성하고, 불우이웃 주거개선 대상 가정에 기증할 농협상품권과 쌀을 각 고객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800만원을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겨자씨 사랑의 집과 재한몽골학교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했다.

●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건축주택부문 C/S본부는 2006년 4월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4개 고객센터(서울·수도권·중부·영남)에서 매월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으로, 2007년 12월까지 총 75가구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공간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 복지시설에 행복이불 전달

SK건설은 12월 27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이불 전달' 행사를 가졌다. 요와 이불·베개로 구성된 행복이불은 청운양로원, 어린이 쪼물왕국, 겨자씨 사랑의 집, 샘물의 집 등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여러 복지시설에 총 130여 채(6,000만원 상당)가 전달됐다.

●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SK건설은 12월 15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유웅석 사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연탄을 배달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서울 관악구 신림 6동과 10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3가정에 총 3,9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

SK건설 건축주택부문은 12월 5일, 부가서비스 브랜드인 VITAMIN SERVICE, VITAMIN D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국 5개 단지(종암동 SK타운, 평택 소사 SK VIEW, 부천 소사 SK VIEW, 부산 부곡동 SK아파트, 포항 효자 웰빙타운 1차 SK VIEW) 5,970세대를 대상으로, SK건설 임직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과 입주민들이 참여하여 김장 담그기, 행복나무 겨울나기, 단지 내 크리스마스 장식하기, 신년 소원 빌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임직원들과 입주민이 함께 담근 김치는 각 단지명으로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였으며, 행복나무 겨울나기를 진행한 SK건설 임업부문은 단지 내 나무 가꾸기와 화단 청소·보수작업 등을 함께 전개했다.

●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참가

SK건설은 장애인단체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 불용 PC 76대와 프린터 24대, 총 100대의 전산장비를 11월 21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불용 전산장비 100대는 장애인문화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재보급 및 조립교육 또는 부품 재활용에 사용된다.

●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 개최

SK건설 화공플랜트부문 계측제어팀은 6월 23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계측제어팀 직원과 가족 40여 명은 종로타워 앞 광장에 모여 헌책과 헌옷·만년필 등 각종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고, 먹거리 코너에서는 직접 만든 떡볶이·팥빙수 등을 판매하여 기금을 모았다. 바자회에서 조성된 이익금은 전액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기증하여, 무의탁 어르신들의 생활보조 등에 사용했다.

SK해운

● 매칭 그랜트 활동

SK해운은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 기금으로 2007년 2월 23일, 지속적으로 학습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중학교 진학을 앞둔 사랑방 학생들에게 코너스(CONUS) 상품권을 지급하여 새학기·새출발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또한 2005년부터 결연을 맺은 조손가정(3가정)을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으며 손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후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군부대 위문

SK해운 이정화 사장과 임직원들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6일 2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 SK해운은 이정화 사장 취임 이후 매년 군부대 위문 방문을 진행해 왔으며, 2006년 육군 수송사령부에 이어 2007년에는 서해 전략요충지를 담당하는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서해교전시 침몰했던 참수리 357호정을 둘러본 후 서해교전 전적비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또한 해상수송로 확보와 영해방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해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전하고 격려했다.

● SK 행복나눔 바자회와 함께한 벌룬아트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은 2007년 12월 12일 SK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가하여 SK해운 임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한편, 바자회에 온 고객들에게 다양한 풍선을 만들어 증정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SK건설 건축주택부문은 행복나무 겨울나기 행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나무 가꾸기와 화단 보수작업을 펼쳤다.



SK건설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 총 100대의 전산장비를 기증했다.



SK건설 계측제어팀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SK해운 이정화 사장과 임직원들은 2007년 서해 전략요충지를 담당하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은 SK 행복나눔 바자회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한편 풍선 아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증정했다.



SK증권 임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한 3,000만원을 44가구 77명의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SK증권은 증권거래 수수료의 일부분을 후원금으로 조성,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워커힐 외식사업본부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함께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쉐라톤은 재한몽골학교 학생 200여 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배식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



워커힐 면세사업본부는 화성영아원생을 아이스링크에 초청하여 서커스 및 마술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SK증권

● 조손가정 아동 1인 1후원

SK증권 임직원은 2007년 6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 및 각 지방의 44가구 77명의 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매월 약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

● 유니세프 후원금 전달

SK증권은 SK증권 하나은행 제휴계좌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조성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후원금 997만원을 전달했다. SK증권은 앞으로 하나은행 이외의 기관과도 제휴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니세프 후원기금 조성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SK증권은 2005년 7월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워커힐

● 지역 독거노인에 무료식사 지원

워커힐 외식사업본부는 임광토건과 공동으로 1월 17일 인천 그랜드 CC 클럽하우스에서 인천 원창동 지역 독거노인 100여 명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위문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워커힐은 이번 봉사활동을 실·본부 단위의 모범사례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5월 10일 외식사업본부 솔모로 CC 주관으로 가남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했으며, 12월 10일에는 외식사업본부 소피아그린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대접하고 전자제품(세탁기)을 기증했다.

● 재한몽골학교에 무료식사 지원

쉐라톤 HTL 사업본부·사업개발본부·기업문화실 공동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및 재한몽골학교 학생 200여 명에 무료식사 제공 및 배식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H/W 개발실장, 쉐라톤 HTL RM, 객실팀장, 총무팀장, 실·본부 코디네이터 15명이 참가하여 2007년도 실·본부 특화 사회공헌활동 실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워커힐은 2006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재한몽골학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1인 1후원계좌로 화성영아원 돕기

워커힐 면세사업본부는 2007년 5월부터 화성영아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임직원 2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6월부터는 임직원들의 1인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금 중 80만원을 매월 화성영아원에 후원하고 있다. 12월에는 홍보팀·객실팀 등과 함께 화성영아원생 35명을 워커힐 아이스링크에 초청하여 서커스 및 마술 등의 공연을 진행했다.

● 삐에로와 함께하는 서커스교실

워커힐은 10월 25일 정통 유럽풍 서커스 '제포라'의 삐에로와 함께하는 서커스교실에 영화유치원생 15명을 초청하여 서커스 체험 및 백스테이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사랑의 김장 나누기

워커힐은 11월 26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200만원을 후원하였다. 워커힐은 2004년부터 인근지역 저소득 가정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에 성금 후원

워커힐은 2007년 2월 초 제3회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 행사 시간에 부서 및 영업장에 배부한 행복돼지 저금통 약 50여 개를 12월 24일 개봉하고, 여기서 모인 약 190만원 모금액을 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후원했다.

SK E&S

● 1인 1후원계좌 갖기 참여

SK E&S는 SK그룹 '행복나눔의 계절'의 일환인 1인 1후원계좌 갖기에 참여했다. SK E&S 및 7개 자회사에서 총 901명이 참여해 3,300여 만원을 모금했으며, 모금액은 월드비전을 통해 소외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사용된다.

● 부산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나눔

부산도시가스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의 일원으로 11월 29일 부산시 남구 문현1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또한 12월 7일에는 SK에너지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과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90세대에 연탄 1,200장과 쌀 20kg 180포대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부산도시가스 자원봉사단은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영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세대에 도시락과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부산진구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인 신애재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충남도시가스 – 도시가스 시설 무료 지원

충남도시가스는 3월 15일 대전 중촌사회복지관에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스공급에 나서는 등 '행복나눔터 1호' 개소식을 가졌다. 행복나눔터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에 도시가스 시설(가스 시공, 보일러, 가스레인지)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충청에너지서비스 –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요금 지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충북지역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3개월 동안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07년 4월~5월 청주지역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의 가스시설 무료 점검 및 교체·수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포항도시가스 – 소외계층 무료 가스점검

포항도시가스는 6월 28일 포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점검 및 시설교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워커힐은 2004년부터 인근 저소득 가정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했다.



워커힐은 행복돼지 저금통을 개봉하여 얻은 190만원의 모금액을 태안 복구 성금으로 기부했다.



부산도시가스는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충남도시가스는 사회복지기관에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나눔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충북지역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에 3,000만원의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했다.



포항도시가스는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무료 가스점검 및 시설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항도시가스는 포항 시내 독거노인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3,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강원도시가스는 SK네트웍스와 연계하여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활동은 포항도시가스 행복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포항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했다.

● 포항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나눔

포항도시가스는 11월 29일 포항 시내 독거노인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총 3,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 강원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배달

강원도시가스는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가졌다. 사내 봉사동아리인 '함사모(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SK네트웍스가 연계하여 진행한 이 행사로,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총 2,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SK E&S 충남도시가스 경영지원팀
이상윤 팀장

꾸준히 해야 알 수 있는 봉사의 즐거움



SK E&S 충남도시가스 자원봉사모임인 '나누우리'는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1년에 한두 번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한다. 또 매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청소도 해 드리고 점심도 대접한다.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상윤 팀장.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대전시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팀장 덕분에 나누우리는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나누우리는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10~20kg씩 200호에 배달하고 있다.

이 팀장과 나누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웃은 비단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만이 아니다. 나누우리 회원 20여 명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일터 '쿠키나라'에서 쿠키를 굽는다. 그 쿠키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비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십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우연히 동료가 봉사활동을 하며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야겠다 마음먹은 뒤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자신이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봉사활동의 즐거움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 팀장. 그러고 보니 대전 시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마다 그가 있었다.

SK가스

● 전사 헌혈행사

SK가스는 지난 2004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48명이 헌혈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2007년에는 33명의 구성원이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 마라톤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SK가스는 봄 시즌 동아마라톤과 가을 시즌 마라톤에 참여한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과 SK에너지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완주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SK가스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했다.

● 동명복지재단 후원

SK가스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동명복지재단에 2007년 11월부터 매월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동명복지재단은 2007년 2월에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및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SK가스는 2004년 이후 각 사업장별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장학 부문

교육이 미래를 만듭니다. SK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관계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 장학사업
지방대 인재 육성을 위해 경북대에 발전기금 지원
청주대 SK문고 지원
범죄 피해자 유자녀를 위한 행복날개 장학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록도 한센인 및 한센인 자녀를 위한 SK행복날개기금
지식나눔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
1사 1교 운동 후원
울산지역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제2회 다물 SK 청소년 캠프 개최
'장학퀴즈' 우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전달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 후원
봉사단 연계 봉사단체 등에 중고 노트북 컴퓨터 기증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정유공장 교육생에게
기술교육 시행
초등생에게 JA 경제교육 실시
무료 IT 교육

SK텔레콤
해피 뮤직 스쿨
뮤지컬 스쿨
2007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 하이터처
- IT 봉사단
사랑나눔 캠프
Caring at Columbia
교육 프로그램
- 주니어 공학교실
- JA 경제교육 참여
-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 청소년 모바일 중독 예방 캠페인
행복도서관 건립
1사 1교 운동 지원

SK네트웍스
EBS '장학퀴즈' 후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SKC
조선일보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 참가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SK C&C
성남지역 청소년 행복장학금 전달
제4회 저소득층 자녀 무료 IT 특강
'미리 보는 유비쿼터스 세상' IT 특강
정신지체 청소년 서비스 교육
저소득층 공부방 이동 건강테마 프로그램 지원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시각장애아동 교육 지원
장애청소년 산업현장교육
1+3세대 프로그램
뇌병변 장애청소년 재활체육교육 지원

SK건설
어린이 교통안전 캠프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
- 어린이 환경사랑 체험교육
- 어린이 안전 체험관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SK해운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 실시
저소득 지역 공부방 학습지도
해양소년단 총재 찬조금 지원
소년한국일보 지원

SK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워커힐
저소득 가정 아동에 영어 지도

SK E&S
부산도시가스-장학금 모금 및 지원

SK가스
소년소녀가장 후원
결식아동 후원



SK에너지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행복날개 장학금을 지원했다.



경북대에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지방대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대에 소장가치가 높고 교수진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학술도서를 기증했다.



소록도 한센인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행복날개기금을 전달했다.

SK에너지

●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 장학사업

SK에너지는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날개 장학금'을 지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반송동은 1967년 철거민 이주로 형성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SK에너지는 2006년부터 이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 '희망의사다리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산 반송동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대 인재 육성을 위해 경북대에 발전기금 지원

SK에너지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북대에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SK에너지의 발전기금은 경북대 경상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인 'SK Energy Global Quest'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K Energy Global Quest는 대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상해 복단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과학기술대 등 아시아권의 주요 대학과 기업 탐방을 포함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경북대 경상대학 2008년 신입생들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 청주대 SK문고 지원

SK에너지는 지방대학 지원의 일환으로 3월 14일 청주대에 'SK문고'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1983년에 1차 기증한 청주대 '유공문고'의 명칭 변경 및 도서 확충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소장 가치가 높고 교수진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전 학술도서를 기증했다.

● 범죄 피해자 유자녀를 위한 행복날개 장학사업

SK에너지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력범죄 피해자 유자녀를 돕기 위해 2006년부터 경찰청·굿네이버스와 함께 '행복날개 장학사업' 협약을 맺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범죄 피해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방문, 경찰대 대학생과의 멘토·멘티 연계 등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SK에너지는 (사)녹색교통운동이 진행하는 '2007년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사)녹색교통운동은 교통문제 해결 및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로,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교통사고 유자녀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미술을 활용한 심리 치료 및 박물관 견학, 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2007년 8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 개최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0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소록도 한센인 및 한센인 자녀를 위한 SK행복날개기금

SK에너지는 소록도 한센인 및 한센인 자녀를 위한 'SK행복날개기금'을 지원했다. 한센병은 나균이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투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완치 가능한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센병 환자들과 그 자녀들은 경제력 부족, 차별과 편견으로 가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사)참길복지와 함께 국립소록도병원 개축 공사 및 물품을 지원했으며, 가난의 대물림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한센인 2·3세에게 학자금을 2년째 지원하고 있다.

● 지식나눔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

SK에너지는 2008년 2월 1일 '지식나눔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1,100여 만원의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8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임직원들이 스스로 터득한 업무 노하우 등을 사내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해서 받은 지식 포인트를 자발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SK에너지는 임직원들이 적립한 지식 포인트에 매칭펀드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여 불우청소년을 돕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임직원들이 장학생과 1대1 멘토 결연을 맺고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 1사 1교 운동 후원

SK에너지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사 1교 운동'을 후원했다. 1사 1교 운동은 공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 프로그램으로, SK에너지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울산 중앙고, 부산 영도여고, 제주 서귀포여고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 울산지역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SK에너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 꿈나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대에서 추천하는 우수 학생 5명에게 산학협동 장학금을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매년 중·고교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의 각종 행사(어린이날 행사·운동회 등) 및 졸업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제2회 다물 SK 청소년 캠프 개최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역사의식과 강인하고 진취적인 정신을 갖춘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산청 다물 민족학교에서 '다물 SK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



임직원들이 적립한 지식 포인트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지식나눔 사랑나눔 장학금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SK에너지는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사 1교 운동을 후원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함양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다물 SK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

30년 직장생활의 또 다른 보람

SK에너지 HOU공장
조인수 부장



SK에너지 제1중질유분해공장(HOU공장)의 직원들은 80%가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때문에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충전하는 게 우선일 텐데, HOU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HOU 공장 대부분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하나 봉사팀'이 하반기 우수사례로 꼽힌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발대식을 가질 때만 해도 HOU공장 182명의 직원 중 100여 명만이 가입했는데 지금은 161명으로 늘어나 장애인, 노인, 아동 · 청소년, 소외계층, 환경정화, 교육 · 장학 분야에서 폭 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사팀의 산파 역할을 한 조인수 부장이 꼽는 '우리하나 봉사팀'의 대표활동은 교육사업. 별도의 장학회를 만들어 울산 시내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고교생 2명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초등학생 5명에게는 급식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메아리복지원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연 50~100만 원 정도의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우리하나'는 이 밖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장애인과 함께 비누를 만든다. 회원 부인들 또한 울주군 청소년쉼터를 매월 방문해 조리 지원 및 청소를 하고 있으며, 연 1회 정도는 가정으로 초대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
"30여 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눌수록 행복한 일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울산 1318 해피존 및 방과후 푸른학교 그리고 대구지역 복지단체 학생 등 총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프는 고구려 역사 배우기, 주몽처럼 활쏘기, 진주성 및 국립진주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호강 래프팅과 풍등 만들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2007년 2회째를 맞은 다물 SK 청소년 캠프는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가 영남지역 대구물류센터와 함께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향후에도 울산컴플렉스는 영남지역 내 관계사 및 물류센터와 '따로 또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SK의 대표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장학퀴즈'에서 우승한 포항제철고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장학퀴즈' 우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전달

SK에너지는 SK그룹의 대표적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인 '장학퀴즈' 우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SK의 단독 후원으로 1973년 MBC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장학퀴즈'는 1997년부터는 EBS를 통해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6년 3월부터 출전 방식을 개인전에서 학교 대항전으로 변경하고 방송시간대도 일요일 오후 5시로 옮기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에너지는 3월 22일 학교 대항전으로 변경 이후 처음으로 '제왕전'을 통해 우승한 포항제철고 등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SK는 '장학퀴즈'를 해외로도 확대해 2000년부터 'SK 장원방'을 중국 북경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 후원

SK에너지는 (사)어린이어깨동무가 진행 중인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을 후원했다. (사)어린이어깨동무는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 6층, 22병상 규모의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SK에너지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북한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이번 후원에 참여했다.

● 봉사단 연계 봉사단체 등에 중고 노트북 컴퓨터 기증

SK에너지는 사무용 노트북 컴퓨터 신규 교체에 따른 효과적 재활용 방안으로 임직원 봉사단이 활동 중인 봉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사내 중고 노트북 컴퓨터 500대를 기증했다.

●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정유공장 교육생에게 기술교육 시행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정유공장의 엔지니어와 운전원 등 28명에게 기술교육을 시행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사 6개 정유공장의 엔지니어 및 운전원 등 28명의 교육생에게 기술교육을 시행했다.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기술교육은 울산컴플렉스의 각 분야별 38명의 사내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으며, 현장운전·공정기술·설비관리와 공정안정성 확보 등 울산컴플렉스의 공정운영 기술과 SKMS·지식경영·변화관리 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SK에너지는 2006년 4월 페르타미나사와 석유·화학·윤활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0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자카르타에 제3윤활기유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 초등생에게 JA 경제교육 실시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JA코리아와 함께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SK에너지는 울산지역 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법인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함께 10월 9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경제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소속 임직원 18명이 강사로 나서 야음초등학교 12개 학급, 여천초등학교 6개 학급 등 총 6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였다.

생활경제교실은 경제개념을 이해하고 그 폭을 넓혀 나갈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 경영과 국제시장의 이해를 통해 리더십과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SK에너지 본사 구성원 30여 명도 JA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하반기 각각 5회씩 일선 초등학교에서 경제 관련 수업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무료 IT 교육

SK에너지는 본사 및 울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대상의 10개 복지단체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135명을 회사로 초청, 총 4회에 걸쳐 무료 IT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IT 교육은 SK에너지가 보유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보고서 만들기, 사진 꾸미기와 동영상 편집, 재미있는 사진 편집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무료 IT 교육을 실시했다.

SK텔레콤

● 해피 뮤직 스쿨



해피 뮤직 스쿨은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피 뮤직 스쿨은 SK텔레콤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워 내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클래식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단계를 거쳐 2007년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피 뮤직 스쿨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45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2학기 총 26주에 걸쳐 전문강사의 개인 레슨, 앙상블 및 그룹 레슨을 받았다.

해피 뮤직 스쿨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MAP(Music Advancement Program)를 한국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줄리어드 음대의 교육복지 디렉터인 앨리슨 스콧 윌리엄스가 고문을,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정상급 첼리스트인 송영훈 연주자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각 음악파트장은 백주영 서울대 음대 교수, 현민자 연세대 음대 명예교수, 주희성 서울대 음대 교수 등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맡고, 13명의 각 파트별 전문강사가 개인 레슨을 담당하는 등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줄리어드 음대의 마틴 캐닌 교수 등을 초청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했다.

● 뮤지컬 스쿨


뮤지컬 스쿨 송년회에서 지도교사인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참가 청소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SK텔레콤은 2007년 8월부터 밝은청소년지원센터·(사)공연예술아카데미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생관 확립과 특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초교육을 통한 오디션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역량이 뛰어난 20여 명의 청소년은 6개월 일정으로 뮤지컬 배우 출신 강사들로부터 전문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평소 뮤지컬 등 문화활동을 접하기 힘든 청소년에게 단순 일회성 체험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뮤지컬 교육을 지원하고 재능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007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단순한 정보검색대회 차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I Can Do IT!'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청소년 IT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단순한 정보검색대회 차원을 넘어서, 장애청소년들의 전반적인 IT 활용 능력을 겨루고 즐기는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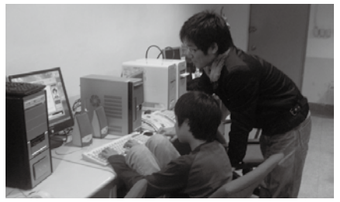
2007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전국 1,235명의 참가자 중 부산·광주·대구·전남·경북·제주·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350명이 6월 28일 본선에서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IT 능력을 겨루는 'e-Life 챌린지' 부문, 업무용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e-Tool 챌린지' 부문, 인터넷 게임 대회인 'e-Sports 챌린지'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2007년 대회는 시범적으로 장애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에서 30세 미만의 장애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애청년들의 취업 상담 지원



2007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됐다.



Sunny는 보육원과 공부방의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고 멘토 역할을 하는 '하이티처'로도 활동하고 있다.



Sunny는 2007년 9개 지역 19개 시설에서 IT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웠다.



사랑나눔 캠프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예술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대학 메디컬센터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Caring at Columbia' 를 국내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e-Life 챌린지와 e-Tool 챌린지의 청소년부 참가자 중 각 장애유형별 1등 수상자들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장학금과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졌다. 영역별 영예의 1위 수상자들은 담당 지도교사들과 함께 8박 9일간 미국을 방문해 교육기관 및 선진 장애인시설을 견학했다. e-Sports에서도 장애유형별 1위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수여하는 명예 선수증과 명예 프로게이머 자격이 수여됐다.

●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 하이티처

'하이티처(Hi-Teacher)'는 대학생 Sunny가 각 지역 보육원 및 공부방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멘토 활동까지 하는 일대일 학습지원 자원봉사활동이다. 2007년 상반기에는 전국 20개의 아동시설에서, 하반기에는 36개의 아동시설에서 상·하반기 총 50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16주간 활동을 펼쳤다.

- IT 봉사단

'IT 봉사단'은 대학생 Sunny가 지역 보육원 및 공부방 아동·청소년과 IT를 통해 교류하는 IT 자원봉사활동으로 9개 지역(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9개 시설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명이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6주간 실시했다.

● 사랑나눔 캠프

'사랑나눔 캠프'는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사)한국예술치료학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면서 장애아동에게는 치료 효과를,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이 199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제6회 SK텔레콤 사랑나눔 캠프에는 전국에서 장애 유·아동 180명과 부모 180명, 그리고 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술치료사 180명, 전문 교수진과 의료진 43명, 자원봉사자 등 총 6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박 6일간 전문 예술치료가 실시되었다.

이 캠프는 어린시절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쉬운 장애 유·아동들에게 다양한 예술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아동 보호자들에게는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최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및 주의력 결핍 장애아동(A.D.H.D.)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료 방식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Caring at Columbia

SK텔레콤은 2006년부터 콜롬비아대학 메디컬센터 내 'Caring at Columbia' 센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상호 무상교환 협약을 맺고, 2006년 8월부터 국내 상황과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Caring at Columbia' 프로그램을 아동과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문 아트 테라피스트들의 지도 아래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등학교 7개교 및 청소년기관 2개소에서 정서치료대상 아동 및 청소년 106명에게 실시됐다.

● 교육 프로그램

- 주니어 공학교실

SK텔레콤은 2004년 2학기부터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초등학생 대상 과학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실험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인원 561명의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지도교사로 참여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 JA 경제교육 참여

JA는 세계 113개국에서 시행 중인 유치원 및 초·중·고생 대상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은 2003년부터 각 학기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찾아 구성원들이 경영 실무에서 얻은 살아 있는 경제지식을 전하는 JA 경제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80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06년에는 JA로부터 기업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SK텔레콤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와 공동으로 휴대폰 활용 교육을 통해 가족간·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없애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9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주간 매주 1회씩 수도권 5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1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1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진행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발전시킬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교육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다.



세대간의 화합을 위해 9월부터 실시한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진행했다.

- 청소년 모바일 중독 예방 캠페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은 휴대폰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상담실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8월, 서울지역 12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대폰 사용을 위해 2007년 전국 1만 1,000개 학교에서 모바일 중독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과학전도사로 여섯 번 변신하는 남자

SK텔레콤 정보기술연구원 IT인프라관리팀
윤영대 매니저



윤영대 매니저는 1년에 여섯 번 초등학교 과학교사가 된다. 2005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일이라 이제 교단에 서는 일이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윤 매니저가 과학교사가 될 수 있는 무대는 바로 주니어 공학교실. 주니어 공학교실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운영하는 과학기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 또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 실험 위주의 과학수업을 진행한다.

윤 매니저는 그 동안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4~6학년을 가르치는 과학교사로 활동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데다 회사 업무도 IT 분야이기 때문에 실험 주제를 정하거나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윤 매니저에겐 차라리 하나의 즐거움이다.

"아이들에게 과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무척 빠르더라고요."

대상 학교는 분기별로 바뀌기도 하고 1년 내내 지속되기도 하는데 윤 매니저는 지금까지 4곳의 초등학교에서 활동했다.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간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는 것도 행복한데, 음료수나 과자를 건네며 고맙다고 말할 땐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자기관리의 도구이자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도구, 건강한 소통의 도구로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휴대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휴대폰 중독 치료 및 예방 교육이 지루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신나고 즐거운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즐거운 휴대폰 문화 만들기 공모전', '휴대폰 사용 에티켓 포스터 보급', '교실 내 학생 휴대폰 보관함 보급' 등을 진행했다.
2007년 말까지 전국 1만 1,000개 학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고, 초·중·고 4,000개교에 포스터를 발송·부착하였다. 또한 전국 3만여 명의 교사에게 메일링 발송 및 아름다운학교 회원 2,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전국 10개 분교의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개조하여 책을 기증하는 행복도서관 사업을 진행했다.

● 행복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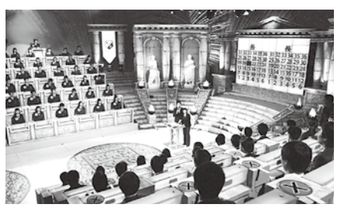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분교를 선정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개조하고 책을 기증하는 행복도서관 사업을 '좋은세상만들기'와 함께 진행했다. 경기도 연천초등학교 고문분교에 문을 연 행복도서관 1호점을 시작으로, 분교가 없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역에 행복도서관을 건립했다.
또한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직원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지역별로 신청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학교를 방문해 책장을 조립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 도서관 개조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8개 공립고와 1사 1교 결연을 맺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 1사 1교 운동 지원

SK는 2007년 9월, 공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공립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사 1교 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원금은 우수 교사의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등 공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별로 필요한 영역에 사용된다. SK는 2009년까지 3년 동안 8개 학교에 총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EBS '장학퀴즈'에 스마트 학생복과 문화상품권을 기부하고 있다.

SK네트웍스

● EBS '장학퀴즈' 후원

SK네트웍스는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에 스마트 학생복과 문화상품권을 기부하고 있다.

● 소년소녀가장 후원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호남본부는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관할 광주·목포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본부 임직원과 지역 주유소 운영인들의 성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SKC

● 조선일보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 참가

SKC 최신원 회장은 5월 9일 SKC수원공장 인근에 있는 수원 동신초등학교에 50인치 PDP TV를 전달했다. SKC는 조선일보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수원지역 80개 초등학교 등 총 114개 학교에 PDP TV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일보와 한국교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16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은 전국 1만여 일선 초·중·고교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 아래 시작된 운동으로 기업·사회단체·개인이 주변의 가까운 곳이나 연고가 있는 초·중·고교를 선택해 학교가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다.

●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SKC 울산공장은 12월 13일 '2007 SKC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SKC 울산공장은 2005년부터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모범청소년 20명을 추천받아 매년 12월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SKC 울산공장은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천한 모범청소년 20명에게 매년 12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SK C&C

● 성남지역 청소년 행복장학금 전달

SK C&C는 2월 13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남지역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정철길 경영지원부문장,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구 회장은 총 46명의 학생에게 총 4,600만원의 장학금과 23명의 신입생에게 교복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가정환경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로, 성남시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SK C&C는 지난 2005년부터 총 96명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4회 저소득층 자녀 무료 IT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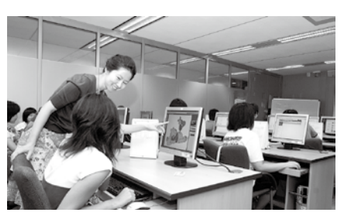
SK C&C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성남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분당 SK C&C 사옥에 초청하여 무료 IT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4번째를 맞은 무료 IT 교육은 SK C&C가 추진 중인 'IT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정보화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IT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SK C&C가 행복장학금과 교복을 전달한 성남지역 중·고교생들과 SK그룹이 지원하는 성남 1318 해피존 학생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80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포토샵 과정'과 '워드 2급 자격증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 '미리 보는 유비쿼터스 세상' IT 특강

SK C&C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의 IT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현고 등 경기도 성남시 일대 고교 10곳에서 '미리 보는 유비쿼터스 세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SK C&C 직



SK C&C는 성남시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한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행복장학금을 전달했다.


SK C&C는 성남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분당 사옥으로 초청하여 IT 교육을 실시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특강을 열어 미래 IT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SK C&C는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을 위해 건강테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원들로 구성된 강사들은 현재 수행 중인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신도시) 동영상물과 가상현실 분야의 u-패션 등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교통·쇼핑 등 미래 생활 장면을 소개하는 등 '생활 속의 IT'를 조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정신지체 청소년 서비스 교육

SK C&C는 성모자애복지관 정신지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나모 봉사단 중심의 이 활동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청소년들이 실제로 커피·차 등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실전처럼 금전 계산 등을 해 봄으로써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저소득층 공부방 아동 건강테마 프로그램 지원

SK C&C는 방임되고 있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1년간 새날복지회와 함께 건강테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통놀이, 스케이트, 찜질방 체험, 남한산성 등반, 여름방학 농촌체험 등 매월 다양한 건강테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SK C&C는 이후에도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SK C&C는 장애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삼육재활관 주관으로 선정된 장애아동은 매월 4회씩 다양한 내용의 사회성 향상 교육 및 훈련실습을 실시했으며 SK C&C 인프라본부에서는 매월 2회씩 훈련실습을 직접 돕는 봉사도 병행했다.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청소년 및 관계기관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아동 교육 지원

SK C&C는 2004년부터 한빛재단·한빛맹아원의 시각장애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사회적응훈련 및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각 기자재 후원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장애청소년 산업현장교육

SK C&C는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하여 사랑의학교와 함께 다양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월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 이 교육은 문화체험·농촌체험을 비롯하여 천연비누 및 공예품 제작·판매를 통해 실질적 자립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1+3세대 프로그램

SK C&C는 동방사회복지회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과 공동으로 1+3세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3세대 프로그램은 독거어르신과 봉사자,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이 결연을 맺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결손가정 아동 및 독거노인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가족의 정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뇌병변 장애청소년 재활체육교육 지원

SK C&C는 주몽재활원의 뇌병변 장애청소년의 재활체육교육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거동이 쉽지 않아 운동량이 적은 뇌병변 장애청소년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SK건설

● 어린이 교통안전캠프

SK건설 안전환경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통안전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캠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교육 내용은 시청각 교육을 활용한 실내 이론교육, 10가지 사고예방 실습교육 및 모터카를 활용한 안전운전방법 교육, 교통안전 레크리에이션 및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시간이 소요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을 체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10가지 사고예방 실습교육과, 모터카를 직접 타면서 안전벨트 착용법과 안전운전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 등은 아이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

SK건설은 2006년 4월 '안전환경 봉사단' 출범 후, 본사와 현장 인근지역에서 품질안전본부 주관으로 안전환경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 환경사랑 체험교육

어린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생태 체험기행(갯벌탐사)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커뮤니티 공헌활동.

- 어린이 안전 체험관교육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교통·소방·가정 등) 예방교육활동.

-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인근 초등학생 및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풍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실시하는 안전교육활동.



SK건설 안전환경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통안전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SK건설 안전환경 봉사단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환경생태 체험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SK건설 안전환경 봉사단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소방 등의 예방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해운은 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SK해운 자원봉사단은 매주 두 차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SK해운

●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 실시

SK해운은 해운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수상구조대는 긴급재난구조, 해양·하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소년단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07년 5월 2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SK해운과 함께하는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장애우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광진학교, 정문학교, 울타리공동체의 장애우 및 SK해운 자원봉사단, 고등학교 자원봉사단 등 1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고무보트, 카누, 바이킹보트, 고래보트, 페달보트 등의 다채로운 수상활동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저소득 지역 공부방 학습지도

SK해운 자원봉사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교실 '어린이 사랑방'은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공부방으로, SK해운 자원봉사단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날리기, 무술공연, 에버랜드 나들이, 해양캠프 참가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해양소년단 총재 찬조금 지원

SK해운 이정화 사장은 우리의 풍부한 해양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 '한국해양소년단'의 총재로서, 단원들이 바다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찬조금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소년한국일보 지원

SK해운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읽을거리가 부족한 거제도 마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년한국일보를 지원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매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SK해운 이정화 사장은 한국해양소년단의 총재로서 우리의 해양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SK증권

● 청소년 경제교실

SK증권은 2006년부터 금융회사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청소년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제관념을 심어 줄 수 있는 소비·저축·신용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2007년 SK증권의 각 봉사팀은 지역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원생, 도서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청소년 경제교실을 연 10회 실시하였다. 한편 김우평 사장은 6월 10일 초·중등 학생을 여의도 본사로 초청, '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열었다.



SK증권 김우평 사장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여의도 본사로 초청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SK해운 벌크선 1팀
손성훈 대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손성훈 대리는 한 달에 두 번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을 방문한다. 이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인 초등학교 3~6학년들의 학습지도를 위해서다. 2004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명 정도였던 학습봉사단체 회원이 지금은 20명 가까이 늘었다.

봉사단 회원들은 2~3명씩 조를 이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부방을 방문, 2시간 동안 수학과 영어를 가르친다. 회원 1인당 평균 방문 횟수는 한 달에 두 번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 가능하면 기초뿐만 아니라 학습 전반에 걸쳐 신경을 쓰고 있다. 초등학생 학습지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학습지도 이전에 아이들과의 서먹서먹함을 푸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엔 아이들이 마음도 열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게임 등을 하면서 같이 많이 놀았지요.(웃음) 지금은 거의 친구처럼 지내며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아이들이 반겨 주니 기분 좋고 학업 성적이 올라서 기분 좋으니, 마음이 두 배로 흐뭇합니다."

손 대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학습지도의 중요성은 지속성과 관심.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아이들인지라 금세 실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SK증권 상품기획팀
조우미 사원

현명한 경제습관은 어릴 때부터!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에는 매 분기마다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SK증권이 남산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청소년 경제교실'이 그것.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실을 여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제교실은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5~6시간, 주말엔 8시간 정도 진행한다. 매 교육 때마다 20~25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며, SK증권의 봉사단 15~20명이 이들과 함께한다. 조우미 사원도 그 중 한 사람. 지금까지 청소년 경제교실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대개 저축의 필요성, 돈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경제관 등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현명한 경제 습관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웃음)"

5~8시간 동안 경제교실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피자 파티, 놀이공원 및 63빌딩 관람, 시내 관광 등이 단골메뉴이다. 얼핏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을 터. 하지만 그에 대한 조우미 사원의 대답이 경쾌하다.

"아이들이 회사로 전화해 '언제 오냐'면서 저를 북돋아 주는데 힘들 이유가 있을까요?"



워커힐은 2007년 9월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매주 1회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워커힐

● 저소득 가정 아동에 영어 지도

워커힐은 2007년 9월부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 활동에는 W호텔 사업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은 매주 1회 수요일에 진행된다. 워커힐은 앞으로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 및 호텔리어 직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SK E&S

● 부산도시가스 – 장학금 모금 및 지원

부산도시가스 공무팀원 28명은 매월 1만원씩 모금하여 부산 예문여고 학생에게 분기별로 75만원의 장학금과 학비·식비·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과의 지속적인 통화로 학생에 대한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다.

SK가스

● 소년소녀가장 후원

SK가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녀소녀가장들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SK가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과 평택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역별로 15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여 1인당 매월 쌀 20kg과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학 진학시에는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 결식아동 후원

SK가스와 자매결연을 맺은 울산 선암초등학교, 평택 원정초등학교 결식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매월 쌀 20kg과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학교 입학시 교복을 지원한다. 자매결연을 맺은 2개 초등학교에는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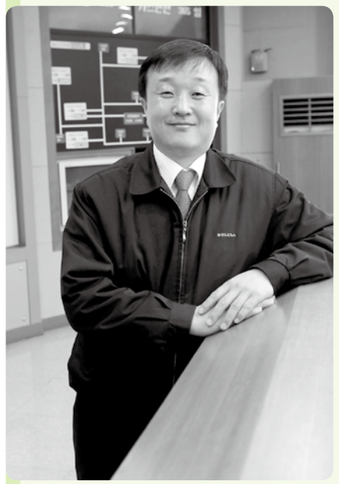


SK가스는 울산·평택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쌀과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K가스는 울산 선암초등학교 및 평택 원정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SK E&S 부산도시가스 공무팀
최재화 사원



보이지 않게 사랑을 주는 일의 즐거움

아버지의 사업 부도, 풍비박산된 집안, 도피 중인 아버지, 어머니 · 남동생과 함께 삼촌댁에 얹혀사는 현실.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일구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화 사원이 소속돼 있는 SK E&S 부산도시가스 공무팀 28명은 부산 예문여고 한 학생의 딱한 소식을 접하고 이 학생에게 2007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팀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1만원씩을 떼어 석 달에 한 번씩 7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공납금 · 식비 · 학용품비 등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재화 사원을 비롯한 공무팀 어느 누구도 이 학생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 사춘기 학생이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자존심이 상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무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이 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한데, 한 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저기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한 학생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하면 또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SK가스 평택기지
김영민 선임대리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의 기준으로!

김영민 선임대리는 4년 전 어린이날을 잊지 못한다. 평택 인근의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25명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에버랜드에 데려갔다가 낭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슬리퍼를 신고 온 아이, 겨울옷을 입고 온 아이들을 보며 뭔가 잘못 됐다 싶었어요. 특히 부모와 함께 온 또래친구들을 보며 잔뜩 풀이 죽더군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이 속해 있는 봉사동호회와 낚시동호회가 연합한 활동. 두 동호회가 합치면 그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다음해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기로 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색깔·사이즈 등을 파악했다. 그렇게 준비한 새신발을 신고 아이들은 오전엔 평택호(湖)와 미술전시관을 돌고, 오후에는 낚시동호회가 보유하고 있는 배를 이용하여 낚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정도로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 이후로 아이들 선물은 체육복·레고 등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맞추는 한편 낚시체험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서서히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웃음이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어 버린 것.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우리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보존 부문

깨끗한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의 자산입니다.
SK는 지역사회의 푸른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
충남 연기군에 장례문화센터 건립
2008 람사총회 홍보를 위한 친환경 국토 대장정 행사 지원
제15회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환경 위해 매출액의 일부 기부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서울숲 자원봉사

SK텔레콤
그린맵 대장정 2007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SK네트웍스
태안반도 기름 제거 활동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관악산 환경정화활동
남산 한옥마을 환경정화활동
삼청공원 환경정화활동
계룡산 환경정화활동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I love clean 강남
양재천 환경지킴이 활동

SKC
최신원 회장, 2007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수상
1사 1산 1하천 운동
국립현충원 환경정화활동
유관순 열사 사적지 환경정화활동
태화강 살리기
1사 1하천 운동
한강 잠원지구 환경정화활동
서호천 환경정화활동

SK C&C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푸른숲 체험활동

SK건설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
문화재(고궁) 지킴이 활동
글로벌 인턴, 경복궁 환경정화활동
행복마을 나무심기 행사
1산 1천 1로 가꾸기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SK해운
태안 해안방제 자원봉사
울산지역 바다정화활동

워커힐
아차산 유적지 환경개선활동
아차산 자연사랑 캠페인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지원

SK가스
긴급구호활동



SK에너지는 12월 신현철 부회장과 김준호 CMS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태안군 모항에서 방제작업을 벌였다.



SK에너지는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 연기군에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에 참여하여 울산 주변의 공원과 숲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SK에너지 아우름 봉사팀은 서울숲의 일정 구역을 관리하는 구역 정원사로 매월 2회 서울숲을 찾고 있다.

SK에너지

●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

SK에너지 임직원 740여 명은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태안군 모항에서 방제작업 자원봉사를 펼쳤다. 신현철 부회장, 김준호 CMS 사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층과 SK에너지의 관계사·협력회사 및 임직원 가족들도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 충남 연기군에 장례문화센터 건립

SK에너지는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유도하고, 미래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장례문화센터를 건립, 무상 기증하기로 했다. 장례문화센터는 SK텔레콤과 함께 총 500억원을 투자해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07년 12월 초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추모탑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 2008 람사총회 홍보를 위한 친환경 국토 대장정 행사 지원

SK에너지는 '2008 람사총회' 홍보를 위한 '친환경 국토대장정' 행사를 후원했다. 람사총회는 전 세계적인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방지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1975년 발효된 협약으로, 2007년 3월 현재 154개국이 가입해 있다.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총회가 열린다.

● 제15회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SK에너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에서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2007년 15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최대 환경 글짓기 공모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환경의 날(6월 5일) 공식행사로 적극 활용하는 등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환경 위해 매출액의 일부 기부

'만분클럽'은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일'을 기부하는 기금 모금 프로그램이다. SK에너지는 2004년부터 만분클럽에 가입하여 환경재단의 사회·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SK에너지는 4월 26일 울산생명의숲과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의 숲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에너지 파워봉사팀과 행복봉사팀이 참여해 울산시 남구 선암수변공원과 와와공원에 나무 이름표와 숲 해설판을 부착했으며, 울산대공원과 울산역광장, 울산시 남구청에 낙엽퇴비장을 설치하는 등 인근 공원의 숲을 살리고 공원을 가꾸는 데 앞장섰다.

● 서울숲 자원봉사

SK에너지 아우름 봉사팀은 5월 30일 서울숲을 찾아 계절별 묘목 심기와 잡초 제거,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서울숲의 1일 정원사가 되어 숲 가꾸기에 앞장섰다. SK에너지는 서울숲에서 최초로 일정 구역을 책임 관리하는 구역 정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월 2회 구성원들이 서울숲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SK텔레콤

● 그린맵 대장정 2007

'그린맵 대장정'은 SK텔레콤과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전국 해안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폐기물 정화활동,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자연환경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해양환경 캠페인이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60명, 환경전문가와 진행요원 20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이 2007년 8월 1일부터 9박 10일간 서해·남해·동해의 해양보호구역을 다니며 해안 폐기물 정화활동을 펼쳤다.

●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연간 1,500~1,600만대 이상의 폐휴대폰이 발생하지만 2006년 수거된 휴대폰은 7만~8만대에 그쳤다. 수거되지 않은 휴대폰은 가정의 장롱·서랍에 보관되거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SK텔레콤은 2007년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여 휴대폰은 반드시 재활용되거나 자진 폐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켰다.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1차적으로 2007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경기·6개 광역시 초·중학교 4,00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1,400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본체 13만대를 포함, 배터리·충전기 등 총 30만대를 수거하여 역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중 최고 수량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

● 태안반도 기름 제거 활동

SK네트웍스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한 태안반도 모항항에서 기름띠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는 부산 대천공원과 성지곡 수원지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 관악산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과 강남지사 임직원들은 관악산 등산로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등 관악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남산 한옥마을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신규프로젝트 TFT 구성원 15명은 6월 9일 남산 한옥마을에서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기술연구소 연구1팀 구성원들도 남산 한옥마을에서 나무 옮겨심기, 미관 해치는 바위 옮기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삼청공원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 임직원 10명은 12월 5일 삼청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Sunny 60명, 환경전문가와 진행요원 20명이 2007 그린맵 대장정에 참가하여 해안 폐기물 정화활동을 펼쳤다.



환경폐해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으로, 본체 13만대를 포함 총 30만대를 수거했다.



SK네트웍스는 태안 방제작업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강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했다.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과 강남지사 임직원들은 관악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신규프로젝트 TFT 구성원들은 남산 한옥마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 임직원들은 12월 5일 삼청공원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했다.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7월과 11월 계룡산 주요 등산로의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계룡산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7월 21일과 11월 17일 계룡산 국립공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계룡산 입구에서 남매탑까지 주요 등산로 구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계룡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부산경남본부 임직원 37명은 10월 11일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I love clean 강남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스피드메이트 봉사단은 'I love clean 강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인근의 거리와 공원에서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양재천 환경지킴이 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은 강남구 및 서초구 시민들의 중요한 쉼터인 양재천과 탄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고 생태계에 유해한 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SKC

● 최신원 회장, 2007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수상

SKC 최신원 회장은 10월 16일 대한민국친환경추진위원회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7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에서 생분해필름 등 친환경 소재 개발과 고농도 폐수 미생물 처리 등의 차별화된 환경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친환경 화학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 1사 1산 1하천 운동

SKC는 자연과 문화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1개의 회사가 해당 지역의 산과 하천 1개씩을 정해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1사 1산 1하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공장은 광교산·만석공원·수원화성·이목천을 관리하고, 울산공장은 태화강, 진천공장은 대둔산·진고개, 천안공장은 광덕산·태조산·성거산·천흥저수지를 관리한다. 이 환경정화활동에는 연 50여 회, 2,3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연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본사의 경우 한강 정화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다.

● 국립현충원 환경정화활동

SKC 본사 임직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국립현충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비 덧글 쓰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호국영령 묘역의 묘비 닦기, 화병 바로 세우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5월에는 임직원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묘역 내의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SKC는 1개의 회사가 인근지역의 산과 하천 1개씩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1사 1산 1하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SKC 본사 임직원들은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현충원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SKC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에서 본사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비 닦기, 잡초 뽑기, 조화 교체 등의 묘역 가꾸기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유관순 열사 사적지 환경정화활동

SKC 천안공장 임직원 80여 명은 6월 현충의 달을 맞이하여 천안지역의 대표적 현충시설인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화단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태화강 살리기

SKC 울산공장은 5년 전부터 매월 1~2회 태화강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태화강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겨울철에 메말라 있는 건초를 치우는 한편, 2006년에는 수해로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쌓인 부유물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울산공장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태화강 민물 어류전시회를 주관하는 등 태화강 살리기에 앞장선 공로로 2004년 '1사 1하천 살리기' 우수 기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환경 표창'을 받아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1사 1하천 운동

SKC 천안공장은 1사 1하천 운동의 일환으로 4월 12일 임직원 100명이 천안 천흥저수지에서 수청교까지 약 3km 구간, 성거초등학교에서 수청교까지 약 2km 구간의 하천과 도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약 10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SKC 천안공장은 정기적으로 천흥저수지·태조산 등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천안의 자연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한강 잠원지구 환경정화활동

SKC 본사 직원 10여 명은 5월 25일 한강 잠원지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잠원지구 내 담배꽁초·쓰레기 등의 수거 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SKC 울산공장은 정기적으로 태화강 환경정화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SKC 본사 임직원들은 한강 잠원지구의 담배꽁초·쓰레기 등의 수거 활동으로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태화강 지킴이의 어떤 자부심

SKC 울산공장 안전환경팀
김종만 사원



SKC 울산공장은 '1사 1하천 운동'의 일환으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면 안전환경팀 15명의 직원들은 태화강 번영교 밑에서 삼화골든빌라 앞까지 약 900m에 걸쳐 쓰레기 줍기·제초작업 등을 한다.

"우리 강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보람이 큽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환경보존을 위해 SKC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KC 울산공장의 노력에 힘입어 태화강은 한층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되살아나 울산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 태화강 정화운동으로 2004년 SKC 울산공장은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실천 우수단체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2003년부터 태화강 지킴이로 나선 울산공장의 봉사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 또한 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두 시간씩 하던 정화활동을 2006년부터는 네 시간으로 확대해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 또 정화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활동에 더하여 나무심기 · 화단조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한때 태화강은 깨끗하지 못한 물로 몸살을 앓았어요. 하지만 울산시와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 지금은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부터는 시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할 정도로요. SKC 울산공장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 서호천 환경정화활동

SKC 수원공장 생산1팀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7월 12일 서호천 자연환경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선화교부터 동남교 구간 약 1km의 구간에서 장마에 쓸려 내려온 각종 생활쓰레기 제거와 산책로 주변의 잡초 제거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매월 수시로 서호천 교반 작업, 이끼 제거 작업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미꾸라지·붕어 등의 어종을 방생하여 서호천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매년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는 수원공장 한마음 봉사단도 3월 23일 물의 날을 맞아 서호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SK C&C 통신사업본부는 태안 주민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기름제거 활동으로 송년회를 대신했다.



SK C&C 더불어 봉사단은 장애아동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푸른숲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 C&C

●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SK C&C 통신사업본부장 이수영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95명은 12월 20일 충남 태안의 모항리를 방문해 기름과 지난한 싸움을 벌이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및 태안 주민들의 인간띠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례적인 송년회 대신 최악의 원유 유출 사태로 신음하는 태안 주민들의 슬픔을 함께 극복하는 송년회를 열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통신사업본부 외에도 시스템사업팀, CS사업팀 등 총 4개팀이 사전에 준비해 간 흡착포 등으로 태안 바닷가의 바위와 자갈 등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연말을 보냈다.

● 푸른숲 체험활동

SK C&C '더불어' 봉사단은 매월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장애아동과 함께 푸른숲 체험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장애아동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키워 주기 위해 시작한 활동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린 자연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을 체험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도록, 매월 조금씩 코스가 어려운 산으로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가며 등산활동을 실시하였다.

SK C&C 시스템사업팀
곽상혁 대리

술잔 대신 흡착포를 든 뜻 깊은 송년행사



곽상혁 대리는 2007년 아주 특별한 송년행사를 가졌다. 송년회 하면 으레 술자리를 떠올리게 되지만 곽 대리가 소속된 통신사업본부는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태안을 살리기 위한 자원봉사로 대신했다. 12월 21일, 통신사업본부 95명은 방제복·장갑·흡착포 등을 가득 실은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아침 7시에 출발, 충남 태안반도 모항리에 10시에 도착해 오후 4시까지 타르 덩어리와 씨름했다.

"통신사업본부장님의 제안으로 술잔 대신 흡착포를 드는 자원봉사를 했지만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냄새도 아주 심했고요."

곽 대리를 비롯한 통신사업본부 임직원들은 바닷가 바위와 자갈에 덕지덕지 엉겨 붙은 타르와 하루 종일 씨름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 힘이 들었지만 시름에 잠긴 태안 주민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갯벌인 태안이 그토록 오염된 것에 맘이 아팠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이 인간에 의해 망가진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인간의 힘으로 복구시켜야죠. 개인적으로는 몇 년 후에 우리 가족이 놀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깨끗이 닦자는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힘들기는커녕 보람이 컸습니다."

SK건설

●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

SK건설 자원봉사단은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서울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는 SK건설 임직원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울숲 내 시민의 숲에 조성된 소나무·신갈나무 등의 주변 잡초뿌리를 제거하고 비료를 뿌렸다. 특히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나무의 목질 부분을 잘게 부순 우드칩을 뿌려 나무의 생장을 도왔다. 봉사단들은 봉사활동 이후 즉석카메라로 이날 촬영한 가족사진을 나뭇잎 등 서울숲의 자연물을 이용해 꾸미는 '자연물 액자 제작'에도 참가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문화재(고궁) 지킴이 활동

SK건설 자원봉사단은 창덕궁·덕수궁을 격주로 방문하여 잡초 제거, 고건물 및 주변 청소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에는 임직원과 가족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덕수궁에서 잔디밭 낙엽 수거, 잡초 제거 등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고건물 창호 외부 먼지를 터는 등 고건물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다.
또 화공플랜트부문 배관팀 임직원들도 9월 15일 창덕궁에서 협력회사 직원 및 가족 60여 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160여 명의 임직원들이 6개조로 나뉘어 돈화문 배수로 모래 준설작업, 외곽도로 잡풀 제거, 구선원 주변 환경정리, 배수로 오물 제거, 규장각 주변 환경정리, 관람로변 보토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글로벌 인턴, 경복궁 환경정화활동

SK건설의 글로벌 인턴사원들이 2월 15일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경복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는 2007년 1월 채용된 중국·베트남·이스라엘·뉴질랜드·호주·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SK건설의 글로벌 인턴사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잔디밭 돌멩이 줍기,



SK건설 자원봉사단은 서울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를 갖고 나무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활동을 펼쳤다.



SK건설 자원봉사단은 창덕궁과 덕수궁 등 문화재 주변환경을 정리함으로써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SK건설 글로벌 인턴사원들은 경복궁에서 잔디밭 돌멩이 줍기, 잡초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SK건설 프로젝트 지원팀
박기홍 과장

나무와 가족의 공통점



결혼하고 7년은 주말부부로, 최근 4년은 빈번한 출장업무로 가족들과 정겨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내내 아쉬웠던 박기홍 과장에게 2007년 11월 10일은 뜻 깊은 하루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사랑 행사'에 아내와 2남 1녀의 자녀들과 함께 참가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봉사의 즐거움까지 깨우쳤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서울숲 봉사활동에 참가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박 과장과 가족들이 한 일은 서울숲의 나무들이 겨울나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낯선 호미질과 삽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나무 밑의 잡초들을 제거한 다음 흙으로 돋워 주고 큰 가마니에 우드칩을 삽으로 가득 담아 나무 밑까지 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무 주변의 흙이 얼지 않도록 우드칩을 골고루 펴서 두둑이 깔고 흙과 함께 잘 다져질 수 있게 꼭꼭 밟기까지 해야 했다. 그날 김 과장의 몸에 남은 건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아이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준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가족도 나무처럼 아껴 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K건설 임업부문은 충주사업소 인근 도덕마을에 단풍나무·철쭉·잔디 등을 심는 '행복마을 나무심기'를 전개했다.


SK건설은 현장 인근의 산·하천·가로 중에서 1개 장소를 선정하여 1사 1천 1로 가꾸기를 전개하고 있다.


SK건설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에 건설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구활동을 펼쳤다.


SK해운 임직원들은 기름유출로 오염된 태안군 일대 해안가를 찾아가 방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K해운 울산사무소는 5월 바다의 날 기념 대청소에 참여하여 장생포 해양공원 정화활동을 벌였다.


워커힐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유용종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가하여 아차산 유적지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낙엽 수거, 잡초 제거 등 경복궁 경내를 정리하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행복마을 나무심기 행사

SK건설 임업부문은 4월 21일 충주사업소 인근 도덕마을에서 '행복마을 나무심기' 활동을 펼쳤다. 임업부문 임직원 15명과 지역주민 약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입구 동산에 단풍나무·철쭉·잔디 등을 심어 조경을 가꾸었다.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에 위치한 도덕마을은 2004년 10월 SK건설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매년 식목 행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기타 지원활동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 1산 1천 1로 가꾸기

SK건설 품질안전본부에서는 안전환경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은 자연환경보호 실천 및 친환경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이다. 전국 각 지방 현장에서 현장 인근 산·하천·가로 중에서 1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SK건설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에 건설 중장비를 지원하는 등 복구활동을 펼쳤다. 40여 대의 15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동원하여 침수 가옥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임시 야적장에서 정규 매립지로 쓰레기를 옮기는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SK건설은 2006년에도 수해를 입은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에게 수해구호물품 200박스를 기증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매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적극적인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SK해운

● 태안 해안방제 자원봉사

SK해운 임직원 33명은 선주협회가 주최한 해운업계 방제자원봉사단과 함께 12월 17일과 18일 1박 2일간 충남 태안군 일대 해안가를 찾아가서 서해안 기름제거 공동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2008년에도 SK해운은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조직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울산지역 바다정화활동

SK해운 울산사무소는 5월 31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주최한 '바다의 날 기념 대청소'에 참가하여 장생포 해양공원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워커힐

● 아차산 유적지 환경개선활동

워커힐은 2007년 4월 8일 창립 44주년을 기념하여 4월 6일 창립 기념식과 함께 아차산 유적지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개선활동에는 유용종 사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아차산 등산로 및 유적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아차산의 유적지와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아차산 자연사랑 캠페인

워커힐은 9월 14일 NGO 기아대책과 지역사회 주민·협력업체와 함께 '아차산 자연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차산 생태공원의 나비정원에서 나비 700여 마리를 방생하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이날 워커힐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나비 방생 외에도 아차산 생태공원에 산초나무를 식수하고 아차산 등산로를 따라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활동을 벌였다. 워커힐은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연 3~4회 아차산 쓰레기 수거 및 유적지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나무뿌리 복토 작업 등 자연 되살리기 운동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보호 캠페인 등 지역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지원

2008년 1월 9일 태안 기름유출사고현장에 CEO 및 임직원 8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가하였고, 외식사업본부(인천 공항) 및 호텔사업본부는 폐린넨류 3,000점을 기증하였다. 또한 외식사업본부 영업장별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협력회사와 함께 태안 봉사활동을 벌였다.

SK가스

● 긴급구호활동

SK가스는 2007년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가스온수기 70대를 지원하고 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방제작업을 돕기 위해 12월에 2차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워커힐은 기아대책, 지역사회, 협력업체와 함께 아차산 생태공원에서 나비를 방생하는 행사를 열었다.


워커힐 임직원 80여 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폐린넨류 3,000점을 기증했다.



SK가스는 태풍 나리의 피해지역인 제주도에 가스온수기 70대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차산이 아름다워지는 까닭

워커힐 총무팀
서태수 부장



서태수 부장은 호텔 내에서 봉사부문 '브레인'으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워커힐이 모범적인 사회공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소외계층 지원, 교육·장학사업, 환경보존, 문화예술 공연 등 워커힐의 사회공헌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특성상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 업무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적극적인 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서 부장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보존. 지난 2003년 호텔 내 봉사단체로 '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발족한 서 부장은 광진구민들의 쉼터이자 자긍심인 아차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세 차례(봄·여름·가을) 아차산을 찾아 등산로 및 유적지의 쓰레기 줍기, 산책로를 친환경 목재로 교체한 것을 비롯하여 나비 방생, 철새 모이통 달기 등 생태계 전반까지 아우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차산은 광진구민들이 가장 즐겨 찾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업장이 광진구에 있는 만큼 아차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보다 아름다운 아차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죠."

문화·예술·체육 부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지원에 SK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 문화를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울산대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육성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 운영
여수엑스포 유치 지원
제12회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개최
장애아동 연주단 초청 '작은 음악회' 개최
뷰티풀 콘서트 후원
제3회 국회 동심 한마당 행사 후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SK 행복문화제 개최
문화단체 자매결연으로 지역문화 살리기
지역사회 메세나운동 선도기업으로 지정

SK텔레콤
2007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Sunny 프로젝트 아이
문화독립기행

SKC
제29회 3·1절 기념 봉화제 참가
문화유산 보존활동

SK C&C
시각장애인 한빛음악회
치매노인 예술치료 지원
미혼모 장애아동 문화공연 관람 지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전통탈 만들기

SK해운
2007 어린이 해양캠프

워커힐
워커힐 민속공연

SK가스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후원

SK에너지





SK에너지는 울산대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육성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실천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울산대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육성

연간 단위로 기획·시행되는 울산대공원 문화육성 프로젝트는 2007년의 경우 5월의 장미계곡에서 펼쳐진 화려한 장미축제로 시작됐다. 20만 관객의 열기 속에 열린 장미축제는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적인 레이저쇼로 개막, 8일 동안 다채로운 콘서트와 체험행사로 연인들의 밤을 사랑으로 물들였으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애인 부부의 늦었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은 모두의 가슴을 행복과 나눔으로 채워 주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열린 한여름 밤의 자연과학축제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더위를 피해 짧은 밤 시간대에 진행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입구가 장사진을 이룰 만큼 높은 호응 속에 아이들은 관내 각급학교의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과학자원봉사단과 함께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을 맞은 울산대공원의 축제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의 소풍기간임을 감안해 청소년축제로 이어졌으며, 청소년 문화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 있던 지역 각급학교들의 적극적 재청으로 2008년에는 더욱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될 예정이다.

공원의 비수기인 겨울을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절로 바꿔 놓은 'Happy X-MAS & Happy New Year' 등불축제는 울산대공원 '풍요의 못' 주변과 풍차를 110만 개의 은하수 조명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빛의 축제로서, 사진작가들이 손을 꼽아 기다리는 유명한 행사로 성장하여 수많은 인터넷 블로그와 지역민방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되는 유명세를 누렸다.

계절별 축제 외에도 울산대공원 내 상설시설인 해피갤러리를 문화예술인에게 무료 대관하고 기획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숲속공작교실에서 열리는 공작교실 체험 프로그램은 울산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이루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된 SK에너지의 울산대공원 문화육성 프로젝트는 개장 2년차의 울산대공원을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500만 명의 기록적인 방문객이 찾는 전국적 명소로 만들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교육단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SK에너지는 회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례인 울산대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공원으로 중점 육성하여 무상 기부자로서의 지속적 명예유지 및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실천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제주 최초의 프로스포츠단인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 운영

SK에너지는 제주 최초의 프로스포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단은 1983년 유공코끼리축구단(전신)으로 출범했으며, 2006년 2월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여 프로축구 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한층 수준 높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전용구장을 갖춘 유소년클럽을 운영하고 지역 출신 유망주를 발굴·지원하는 등 제주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여수엑스포 유치 지원

SK에너지는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엑스포 유치 기금 및 세계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문화행사(파리), BIE 총회 참가를 위한 유치위원회 전세기 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파리에 유치단을 파견해 마지막까지 유치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헌철 부회장은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최지 결정 직전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및 관계자와 접촉을 계속하며 여수엑스포 개최 결정을 도왔다.

● 제12회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개최

국내 여자골프 최대 메이저대회로 꼽히는 제12회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Invitational)'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비에도 아랑곳 않는 여자 선수들의 투혼에 갤러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지애 프로가 우승을 차지하여 1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신지애는 2005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하여 한국 여자골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신지애와 우승을 다투며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SK에너지 소속 홍진주 역시 2006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선수로 떠올랐다.

199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여자골퍼의 기량 향상과 국내 골프계의 발전에 기여해 온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여자골프대회는 새로운 선수 배출은 물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는 1996년 제1회 대회 이후 여자골퍼의 기량 향상과 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장애아동 연주단 초청 '작은 음악회' 개최

SK에너지는 4월 18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장애아동이 펼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20일)을 기념하는 한편 장애아동과 임직원 간에 문화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한빛맹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아동으로 구성된 연주단과 합창단 20여 명이 초청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특히 한빛맹학교 소속 시각장애인 밴드인 한빛예술단은 '백도라지', '한오백년' 및 각종 타악 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실력을 선보여 SK임직원을 비롯해 청계천을 방문한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서린동 SK사옥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한빛맹학교의 합창단과 연주단은 임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 뷰티풀 콘서트 후원

SK에너지는 2006년도에 이어 2007년12월 22일 워커힐호텔에서 장애인 연주자, 가족 및 일반 초청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자선음악회 '뷰티풀 콘서트(Beautiful Concert)'를 후원하였다.

● 제3회 국회 동심 한마당 행사 후원

SK에너지는 (사)H_2O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와 화정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국회 동심 한마당' 행사를 후원했다. 5월 12일 국회 본관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편지 쓰기, 민속놀이, 동요 합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SK 행복문화제 개최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대공원 남문 일원에서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SK 행복문화제'를 개최했다. 2회째를 맞은 SK 행복문화제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의 솜씨를 전시·발표하던 'SK취미전'을 울산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시민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2007년에는 사내 동호회와 가족으로 구성된 SK스포츠센터 문화교실, '울산대공원 아티스트' 등 울산지역의 문화예술단체·아름다운 가게 등 지역 사회공헌단체가 함께했으며, '나누는 행복마당', '함께하는 문화마당', '흥겨운 신명마당'의 3개 테마로 나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문화단체 자매결연으로 지역문화 살리기

SK에너지는 울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울산 메세나운동에 참여, 울산대공원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울산대공원 아티스트'의 공연·전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 행복문화제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울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펼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울산 메세나운동 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 지역사회 메세나운동 선도기업으로 지정

SK에너지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울산대공원 아티스트와 자매결연을 맺고 울산대공원에서 2007년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공연을 펼쳤다. 특히 SK에너지가 주최하고 울산 MBC와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토요예술무대'는 울산시민의 큰 호응을 얻어 지역사회 문화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에너지는 울산대공원 해피갤러리를 일반 시민들의 예술작품 전시 장소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SK에너지는 울산시로부터 울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울산 메세나운동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SK텔레콤

● 2007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SK텔레콤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하는 '2007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2007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체육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대표적 장애인 스포츠인 휠체어농구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1997년 '회장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시작된 이 대회는 2002년부터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꾸어 2007년 6회째를 맞았다. 전국에서 12개 장애인 팀과 4개 비장애인 팀을 포함, 총 16개 팀이 출전한 2007년 대회는 예선 리그전을 거친 후, 8강 토너먼트와 순위 결정전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국내 휠체어농구대회 중 유일한 기업 후원대회로서 회장기배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의 휠체어농구대회이다.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장애인체육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Sunny 프로젝트 아이

디지털 문화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2006년에는 새터민(탈북자) 아동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07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외지역 아동들이 문화적 경험을 나누며 긍정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도왔다.

SK텔레콤은 디지털카메라·캠코더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상작품 전시회는 물론 향후 해외 작품 출전,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아이 참여 청소년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만든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문화독립기행

SK텔레콤과 (사)한국문화표현단이 함께하는 '문화독립기행'이 2007년 8월 8일, 서울 경복궁에서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이 3회째 후원하고 있는 '문화독립기행'은 한국인 대학생들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함께 전국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며 직접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행에 참가한 45명의 학생들은 8박 9일간 경복궁과 전북 전주 한옥마을 방문을 비롯해 전남 진도 국악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며, 한국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배워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문화독립기행을 통해 한국인 대학생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들은 문화유적지를 돌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SKC

● 제29회 3·1절 기념 봉화제 참가

현충시설 보호와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KC 천안공장은 2월 28일 임직원 100여 명이 3·1절 기념행사로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3·1절 기념 봉화제에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는 3·1절 기념식 및 병천 아우네 장터까지 약 1km 구간을 횃불을 들고 3·1 만세 운동을 재연하는 행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문화유산 보존활동

SKC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곽과 화성행궁의 환경미화·청소, 화성행궁 수리 등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 C&C

● 시각장애인 한빛음악회

SK C&C 제조서비스사업본부 '아름다운 세상' 봉사단은 2004년부터 매월 시각장애아동시설인 한빛맹아원을 찾아 시각장애아동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한빛 앙상블 연주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동참했다.

세계문화유산 지키는 일,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SKC 수원공장 생산1팀
이세영 사원



SKC 수원공장 생산1팀의 봉사단체 '한울타리'의 코디를 맡고 있는 이세영 사원은 봉사활동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다. 활동 코디를 맡은 탓에 봉사활동 계획 수립, 봉사 전 동료들에게 행사 고지, 코스 선정 등 해야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짜증이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없다. 동양 성곽의 백미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손으로 보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잘 보존된 깨끗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78명이 활동하는 생산1팀의 수원화성 보존 봉사는 보통 월 평균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적게는 15~20명, 많게는 25명 정도가 참여한다. 봉사단원들은 세 시간에 걸쳐 오물과 휴지 등을 줍고 있다. 겨울철에는 쓰레기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쓰레기가 많아 할 일은 배로 늘어난다.

"지저분했던 수원화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산뜻해진 것을 보면 마치 내 몸을 깨끗이 씻은 듯이 기분이 상큼해집니다. 이게 바로 항상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SKC 단체복을 입고 봉사활동을 할 때 시민들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이세영 사원. 수원화성을 정조대왕이 만들었다면 지키는 일은 SKC가 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드문 전문 장애인 연주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라는 벽을 넘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장애인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장애에 대한 일반의 편견과 오해의 벽을 허물어 인식 개선에도 이바지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치매노인 예술치료 지원

SK C&C는 치매어르신 보호시설인 성심의집과 결연을 맺고 치매어르신의 운동능력·인지능력의 유지·향상을 위한 예술치료를 2년 간 지원해 오고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전문강사 및 봉사자와 함께하는 음악치료·미술치료를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재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연 1~2회 치매어르신의 나들이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다.

● 미혼모 장애아동 문화공연 관람 지원

SK C&C는 암사재활원 등 미혼모 장애아동의 문화공연 관람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영화·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통해 장애아동 및 관련 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어르신과 함께하는 전통탈 만들기

SK C&C는 추석을 맞아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생활시설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탈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전통탈 만들기는 옛 전통을 되새긴다는 의미 외에 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행복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SK C&C는 생활시설 어르신들과 전통탈을 만들면서 추석 명절의 온기를 나눴다.

SK해운

● 2007 어린이 해양캠프

SK해운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어린이 50여 명을 초대하여 해양소년단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2007 어린이 해양캠프를 개최했다. 해양소년단이 주관하고 SK해운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2007년 4회째를 맞아 장애학생으로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아동 10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해양활동을 체험했다. 매년 열리는 해양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여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K해운이 주최한 2007 어린이 해양캠프에서 장애아동과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해양활동으로 자신감을 길렀다.

워커힐

● 워커힐 민속공연

워커힐 예능팀은 15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서 수준 높은 민속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개최된 광장동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구리시 동구릉 건원문화제에서 민속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워커힐은 경로잔치를 비롯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서 수준 높은 민속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가스

●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후원

SK가스는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바둑기사 육성과 바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1996년부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을 후원하고 있다. 2007년 12회째를 맞은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은 그 동안 제10기 우승자 백홍석 5단, 이영구 6단을 비롯해 강동윤 7단, 박정상·조한승·이세돌 9단 등 많은 훌륭한 프로 기사들을 배출했다.



SK가스는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을 후원하여 청소년 바둑기사 육성 및 바둑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문화 길어 올리는 희망의 민속공연

워커힐 예능팀
김춘범 과장

"수준 높은 한국 전통 민속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김춘범 과장은 워커힐호텔의 민속예술단이 서울 광진구 및 구리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부채춤 · 사물놀이 등 우리의 전통민속공연 행사를 갖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있다. 특히 공연감독으로서 40년이 넘는 역사와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민속예술단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일조할 수 있어 그 기쁨이 크다.

15년 전부터 광진구의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민속공연'을 펼쳐 온 민속예술단은 2005년부터는 공연 지역과 대상 · 횟수를 늘려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얻고 있다. 광진구의 고구려축제, 어버이날 행사, 장기자랑 등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구리시의 코스모스축제, 동구릉 건원문화제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민속예술단의 몫이다. 민속예술단의 공연은 행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40명의 단원들이 참가, 40분~1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백 명의 관람객이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에 공연을 펼치는 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체감도 키우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은 공연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으니 여러모로 저희가 얻는 것이 많네요."

공연이 끝나면 객석은 텅 비지만 마음만은 더 충만해진다는 김 과장이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속예술단은 2007년 서울시가 주는 봉사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부문

SK는 성숙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더 큰 세상을 향해 '행복나눔'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페루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행복날개가 누비는 전 세계 곳곳에서 SK의 글로벌 사회공헌을 만날 수 있습니다.

SK에너지
중국에 SK우호림 조성
페루 사회공헌활동 및 지진피해 복구 지원
중국 희망공정 지원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SK텔레콤
베트남 사회공헌활동
- IT 교육센터 운영
- 베트남 도서관 지원 사업
  (Thu-Vien SK Telecom: SK텔레콤 문고)
-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 베트남 자원봉사 및 한국학교 지원

몽골 축산시범농장 사업
중국 사회공헌활동
- 희망소학교 건립
- 연변 IT 센터 건립
- 사회공헌 관련 학술대회 참가
- 임직원 해외자원봉사활동

Global Sunny 자원봉사활동
- 베트남 'Green Summer Campaign' 참여 등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 진행

IAVE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

SK네트웍스
중국투자유한공사 양로복리원 봉사활동

SK C&C
재한 몽골 커뮤니티에 PC 기증

SK건설
인도네시아 현장 인근 초등학교 후원
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문화체험 행사
아랍어 번역 한국문학서적 기증

SK해운
연변 제일중학교 장학금 지원

SK가스
중국 사업장 헌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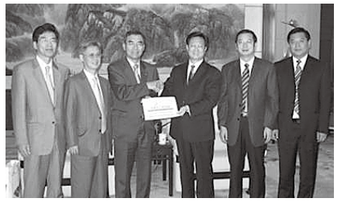




SK에너지는 '한·중 우호 녹색만리장성' 사업을 지원, 중국의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는 SK우호림을 조성했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강진 피해를 입은 페루에 구호성금을 지원했다.



중국의 가난한 농촌지역에 희망소학교를 건립하는 등 중국의 희망공정을 지원하고 있다.

SK에너지는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SK에너지

● 중국에 SK우호림 조성

SK에너지는 중국에 황사 방지용 나무심기운동을 펴고 있는 '한·중 미래숲'을 지원, 중국 사막지역에 2.7km²의 'SK우호림'을 조성했다. SK우호림은 황사 주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한·중 우호 녹색만리장성' 사업의 일환으로 SK에너지와 산림청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총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SK우호림은 국내에 황사 피해를 주는 진원지로 알려진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의 모래 양을 효과적으로 줄여 근본적인 황사 먼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6년에도 몽골지역의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후원했다.

● 페루 사회공헌활동 및 지진피해 복구 지원

SK에너지는 2007년 8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페루의 복구를 돕기 위해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페루는 현지시간으로 8월 15일 페루 리마 남쪽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으로 인해 500여 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3만 3,000여 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SK에너지는 페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호 성금을 지원했으며, 이 성금은 페루 서부 태평양 해안지역에 위치한 이카·피스코·친차 지역에 의약품 및 식량지원 활동에 사용되었다. SK에너지는 2004년부터 생산에 들어간 카미시아 광구를 비롯해 페루 내 총 5개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 페루에서 활발한 석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유 외에 56광구 및 카미시아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이 2010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SK에너지는 2004년 12월 동남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2005년 8월 미국의 카트리나,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등 국제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 중국 희망공정 지원

SK에너지는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소학 6년+초급 중학 3년) 단계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빈곤계층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국 '희망공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빈곤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루무치시·심양시·운남성 등 가난한 농촌지역에 '희망소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를 건립하고 교사를 배치했으며, 2007년에는 호북성에 '희망소학교'를 완공했다

●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SK에너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활성화하는 국제 협약인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하는 행동규범으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99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해 2000년 7월에 출범했다. 2007년 10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듀폰, 로얄더치쉘 등 약 4,700여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SK에너지는 국내 정유업체로는 최초로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다.

SK에너지는 이번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을 통해 세계 속에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 실행해 온 사회적 책임 과제 및 실천 내용들을 한층 체계화하는 한편 UN 글로벌 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일류기업들과의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 베트남 사회공헌활동

- IT 교육센터 운영

2007년 12월, 호치민 12구 꽝쭝지역에 'SK텔레콤 IT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숭실대·SK C&C와 협력하여 'SKT-SSU IT 교육센터'를 오픈했다. 'IT 교육센터'는 베트남 지역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JAVA, UNIX, ORACLE 분야의 전문 IT 교육을 실시하여 베트남 현지 IT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IT 교육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 인력은 한국으로의 IT 분야 대학원 유학 지원, SK텔레콤과 SK그룹의 인턴십 및 취업 지원과 현지 취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베트남 도서관 지원 사업 (Thu-Vien SK Telecom: SK텔레콤 문고)

교육열은 높으나 환경이 열악한 베트남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NGO 단체인 '지구촌나눔운동(Global Civic Sharing)'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전문 도서 및 기자재 지원 등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SK텔레콤 문고'는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장학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006년 9월 호치민 폴리테크닉 대학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호치민 경제대학 도서관, 2007년 1월 하노이 국립도서관 리모델링뿐 아니라 전문 도서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5월 말에는 호치민 시립도서관에 SK텔레콤 문고를 오픈하였다.

2007년 9월 하노이 외상대학 도서관, 10월 하노이 국립대학 도서관 및 하이퐁 시립도서관, 11월 호치민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12월에는 호치민 'SK텔레콤 IT 교육센터' 안에 전문 IT 도서관 등 총 9곳을 오픈, 총 32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Operation Smile)'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베트남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부각된 일명 '언청이'라 불리는 얼굴기형어린이 문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요청 이후, SK텔레콤과 세민얼굴기형돕기회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지원에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다.

SK텔레콤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Smile for Children, 회장 백롱민 박사)와 함께 1996년부터 매년 구순·구개열 등과 같은 안면기형 베트남 어린이를 수술하고 베트남 전국 주요 병원에서 얼굴기형어린이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 및 마취 장비 등을 기증하는 한편, 이에 따른 모든 경비도 지원한다. 또 베트남 의사의 한국연수 지원으로 베트남 성형외과와 마취과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안면기형 환자의 초청 수술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12년 동안 약 2,500여 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새 삶과 밝은 웃음을 선사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원 규모다.

베트남 얼굴기형 돕기 무료시술 현황 총 2,504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하노이	후에	하노이	호치민	하노이	호치민	타이뉘엔	미토	빗칸	하노이	남딘	응에안
193	250	155	251	197	250	240	166	200	200	200	202



2007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에 오픈한 IT 교육센터는 전문 IT 교육을 통해 IT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베트남 주요 대학 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전문 도서·기자재를 지원하는 도서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1996년부터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몽골 축산시범농장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 주민교육,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중국 우루무치시에 희망소학교를 건립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다.


SK텔레콤의 지원으로 설립된 연변 IT센터는 연변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베트남 자원봉사 및 한국학교 지원

2005년부터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학생들과 SK텔레콤 구성원 봉사단은 베트남 자원봉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베트남 호치민 청년동맹(Youth Union)과 연계하여 'Green Summer Campaign'이라는 자원봉사 캠페인에 참여하고, 호치민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 한국 교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녀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노이 한국학교(Korean School) 설립을 지원하고, 2006년 11월 건립 자금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아울러 2007년 7월에는 호치민 한국 교민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호치민 한국학교의 개보수 사업도 지원했다.

● 몽골 축산시범농장 사업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 축산시범농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Global Civic Sharing)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주민교육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축산시범농장, 가축은행, 사료은행,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사업으로는 주민학교, 생활계몽세미나,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유목민 휴대폰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식수개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중국 사회공헌활동

- 희망소학교 건립

SK텔레콤은 중국 정부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하여 2007년 신강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 희망소학교를 건립하였다. 'SK 애심소학'이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기존의 낡은 소학교 3개와 중학교 1개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건립한 것으로, 교사와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근 80킬로미터 이내 지역 2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교육(한어(漢語)어와 소수민족 언어) 등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 연변 IT 센터 건립

SK텔레콤의 지원으로 세계청년봉사단(KOPION)에서 추진한 IT 센터가 2007년 8월 중국 연변에 설립되었다. 3층 건물인 연변 IT 센터 안에는 IT 교육장뿐만 아니라 북카페·직원숙소·세미나 룸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연변 IT센터는 중·고교를 포함해 대학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연변의 청소년·대학생들에게 IT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 센터는 조선족 인재 발굴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영어·한국어·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한·중 리더십 캠프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족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사회공헌 관련 학술대회 참가

2007년에 SK텔레콤은 항조우에서 열린 '동아시아 사회복지 학술대회'(7월)와 한·중·일 3국에서 공동으로 주관 및 참여하는 '제3회 동아시아 사회보장 학술대회'(9월)에 참가하여 SK텔레콤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이 정부 및 NGO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사회보장학술대회에서는 중국 인민대학 사회보장 연구센터, 북경대 등에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중국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및 인구구조 변동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사회공헌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임직원 해외자원봉사활동

2007년 2월 5일부터 6박 7일 동안 12명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지구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화룡시 인근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마을 잔치, 생활관 수리 보수, 소학교와 중학교 방문 및 선물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1명의 자원봉사단은 인도 푸네에서 도시빈민촌 무료급식과 고아원 환경보수 활동 등을 벌였다.



2007년 2월 임직원 해외자원봉사를 통해 인도·중국의 빈민촌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Global Sunny 자원봉사활동

Sunny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해외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국·베트남·인도·몽골 등의 국가에서 노력 봉사 및 교육 봉사를 진행하며 해외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베트남 'Green Summer Campaign' 참여 등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 진행

2007년 1월 기아대책·굿네이버스와 함께 Sunny 44명이 2회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시골학교 리모델링과 책걸상 교체,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 고엽제피해아동센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07년 8월에는 Sunny 39명이 'Green Summer Campaign'에 참가하여 10박 11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남부 벤째지역에서 도로 보수,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 아동 영어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베트남 IYC 대학생들과 함께 고엽제 피해아동 의료시설을 방문했으며 'Journey to Vietnam'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사물놀이, 아카펠라 등 문화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베트남 공산당 청년동맹이 주관하는 Green Summer Campaign은 베트남 전쟁 후 국가 재건에 나섰던 '녹색셔츠' 전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여름 진행되는 행사로,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2007년 1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시골학교 리모델링 및 집짓기 활동 등을 벌였다.

● IAVE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

1970년 창립된 IAVE는 전 세계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를 사명으로 삼는 민간협의체로 100여 개 국가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2005년부터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 자원봉사자와의 교류는 물론 Sunny의 활동내용과 그 우수성을 전하고 있다. 2007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IAVE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에는 Sunny 10명이 참가하여 부스 설치와 Youth Workshop을 진행하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Sunny는 12월에 열린 IAVE 아시아태평양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 자원봉사자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 이웃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SK텔레콤 인터넷사업부문 CI본부
이영기 매니저



이영기 매니저는 2007년 또 다른 자신을 만났다. 2월 5일부터 일주일 넘게 인도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봉사활동은 무엇이고 또 해외봉사활동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007년 2월 각 본부의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인도와 중국으로 봉사단원을 파견했는데, 2006년부터 CI본부 자원봉사단 코디를 맡고 있는 이 매니저는 다른 본부 코디들과 함께 인도 푸네 지역의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노역 봉사활동을 했다. 이 어린이집은 SK텔레콤이 부지와 공사비용을 지원한 곳으로 NGO 기아대책이 파견한 한국인 목사가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푸네는 '데칸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인도의 대표적인 빈민촌입니다. 대부분은 나무판자로 얼키설키 지어 놓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주거환경에 깜짝 놀랐어요."
각 가정의 실내환경 개선을 비롯해 화장실 분리, 하수도 작업 등을 실시한 이 매니저는 봉사 기간 동안 먹고 자는 것은 불편했지만 배운 것이 훨씬 많았다고 말한다.
"수준 이하의 생활을 보고 나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경제사정이 좀 나은 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 주는 것은 '인류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요."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중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의 양로복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중국투자유한공사 양로복리원 봉사활동

2005년 9월 설립된 SK네트웍스 중국투자유한공사는 2006년 1월부터 중국 심양시 황고구의 양로복리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양로복리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곳으로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청소·세탁·생활용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으로 유대감을 형성해 가고 있다.

SK C&C

● 재한 몽골 커뮤니티에 PC 기증

2004년부터 매년 소외된 이웃의 정보화를 위해 PC를 기증해 온 SK C&C는 2007년 해외의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트북 40대를 재한 몽골 커뮤니티에 기증했다.

SK건설



SK건설은 인도네시아 현장의 인근 초등학교와 고아원에 물품을 기증하여 지역주민들의 성원을 얻었다.



SK건설은 '태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 태국 근로자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인도네시아 현장 인근 초등학교 후원

SK건설 유웅석 사장은 9월 추석 연휴기간에 인도네시아의 당사 L-Project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근처에 위치한 Dumai 초등학교에 교과서를 후원하였다. 또한 현장 인근 고아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현지 신문(Dumai Pos)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 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문화체험 행사

SK건설 자원봉사단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7년 4월 SK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태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태국인 근로자들은 SK건설 태국 ATC#2 프로젝트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전통문화체험교실'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태국 고유의 설날 행사 '쏭끄란 축제'에 참가하여 고국의 명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랍어 번역 한국문학서적 기증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SK건설은 아랍 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과 한국문화 알리기 차원에서 2007년 2월 중동지역에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문학도서 500권을 기증하였다. 아랍어 번역도서는 염상섭의 〈삼대〉, 한수산의 〈부초〉, 김주영의 〈천둥소리〉 등 한국소설 3권과 시집 1권, 총 4권이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지역에서는 SK건설 쿠웨이트 지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사관을 통해 각 기증처에 전달되었으며,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도 기증되었다.

SK해운

● 연변 제일중학교 장학금 지원

SK해운은 중국 내 조선족 학생의 주요 대학 진학을 장려함으로써 조선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변 제일중학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설립과 동시에 건립되어 그 동안 수많은 조선족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 SK해운은 1995년부터 이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명의 연변 제일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북경대·청화대·과학기술대 등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해운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연변 제일중학교는 수많은 조선족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이다.

SK가스

● 중국 사업장 헌혈 행사

SK가스는 2004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중국 쯔보에서 근무하는 직원 25명이 헌혈 릴레이 행사에 참가하여 헌혈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에서 만난 고향의 축제

SK건설 태국인 근로자
타판 아누차



2006년 7월 '코리안 드림'을 품에 안고 한국을 찾은 타판 아누차 씨. SK건설 협력회사 동흥개발 소속인 아누차 씨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6개월 동안 경기도 덕소 중앙선 복선전철 노반시설 공사에서 목공·철근공으로 일한 뒤 또 다시 9개월 동안 경남 창원에서 터널공으로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렸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에서 경전선 3공구 복선전철 공사에 목공으로 투입되어 대한민국 건설 역군으로 기여하고 있다.

1971년생으로 태국에 부인과 자녀 하나를 두고 있는 아누차 씨에게 지금까지의 한국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4월 15일 SK건설이 주최한 '태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행사'.

"솔직히 태국인 근로자만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태국 최대의 명절인 '쏭크란' 축제기간(4월 13~15일)에 맞춰 준비한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태국인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에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전통문화체험교실'에 참여하여 한복 입고 절하는 법을 배웠으며, 오후에는 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쏭크란 축제에서 태국 전통의 복을 기원하는 '성수 뿌리기'와 '원형 춤추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체험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태국에 돌아간 뒤로도 한국인의 따스한 배려와 전통체험 행사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자원봉사 부문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여서 더 아름답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려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더하는 기쁨이 있는 곳에 SK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SK에너지
최태원 회장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최태원 회장, 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
신헌철 부회장,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평창 장애인시설 '엘리에셀'에서 자원봉사
재한몽골학교 급식 봉사
2007 상·하반기 자원봉사 사례발표회 및 우수 코디 등 단기 해외연수 시행
설맞이 행복나눔
사랑의 집수리
사랑의 빵 만들기
무의탁 장애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
임직원 자녀 봉사활동
1사 1촌 농촌사랑 실천
행복나눔 자원봉사
사랑의 땔감 나누기

SK텔레콤
SK텔레콤 임직원 자원봉사단
SK텔레콤 가족 자원봉사단
SK텔레콤 임원 부부동반 자원봉사
SK텔레콤 고객 자원봉사단 Sunny
사랑나눔 멘토링
Sunny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김신배 사장, 은평천사원 자원봉사

SK네트웍스
사랑의 찐빵 나눔 활동
라파엘의 집 봉사활동
노인복지기관 지원
요셉의 집 자원봉사
아름다운가게 활동 참여
농촌일손돕기
밥퍼나눔 봉사활동
우성원 봉사활동
온달의 집 봉사활동
복지관 자원봉사
노인요양원 어르신들과 외출
교남 소망의 집 봉사활동
독거노인 가정 재가봉사
주사랑공동체 봉사활동
구세군후생원 봉사활동
보육원·육아원 봉사활동
복지관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남산원 자원봉사
독거노인에 도시락 및 반찬 배달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구룡마을 연탄 지원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봉사활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선심노인의집 봉사활동
광명원 봉사활동
내와동산 봉사활동
심기신수련 자원봉사

SKC
최신원 회장, 태안 방제작업 자원봉사
박장석 사장,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참여
노인전문요양원과 자원봉사 결연 협약 체결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자원봉사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독거노인 재가봉사
새봄맞이 대청소 자원봉사
영이 어린이집 자원봉사
수연 특수아어린이집 자원봉사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어버이날 봉사활동
경로잔치 자원봉사
협력회사와 함께 복지시설 자원봉사
포천 맹인소망원 자원봉사
장마 대비 환경정비 자원봉사
바다의 별 봉사활동

덕산신생원생 만리포 하계휴양소 초청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도시락 배달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저소득 가정 환경개선
사랑의 연탄 배달

SK C&C
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
IT 전문봉사단 활동
제3회 SK C&C 가족봉사캠프 개최
제3회 경영층 부부동반 행복나눔 자원봉사
신입사원 자원봉사
제3기 사랑의 발걸음
장애인과 함께 텃밭 가꾸기
장애아동과 요술풍선 만들기
남산N타워 숲속 놀이터 봉사활동
장애아동과 함께한 외출 'GO GO 세상 속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
풍선아트 봉사활동
어르신 전문 발마사지 봉사
장애인 직업재활 활동
청암노인요양원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빨간 코 알루'와 함께하는 뮤지컬 여행
장애아동과 함께 '작은사랑 큰사랑 만들기'
우리공동체 장애아동 마음 들여다보기
TR을 활용한 어르신 행복날개 달아 주기

SK건설
청운양로원 봉사활동
신입사원 자원봉사활동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활동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SK해운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가락출판사
벌룬아트 자원봉사 풍선 증정
사랑의 연탄 나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잔치 봉사활동
울타리공동체 봉사활동
김장 나누기 행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목욕 봉사

SK증권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
임직원 1% 나눔 봉사활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교남 소망의 집' 자원봉사
청소년 보호시설 남산원 봉사활동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봉사활동
Smile Kids 봉사단 봉사활동

워커힐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은혜의 집 봉사활동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봉사활동
결연단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캠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 E&S
태안 기름방제 자원봉사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손질 봉사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인수원 봉사활동
부산도시가스-사랑의 도시락 지원
부산도시가스-소화영아재활원 봉사활동
부산도시가스-사랑의 선물 전달
영남에너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포항도시가스-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
포항도시가스-행복나눔 김장행사
전남도시가스-YMCA 노인복지식당 배식 봉사활동
강원도시가스-산업단지 환경정화활동
강원도시가스-나눔의 동산 동절기 준비 지원

SK가스
본사 정기 봉사활동
울산기지 정기 봉사활동
평택기지 정기 봉사활동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연탄 나눔에 동참, 인천시 중구 답동에서 연탄을 배달했다.



2007년 5월 최태원 회장은 6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헌철 부회장은 제주 애덕의 집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500만원 상당의 지원품을 전달했다.



SK에너지는 평창의 장애인시설 엘리에셀에 지원품을 전달하는 한편 방역 소독, 이발 봉사, 제초 작업 등을 실시했다.



SK에너지는 몽골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습과 생활 터전인 재한몽골학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자원봉사 사례발표회에서 선발된 우수 코디와 자원봉사자들이 북경 'Save the Children'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너지

● 최태원 회장,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SK에너지 최태원 회장은 11월 13일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인천시 중구 답동에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SK그룹의 대표적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으로 2007년 3회째를 맞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임직원들과 SK와이번스 선수들까지 참여해 SK 행복나눔 실천의 장으로 거듭났다.

● 최태원 회장, 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 봉사

최태원 회장은 5월 23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신헌철 부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과 임직원들은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2,000여 명의 불우노인들을 위해 손수 밥과 반찬을 배식하는 등 더 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나눔을 적극 실천했다.

● 신헌철 부회장,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신헌철 부회장은 5월 18일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제주 애덕의 집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마라톤 성금'을 활용한 500만원 상당의 지원품을 전달했다. 신헌철 부회장은 제주물류센터 구성원을 비롯해 관계사 임직원 등 20여 명과 애덕의 집을 방문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무궁화나무와 고구마순을 심고 잔디 식재 작업을 하는 등 애덕의 집 주변환경을 가꿨다.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중증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애덕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봄소풍과 여름 물놀이를 비롯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덕의 집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 평창 장애인시설 '엘리에셀'에서 자원봉사

SK에너지는 7월 16일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평창 '엘리에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신헌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마라톤 성금'을 활용하여 방역 소독기·벌레 퇴치기 등을 전달했으며 방역 소독, 옥수수 심기, 이발 봉사, 제초 작업 등의 활동을 펼쳤다.

● 재한몽골학교 급식 봉사

신헌철 부회장은 6월 22일 글로벌시너지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재한몽골학교를 방문해 배식과 설거지 등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마라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시 광장동에 위치한 재한몽골학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몽골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1999년 8명의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작한 이래 현재 60명이 넘는 몽골 어린이들의 학습과 생활 터전이 되고 있다.

2006년 김장봉사를 시작으로 재한몽골학교와 인연을 맺은 SK에너지는 5월에 재한몽골학교 후원의 날을 맞아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 2007 상·하반기 자원봉사 사례발표회 및 우수 코디 등 단기 해외연수 시행

SK에너지는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마인드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자원봉사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사례발표회는 외부 강사 특강, 자원봉사 영상자료 상영, 우수사례 봉사팀 발표, 우수사례 봉사팀 및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상·하반기 우수사례 봉사팀 각 4팀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 봉사팀 대표자와 모범 자원봉사자에게는 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 설맞이 행복나눔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봉사단은 설을 맞아 울산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월 15일 무지개봉사팀은 8년째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 독거노인 40세대에 선물을 전달하고, 20명의 독거노인을 초청해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위로잔치를 마련했다. 나눔터 봉사팀은 설을 앞둔 결식아동들에게 작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랑의 생일잔치를 마련했다.

부산물류센터 구성원들도 불우이웃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과 작지만 따뜻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 사랑의 집수리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봉사팀은 형편상 집수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 내 독거노인·불우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내내 월 2~3회 지속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 지붕 달아 주기, 도배·장판 교체하기, 전기배선 교체 및 정리하기, 집 구조 변경하기 등 SK에너지 구성원들이 각종 자재 구입에서 구매·시공에 이르기까지 집수리 전 과정을 도맡아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 사랑의 빵 만들기

SK푸르미 봉사팀은 매월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SK푸르미 봉사팀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위의 소외된 분들에게 전달할 빵을 굽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팀원들의 즐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맛있게 구워진 빵들은 소외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삶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 SK푸르미 봉사팀은 1인 1후원계좌 갖기를 통해 모금된 성금 일부로 제빵 냉장고를 구입하여 봉사센터에 기증했다.

● 무의탁 장애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

SK에너지 광주물류센터는 6월 14일 무의탁 장애노인들을 위한 급식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지역 무의탁 노인들에게 매월 1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50명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몸이 불편한 50여 명의 가정에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구성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일정 금액을 배식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물류센터는 정신지체장애인 재활교육기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고 관련 시설 보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천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임직원 자녀 봉사활동

SK에너지 임직원 자녀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아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자녀들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및 성북구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 1사 1촌 농촌사랑 실천

SK에너지는 8월 7일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어둔리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고추와 옥수수 수확을 돕는 등 1사 1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K에너지는 지난 2004년부터 어둔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5, 6차례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SK에너지의 OK캐쉬백 모델로 활동 중인 탤런트 소이현 씨도 참여해 1사 1촌 농촌사랑을 실천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설을 맞아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잔치를 열어 즐거운 명절을 함께 나눴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지역 내 독거노인·불우장애인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K푸르미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빵 만들기 활동을 펼치는 한편, 1인 1후원계좌 성금을 활용해 제빵 냉장고를 기증했다.



SK에너지 광주물류센터는 2004년부터 지역의 무의탁 노인들에게 매월 1회 점심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에너지 임직원 자녀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8월 횡성군에서 진행된 1사 1촌 농촌사랑 활동에는 OK캐쉬백 모델인 소이현 씨가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박상훈 부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울산의 '나눔과 섬김의 집'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숲 가꾸기에 참여한 후, 간벌된 목재 중 잔가지를 모아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

● 행복나눔 자원봉사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상훈 부사장은 5월 29일 임원 10여 명과 함께 울산 남구 신정동 '나눔과 섬김의 집'에서 독거노인 약 200여 명에게 점심을 배식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또한 울산컴플렉스 임직원들은 연간 자원봉사 계획과는 별개로 5월 한 달 동안 1회 이상 봉사에 참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배식 자원봉사, 도배 봉사, 시설 환경개선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사랑의 땔감 나누기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파워봉사팀은 11월 21일 숲 가꾸기 현장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을 모아 불우이웃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울산생명의숲'이 2005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숲 가꾸기를 한 후 간벌된 목재 중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잔가지를 모아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날 파워봉사팀은 숲 가꾸기 후 남겨진 간벌목을 톱으로 자르고 끈으로 묶어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SK에너지 임직원 자원봉사단 현황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본사	경영지원	신망원	보육원 봉사활동
		횡성군 어둔리	1사 1촌 일손 돕기
	빨간 등대	다일복지재단 밥퍼운동	밥퍼 배식 및 설거지 봉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보금자리	재한몽골어린이집	외국인 노동자 자녀 돌보기
	화학천사단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화학2팀	광명보육원·한국보육원	빵 만들기, 보육원 청소
		대한적십자사	아이들 생필품 지급
	OK Lovebag	영락보린원	불우어린이 및 노인 돕기
		양천장애인복지관	1사 1경로당 활동 진행
		종로노인복지관-청운경로당 연계	경로식당 봉사
		삼성소리샘청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어린이 수업 보조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우 놀이치료교실 보조
		서울숲	서울숲 가꾸기 지원
	누리천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연중 바자회
		서울소년의집	외출 봉사(월 2회)
		서울노인복지센터	구두닦기, 청소, 급식 봉사
		동작자원봉사은행	도배 봉사
		동작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작업 지원
	마음벗	서울노인복지센터 삼동소년촌 열린사회시민연합 해뜨는집	배식 봉사, 어르신 돕기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본사	SOS 어린이봉사대	바르메티오, 위캔마을, SOS어린이마을, 춘천나눔의집	불우어린이 돕기, 장애인 돕기
	CRM 행복나무	약수노인복지관	도시락 만들기 및 배달, 노력봉사
	아우름	서울숲	환경정화활동
	SK푸르미	대한적십자사	빵 만들기
	모퉁이돌	아름다운가게	기부된 물품 구분·정리 및 가격표(tag) 달기 작업
	아침이슬	하늘샘터	독거노인 돕기
	행복날개	다문화어린이마을	다문화어린이마을 공부 도우미, 문화체험 등
울산 CLX	패기	동구희망울타리 동구사랑울타리 동구노인복지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불우어린이·청소년·장애인·독거노인·저소득층·조손세대 돕기, 이주노동자 문화체험 등
	우리하나	남구사회복지관 나눔과섬김의집 울산양육원 청소년쉼터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독거노인·불우 어린이·저소득층 돕기
	한마음	나눔과섬김의집 남구사회복지관 덕하리나눔터	독거노인·저소득층 돕기
	창조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 돕기
	폴리	메아리복지원 작은마을 노인요양원	장애인 돕기, 요양원 노인 돌보기
	파워	울산생명의숲	환경보호활동
	무지개	수연복지재단 남구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돕기
	신바람	울산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 돕기
	파랑새	신정4동사무소 무거1동사무소 지체장애중구지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장애인 생일잔치
	나눔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지체장애북구지회 산내사랑의보금자리	장애인·결식아동 돕기
	사랑터	울주군청봉사센터 울주군 각 지역 봉사단체	나눔터 식사 도우미, 사랑의 집수리
	아가페	착한목자의집 우리사랑복지재단	장애인시설 노력 봉사, 장애인 돕기
	어깨동무	아름다운가게	재활용 물품 분류·정리 노력 봉사
	서로사랑	푸른울타리 광명원	결손가정 아동 돕기, 장애인 돕기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울산 CLX	개미사랑	울산노인의집 불이원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집수리,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 돕기
	행복	울산생명의숲 광명원	환경 캠페인 및 환경보호활동
	행복지킴이	행복한청소년공부방	조손가정 아동 돕기
	아우름	사회복지법인물푸레복지재단	불우이웃 돕기, 물품 판매
	온기	울산노인복지회관	조손세대 영어교실, 무료급식 지원
	행복나눔	CLX사회공헌팀 행사 참여	행복문화재 자원봉사, 장애인 돌보기
대덕 기술원	SK사랑팀	후생학원	사랑의 집수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기증행사
	기쁨향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전점자도서관	복지관 아동 돌보기, 점자 도서 만들기
	에너지자원봉사단	송강사회복지관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돕기
	Made in Heaven	대전장애인연합회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시설 노력 봉사
	사람과 사랑	평화의마을	불우아동 돕기
		대전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돕기
	푸른하늘	삼성농아원	농아 돌보기, 시설 환경정화활동
물류센터	#(반올림)	과천시청, 과천시자원봉사센터 과천시노인복지관, 구세군 양로원 안양평화보육원, 원주암어린이집	사랑의 집수리, 보육원 및 양로원 봉사활동
	인천물류봉사단	해성보육원 섭리노인복지재단	불우아동 돕기
	사랑나눔봉사대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한우리쉼터	불우아동 돕기, 사랑의 집수리
	SK원주천사단	요셉재활원 심향영육아원	시설 수리, 장애인시설 노력 봉사
	동해물류천사단	이레마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도계작은꽃노인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_동해지부 한국시각장애인협회_동해지부	노인전문요양원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달구벌천사단	성림원 일심재활원 신안사랑마을	불우아동 돕기,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Marine Angels	천성재활원, 청학1동사무소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돕기
	마산물류천사단	마산시장애인복지관 영신원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돌보기, 불우청소년 돕기
	전주물류천사단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돕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빛고을사랑	성요셉의집 소화성가정	배식 봉사, 장애인시설 노력 봉사
	제주천사단	애덕의집 소화성가정	장애인 돕기, 환경정화활동

SK텔레콤

● SK텔레콤 임직원 자원봉사단

SK텔레콤 자원봉사활동은 SK텔레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임직원 자원봉사,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 자원봉사, 그리고 고객 자원봉사단(대학생 자원봉사단)인 Sunny로 구분된다. '나눔'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 아래 2004년 발족한 SK텔레콤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현재 총 52개 봉사팀, 4,500여 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과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2007년에는 가입률 90%, 4,657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7만 5,00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인당 봉사시간은 18시간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고유한 기업문화로 승화시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봉사에 대한 보람과 함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함께 공유하여 기업문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SK텔레콤 가족 자원봉사단

SK텔레콤은 2005년부터 YWCA와 함께 SK텔레콤의 임직원 자원봉사를 가족까지 확대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자녀들까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가족간의 이해 및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펼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휴가 기간에는 구성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장애인·어르신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 자원봉사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 SK텔레콤 임원 부부동반 자원봉사

SK텔레콤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부동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원 부부동반 자원봉사활동은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김신배 사장이 직접 부문장급 이상 임원 부부들을 초청하여 시작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SK텔레콤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7년 11월 8일,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을 포함하여 이방형 부사장, 남영찬 부사장 등 부문장급 이상의 임원 부부 22명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린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가했다.
행복나눔 김장행사는 SK텔레콤 수도권 마케팅본부가 12년째 실시하고 있는 먹거리 나눔사업으로,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대표 종단으로 구성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함께 겨울철 필수 부식인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다. 2007년에는 5만 포기의 김치를 수도권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 SK텔레콤 고객 자원봉사단 Sunny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회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고객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2003년 고객 자원봉사단 Sunny를 발족했다. '선한이'라는 뜻의 'Sunny'는 국내 최초의 고객 참여 봉사단으로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이 모두 참여하는 고객 자원봉사단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전국 규모의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SK텔레콤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대전·충남, 청주·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원주·강원, 제주, 인천 등 전국 13개 조직체계와 학생대표단(학생운영단+지역대표)을 갖추는 등 체계적인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SK텔레콤은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SK텔레콤은 행복나눔을 위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 고객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임직원의 배우자·자녀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이웃은 물론 가족간의 사랑을 키우고 있다.



2007년 11월, 김신배 사장을 비롯한 임원 부부 22명은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가해 마음을 나눴다.



전국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자리잡은 Sunny는 SK텔레콤의 지원 하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신배 사장은 임직원들과 은평천사원을 찾아, 외부 강연료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으로써 대학생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하이티처, IT 봉사단, 레저버디, 지킴이, 프로젝트 아이, 자원봉사 공모전, 행복병원, 그린맵 대장정 등 8개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실시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및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지역에서는 각 지역별 NGO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사랑나눔 멘토링

SK텔레콤은 서울가정위탁자원센터와 함께 부모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어 친인척이나 조부모에게 위탁되어 있는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SK텔레콤 직원 30명과 1대1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사랑나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학습지도나 경제적 지원 또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와 달리 아이들과 최소 1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 및 위탁아동들의 바람직한 성인 롤 모델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 Sunny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은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규모와 내용·인원에 따라 80~200만원의 활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 대학생 봉사동아리 총 270여 팀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70팀이 선발됐다. 우수 활동 10팀은 베트남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김신배 사장, 은평천사원 자원봉사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6월 8일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시설인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외부 강연료를 모아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고 보치아 경기(표적구 근처로 공을 굴려 승부를 정하는 게임으로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함)를 함께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신배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은평천사원의 송하일(지체장애 1급, 대학생) 군을 돕고 있으며, 이날도 외부 강연료로 구매한 합창단 장비, 무선 헤드셋 장비 등을 전달했다.

SK텔레콤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비타민	셋넷학교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학 및 교육	서울 영등포구
사만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서울
Angel Wings	SK 행복도시락	행복도시락 배달	서울
더불어함께	SK 행복도시락	행복도시락 배달	서울 중구 신당동
어울림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원예 치료	서울
행복프런티어	송죽원	영유아 양육 보조활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나누미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및 가정 봉사	용인
행복도우미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빵 나누기	서울 종로구
행복지기	꿈틀학교	대안학교 청소년 문화활동	서울 종로구
0.1mm	강남구 청소년쉼터	사회체육활동	서울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청소	
해피투게더	다운복지관	인라인 스케이트 보조	서울
우리나누리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과 문화공연 관람 및 산책, 야외활동	서울 강서구
누리사랑	성심어린이집	장애아동 야외활동	서울 중구
	약수노인복지관	어르신께 영양식 배달	
Nate 엔도르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과학 관련 문화활동, 독거노인 관련 노력 봉사	서울 마포구
본사 징검다리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텃밭 가꾸기	서울 용산구
브라우니	동작노인복지관	세탁 서비스 및 가정 봉사	서울 동작구
꿈송이	혜심원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서울 용산구
행복누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나눔사랑	예닮의집, 둥근나라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는 특별활동	서울 강북구
행복나눔터	영등포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무료급식 등	성남 수정구
	아름다운가게	되살리기, 물품 분류	
	수정노인복지관	어르신 무료배식활동	
한아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 보조활동	부산
행복날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멘토 활동	광주 광산구
중부 행복나눔	자원봉사센터	산·하천 정화활동	대전
	현충원	비석 닦기	
한우리	오류애육원	아동생활시설 환경개선	서울 구로구
미래 나눔회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초청 행사활동 등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사랑 가꾸미	한누리학교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누리학교 도우미	서울 양천구 신월6동
With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도배 봉사	서울 중구
꿈이랑 별님이랑	동명아동복지센터	아동생활시설 영아 돌보기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열린 마음	혜송어린이둥지	아동생활시설 봉사	서울 동대문구
행복나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점심식사 배식	서울 용산구
희망스케치	홍은복지관	방임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나눔사랑(2)	예닮의집	문화활동 지원	서울
36.5℃	늘편한집	지체장애인 영화상영 및 장소이동 지원, 청소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MD사랑나눔	성로원아기집	지체장애인 영화상영 및 장소이동 지원, 청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랑두레꾼	승가원	장애아동 노력 봉사	서울 성북구
어울통신	동천의집	장애인생활시설 봉사	서울 노원구
나눔누리	교남소망의집	지체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서울 강서구
사랑의흘씨	금오사회복지관	지체장애인 적응훈련	마산·구미
	대구노인전문병원	치매·중풍노인 생활보조	
	성프란치스코의집	성프란치스코의집 청소	
	경남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병원 진료시 차량 지원	
	평거복지관	시설 환경정리활동	
	울산남구복지관	기초수급아동 학습지도	
	창포종합복지관	노인 점심식사 배식	
	성애원	영유아 돌보기, 청소	
사랑나눔이	성요셉의집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목포
행복날개 온(ON)	대덕구 독거노인회	독거노인 후원	공주
	보운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민들레공부방	차상위계층 방과후교실	
	공주소망공동체	장애인생활시설 노력 봉사	
	청원효부마을	마을 방문 노력 봉사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Global Volunteers	은파복지사업소	치매노인 나들이 지원 및 환경개선활동	서울
너나우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연탄 배달, 김장	서울 양천구 목동
u & 우리	광진구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청소 및 어르신 말벗 되기	서울 광진구
같이놀기	남산원	놀이터 페인트칠, 보육원 청소 등 노력 봉사	서울 중구
넉넉한 그늘	도봉서원복지관	아동 통합문화 체험	서울 도봉구
Plus One	행복도시락 중구점	행복도시락 배달	서울 중구
TI봉사단	나누리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서울
Love Portal	상록보육원	보육원 아동들과 문화활동	서울
Share Love	광명사랑의집	정신지체장애인들과의 친선활동	광명
두손모아	성동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 물품 지원	서울 성동구
사람사랑	공릉종합복지관	노원구 복지문화활동	서울 노원구
따사모	아름다운가게	용답동 되살림터 노력 봉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SK네트웍스는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에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사랑의 찐빵을 나누었다.

SK네트웍스

● 사랑의 찐빵 나눔 활동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찐빵을 직접 만들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찐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사랑의 찐빵 나눔 활동에는 현재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 라파엘의 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의 봉사활동 동아리 라파엘의 집 봉사단원들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본사 인근 장애인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 장애인들의 식사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노인복지기관 지원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대구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영락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2일에는 노인의 날을 맞아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네트워크사업부문 서부지사도 11월 1일 영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신축 건물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활동을 도왔다.



네트워크기술본부 기술계획팀은 요셉의 집에서 청소, 목욕 봉사, 화단 가꾸기 등의 활동을 벌였다.

● 요셉의 집 자원봉사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기술계획팀은 '요셉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요셉의 집은 서울 방학동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요양소로 기술계획팀 구성원들은 청소, 목욕 봉사, 화단 가꾸기, 김장철 일손돕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아름다운가게 활동 참여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망관리센터는 '아름다운가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된 물품을 각 지역별 매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총 12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모를 심고 마을회관 도배 등에 일손을 보탰다.

● 농촌일손돕기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5월 18일 충북 옥천군을 방문해 모내기 일손돕기에 나섰다. 일손 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함께 모를 심고, 과수원에서 복숭아나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 작업을 도왔다. 이 외에도 마을회관 도배 등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는 활동을 펼쳤다.

● 밥퍼나눔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노숙인 및 저소득층 소외이웃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밥퍼나눔' 자원봉사에 2007년 총 11회 참여했다. 또한 '밥퍼' 저금통 100개와 겨울 방한복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무역부문의 밥퍼나눔 자원봉사는 2007년 총 11회 진행되었다.

● 우성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호와 의료재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우성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재활 및 직업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한편 자립훈련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에 총 30회에 걸쳐 318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온달의 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온달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달의 집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 임직원들은 격월 1회 이곳을 방문해 생활관 및 식당 청소, 식사 보조,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성탄절에는 산타 이벤트를 마련해 선물을 증정했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격월로 온달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복지관 자원봉사

SK네트웍스 부산경남본부는 독거노인 가정과 양로원을 방문해 청소를 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120명의 구성원이 이 활동에 참여했다.

● 노인요양원 어르신들과 외출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부산지사는 3월 22일 혼자서는 바깥활동이 어려운 애광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요양원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네트워크사업부문 부산지사는 애광노인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해운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교남 소망의 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은 월 1회 교남 소망의 집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돕고 있다. 동반 외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터에서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 독거노인 가정 재가봉사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은 월 1회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생필품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의 생일잔치를 분기 1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구소 연구1팀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지붕 수리 등 환경미화활동을 진행했으며,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했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은 월 1회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일잔치도 분기별로 마련하고 있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제주보육원과 용진육아원에서 나들이 행사, 생일잔치, 선물 증정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주사랑공동체 봉사활동

SK네트웍스 강남지사는 서울 신림동 소재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장애아동 및 고아를 위한 보호시설로, 강남지사 구성원들은 이곳에서 목욕·세탁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 구세군후생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전략본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구세군후생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식재료 제공, 식사 조리, 배식 등의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보육원·육아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제주보육원과 용진육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나들이 행사와 생일잔치 개최, 선물 증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복지관 반찬 및 도시락 배달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2007년 매주 화요일 3~4명씩의 직원들이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약수노인복지회관이 진행하는 도시락 배달에 구성원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세대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남산원 자원봉사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전송기술팀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인 '남산원'의 식목 행사·여름캠프·바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독거노인에 도시락 및 반찬 배달

SK네트웍스 서울봉사단은 서초구 양재동 인근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고충사항을 복지관에 전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서울봉사단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2007년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서울봉사단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노인복지관에서 매주 3회 배식·설거지·식당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영지원부문 봉사단 역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구룡마을 연탄 지원

SK네트웍스 서울봉사단은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소재 구룡마을 150가구에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연탄 200장씩을 지원하였다.

SK네트웍스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네트워크사업부문	전략본부	구세군후생원	배식활동 지원	서울
	중부지사	영동 농가	농촌 일손 돕기	충북 영동
	대구지사	영락요양원	노인 말벗 되기 등	대구
	강남지사	주사랑공동체	복지관 청소 등	서울
	부산지사	애광노인요양원	생필품 전달 및 정기 봉사	부산
	서부지사	형제사	복지관 청소 등	광주
	기술계획팀	요셉의집	노인·장애인 목욕 봉사 및 환경정리	서울 중구
	전송기술팀	남산원	활동 및 행사 지원	서울 중구
	인터넷기술팀	자매결연가정	저소득 가정 청소년 지원	서울 중구
	신규Project TFT/연구1팀	남산한옥마을	청소 등 환경정리	서울 중구
	망관리센터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 및 물품 관리 등	서울 중구
	연구1팀	독거노인 가정	지붕 수리, 도배	서울 중구
정보통신유통부문	사랑모아봉사단 (통신유통사업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소속지역 독거노인 대상 재가서비스 지원	서울 종로구
		교남 소망의 집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지원	서울 강서구
	부산지사봉사단	성애원	청소, 유아 돌보기, 후원금 지원	부산
	한우리회 (대구지사 봉사단)	사랑의 집	멘토 결연 및 지원	대구
	서부지역봉사단	용진육아원	원생 나들이, 활동 지원 등	광주
		제주보육원	원생 나들이, 활동 지원 등	제주
		살레시오의집	장애인 돌보기, 후원금 지원	제주
	중부지사봉사단	온달의집	장애인 돌보기 및 생필품 지원	대전
	행복을나누는사람들 (통신서비스)	약수노인복지회관	도시락 배달 및 복지관 행사 지원	서울 중구
		충북 옥천	농촌 일손 돕기	충북 옥천
무역부문	무역부문	청량리 밥퍼	밥퍼 배식 지원	서울 청량리
		우성원	장애인 재활 지원	서울 고덕동

SK네트웍스 MD마케팅팀
서수옥 대리

내가 받은 세상의 사랑을 돌려주는 길



서수옥 대리는 매월 두 차례씩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만난다. 2006년부터 수도권 지역 봉사팀이 매월 장애인복지시설 '교남 소망의 집'과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회사 업무로 피곤할 법도 하지만 자원봉사를 거의 빠져 본 적이 없다. 해맑은 모습으로 좋아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피곤하단 생각이 싹 달아난단다.

교남 소망의 집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손수건·색종이 등을 함께 만드는 한편 그들의 사회재활훈련을 돕고 있다. 박물관 관람부터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보기 등을 같이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10여 명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를 하고 또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도 비교적 크게 벌이고 있다.

2007년 두 시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만큼 봉사팀의 코디로서 서수옥 대리의 어깨는 무겁다. 앞으로도 시설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매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생각이다.

"중매를 서 주시겠다는 어르신들과 마냥 좋아하는 장애인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야죠."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에너지판매부문	서울봉사단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반찬 배달	서울 서초구
		서초노인복지관	노인식당 배식	서울 서초구
		기쁜우리복지관	배식 보조·설거지·청소	서울 강서구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 식당 청소·설거지, 구룡마을 연탄 지원	서울 강남구
	부산경남본부	수영구자원봉사센터	광안리 해수욕장 환경정화	부산
		부산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양로원 방문 및 청소	부산
	부산경남본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세대 밑반찬 전달	마산
	광주지사	농촌(송계마을)봉사	농촌 일손 돕기, 봉대산 환경정화	광주
		환경보호	광주천·봉대산 환경정화	광주
		한국복지재단	매월 1회 소년소녀가장 후원	광주
	전북 동부지사	전주 완산구청 복지과	매월 1회 소년소녀가장 후원	전주
	목포지사	장애인복지타운	매월 정기 봉사활동	목포
		한국복지재단	매월 1회 소년소녀가장 후원	목포
		서남장애인 복지관	매월 정기 봉사	목포
	순천지사	예광마을	매월 정기 봉사	순천
	전북 서부지사	환경보고	군산시내 시민공원 환경정화	군산
		익산청소년수련관	재활원생과 단합 및 체육행사	익산
	전북 동부·서부지사	전주시 완산구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지원	완산구청
	스피드메이트 봉사단	적십자 혈액원	헌혈봉사 및 안내	서울 강남구
커스터머사업부문	패션사업본부	창덕궁	문화재 보호	서울
경영지원부문	경영지원부문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 무료급식활동 지원	서울
	사랑의 찐빵 나눔	서울·경기지역 복지관	찐빵 빚기 및 레크리에이션 등	서울·경기
	라파엘의 집	라파엘의 집	장애아동 식사 보조	서울 중구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에 참여했다.



SK케미칼 오산공장은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케미칼

● 김창근 부회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11월 29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SK케미칼 임직원 4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에 참여했다. 4년째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창근 부회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65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한편 김창근 부회장은 11월 13일 SK 최태원 회장, SK 관계사 임직원 등과 함께 인천에서 진행된 '사랑의 연탄 나눔' 배달에도 참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봉사활동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5월 26일 오산시청 앞 운암근린공원에서 열린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봉사활동에는 수원공장 김종하 공장장을 비롯한 이기성 노동조합 위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먹거리 장터에서 떡메치기 및 판매를 담당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독거노인·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오산공장은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독거노인 나들이 지원 등으로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밀착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체장애 주민을 돕기 위해 오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집수리·이사 도우미·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선심노인의집 봉사활동

SK케미칼 안산공장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선심노인의집'을 방문해 식재료와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활동 보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선심노인의집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로, 안산공장은 2005년 12월부터 이곳과 결연을 맺고 분기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광명원 봉사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 수지생산팀은 7월 21일 시각장애인 보호시설 '광명원'을 방문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및 시각장애인들의 외출을 돕고 식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 내와동산 봉사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 유화생산팀은 노인장애요양원 '내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 청소, 제초 작업, 문고리 달아 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심기신수련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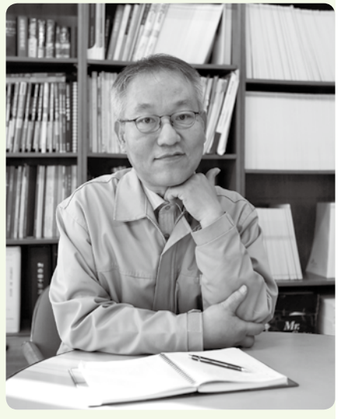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004년 4월부터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SK심기신수련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SK심기신수련은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 최종현 회장이 창안한 것으로, SK 특유의 기를 활용한 몸과 마음의 수련법이다. 육체적·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어 중풍 등으로 인한 마비 증세로 고통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SK케미칼 안산공장은 선심노인의집에 식재료·생필품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울산공장 유화생산팀은 노인장애요양원 내와동산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면 할수록 커지는 봉사의 기쁨

SK케미칼 연구소
이현수 차장



이현수 차장은 연구소의 봉사단체인 '줄란과 천사단'의 코디를 맡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3년부터 코디를 맡으며 수원지역 독거노인 두 명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초창기 16명의 회원으로 조촐하게 시작할 때만 해도 봉사단 이름은 '줄란'이었다. 그러던 것이 '줄란'의 활동이 연구소 내에 퍼지면서 참가인원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50여 명에 이른다. 초창기 멤버 '줄란'과 나중에 합류한 동료들인 '천사단'이 합쳐 지금의 '줄란과 천사단'이 된 것. 봉사단체 회원들의 순수 회비를 통해 운영되지만 임원들의 후원금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수원시로부터 추천받은 어르신 두 분을 매월 찾아뵙고 생필품과 계절에 따른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줄란과 천사단은 노숙자 보호시설인 '행복한 집'에도 따스함을 전달하고 있다. 700여 권의 책을 모아서 서가를 기증한 것은 물론 매년 연탄 2,000장을 지원하고 명절이면 떡국과 송편으로 즐거운 시간을 나눈다.

근육마비라는 지체장애를 앓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차장이지만 봉사활동만큼은 남들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

"장애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남을 돕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봉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도 커지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SK케미칼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단	봉사팀 명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울산공장	아사모	환경보존, 사회공헌 등	전국
수원연구소	줄란	공부방, 행복한 집, 불우이웃돕기 등	전국
오산공장	L-Factory	환경보존, 사회공헌	전국
안산공장	Happy making	환경보존, 불우이웃돕기	전국
본사(생명과학부문)	해피라이프	장애인 교육 도우미	전국
본사(화학부문)	SKY Wings	장애인 심기신수련 도우미	전국
본사 록 밴드	스칼라스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전국

SKC



SKC 최신원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태안 구름포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벌였다.



박장석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성남의 중동 제2복지관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수원공장 아우름 자원봉사단은 수원시립노인요양원에서 식사 보조, 발마사지, 경로잔치 등의 활동을 펼쳤다.

● 최신원 회장, 태안 방제작업 자원봉사

SKC 최신원 회장은 12월 18일 SKC·SKC텔레시스 임직원 450명과 함께 태안반도 구름포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벌였다.

● 박장석 사장,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참여

SKC 박장석 사장은 7월 3일 SKC 각 사업부문장 및 직원들과 함께 성남시 중동 제2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성남시 중동 제2복지관은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무료급식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종합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다. 박장석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노인전문요양원과 자원봉사 결연 협약 체결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7월 10일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과 자원봉사 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 결연 기념으로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 10개를 기증했으며, 요양원에서는 SKC 자원봉사단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봉사활동 사진을 소개하고 SKC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수원시립노인요양원 자원봉사

SKC 수원공장 아우름 자원봉사단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아우름 자원봉사단은 자신들의 업무 특성을 살려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의 에어컨 점검, 식당 공조 필터 세척, 작업대 정리 등 요양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요양원 노인들의 식사 도우미, 발마사지, 말벗 되기, 산책 보조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아우름 봉사단은 SKC 수원공장이 지난 5년간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터득한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요양원에 전수했다.

●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SKC 필름사업부문 정보전자소재판매팀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서울 종암동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가복지병원은 무의탁 노인, 노숙자, 빈곤계층의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병원이다. 봉사단은 병원에서 식사 준비, 배식, 주방 청소를 비롯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 식사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독거노인 재가봉사

SKC 천안공장 기숙사자치회와 노동조합 여성부에서는 설을 맞아 성거읍 인근지역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이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새봄맞이 대청소 자원봉사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3월 23일 인근 정자1동과 공동으로 정자1동 및 수원공장 인근을 청소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목천 주변 가로수 정비, 골목에 버려진 무단 쓰레기 청소 활동을 통해 약 2톤의 오염물을 수거했다.

● 영이 어린이집 자원봉사

SKC 디스플레이소재사업부문은 3월 27일 영등포 '영이 어린이집'에서 봄맞이 대청소 자원봉사를 하였다. 옥상 놀이터의 장난감과 각종 비품 정리, 바닥 청소, 창틀에 쌓인 먼지 제거, 계단 왁스 칠하기, 물품 재배치 및 비품 폐기 등 어린이집의 일손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 수연 특수아어린이집 자원봉사

SKC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4월 5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에 위치한 '수연 특수아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단은 자갈 깔기, 장애인 보도블록 정리, 마당 평탄 작업 등 어린이집이 그 동안 일손 부족으로 미뤄 두었던 힘든 일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였다.

●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SKC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울산미술협회와 함께 울산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벽화 그리기는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회색빛 도시의 노후한 벽을 밝고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남구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옹벽에 예쁜 캐릭터 및 풍경화 등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 어버이날 봉사활동

SKC 천안공장 노동조합 여성부와 기숙사자치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거 인근지역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카네이션과 성금·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경로잔치 자원봉사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5월 23일 정자1동이 주최하고 SKC·SK케미칼 수원공장 후원으로 1,000여 명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초청한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경로잔치에 행사 도우미로 참가해 자원봉사를 하였다. 경로잔치는 정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가야금 병창과 합창 등의 흥겨운 공연을 비롯하여 SKC 및 SK케미칼 간호사들의 혈압·당뇨병 검사 등의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 협력회사와 함께 복지시설 자원봉사

SKC 자재구매팀과 설비구매팀은 5월 29일 19개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놀이방 청소, 장애인 목욕 도우미, 반찬 배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정자1동과 공동으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SKC 디스플레이소재사업부문은 3월 27일 영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봄맞이 대청소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SKC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수연 특수아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편 환경 정리 작업을 도왔다.



SKC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남구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옹벽에 벽화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SK케미칼 수원공장과 함께 1,0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벌였다.



SKC 수원공장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바다의 별'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전기부품 조립 작업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SKC는 포천 맹인소망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겨울철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SKC는 울산시 선암동·상개동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목요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했다.



SKC는 울산시 선암동·야음동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연탄을 배달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포천 맹인소망원 자원봉사

SKC 본사 임직원 20여 명은 5월 29일 포천에 있는 맹인소망원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 대청소, 나들이 보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메모리폼 베개와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 장마 대비 환경정비 자원봉사

SKC 수원공장 한마음 자원봉사단은 6월 22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회사 주변 서호천변에 유입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서호천은 SKC 수원공장 남측 담장을 중심으로 약 1km의 산책로가 좌우로 조성되어 평일 지역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곳이지만 매년 장마철이면 고수부지를 범람하는 장맛비로 인하여 각종 생활쓰레기로 오염되는 곳이다. 수원공장은 연중 수시로 하천 바닥 교반과 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바다의 별 봉사활동

SKC 수원공장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바다의 별'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애우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기부품 조립 작업에 대규모 자원봉사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총 4일 동안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한울타리 자원봉사단은 2006년부터 '바다의 별'과 인연을 맺고 청소, 장애인 재활 보조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 덕산신생원생 만리포 하계휴양소 초청

SKC 천안공장 애우회는 8월 3일 SKC 천안공장 만리포해수욕장 하계휴양소에 덕산신생원생과 교사 40여 명을 초청하여 물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사랑의 김장 담그기

SKC는 11월 21일 '포천 맹인소망원'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청소 및 시각장애인들의 나들이 보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오순절 평화의마을' 김장 담그기에도 참여하였다.

● 사랑의 도시락 배달

SKC는 울산시 남구 선암동·상개동 독거노인 가정 15세대에 매주 목요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SKC는 치매노인 및 무연고 노인 보호시설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을 월 2회 방문하여 시설 청소, 목욕 봉사, 간식 보조, 말벗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저소득 가정 환경개선

SKC 축구동호회는 울산시 남구 상개동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바닥 장판 교체, 도배 및 전기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

● 사랑의 연탄 배달

SKC는 울산시 남구 선암동·야음동 저소득층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6세대에 사랑의 연탄 총 6,400장을 배달하였다.

SKC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급식나눔	중동 제2복지관	급식 봉사	성남
현충사랑	국립현충원	묘비 닦기, 묘비 글씨 덧쓰기, 잡초 뽑기	서울 동작구
소망	맹인소망원	김장 담그기, 맹인들과 나들이, 소망원 내외부 청소 등	포천
어린이1004	영이어린이집	어린이집 내외부 청소 아이들과 나들이	서울 영등포
나눔	성가복지병원	식사, 병동 보조, 청소, 배식, 설거지 도우미	서울
자연보호	한강고수부지	쓰레기 줍기, 주변 정리 등	서울 잠원지구
울산 자원봉사단	독거노인 15세대	도시락 배달	울산 남구 선암동·상개동
	태화강	복원, 정화활동	울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시설 청소, 목욕봉사, 간식 보조, 말벗 등	울산
	저소득층 가정	벽장·천장·바닥 도배 및 전기시설 보수	울산 남구 상개동
	수연 특수아어린이집 (지체장애 어린이집)	시설 청소, 운동장 만들기	울산 울주군 웅촌면
	울산 남구노인복지회관	울산미술협회 회원 지도로 벽화 그리기	울산 남구
	저소득층 16세대	연탄 배달	울산 남구 선암동·야음동
	오순절 평화의마을	김장 담그기	밀양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범청소년 20명에게 매년 3회 장학금 수여	울산
	한국복지재단 울산지부	청소년 후원사업 협정식 및 후원금 전달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주관	1사 1교 자매 결연식	울산
한마음	1사 1산 광교산	환경보호 및 등산로 복원	항아리회장실↔헬기장
	1사 1하천 서호천	수질보호	선화교↔동남교
	구름포	서해안 기름유출 방제	구름포
	만석공원	공원 환경미화	공원 전체
	온누리아동센터 꽃뫼지역아동센터 희망공부방	청소년 학습지도 및 체험학습	수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유지보수 및 나들이 자원봉사	수원
	정자1동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쌀 전달	수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수원교구 율전동 빈첸시오회	청소년 후원 매칭펀드 후원 (복지관 30명, 천주교 10명)	수원

SK C&C



SK C&C는 자원봉사단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봉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SK C&C는 2007년 IT 전문봉사단을 발족하여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승가원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봉사캠프를 개최하여 행복한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7년 11월 1일 CEO를 비롯한 전 임원이 부부동반으로 한사랑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 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원봉사단 자체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교육은 봉사활동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켜 봉사자와 대상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서, 노력 봉사·나들이 등 기업 봉사의 정형화된 틀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성과 성취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풍선아트'를 활용한 효마당 행사 봉사 및 어르신 대상 '발마사지' 봉사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본부 중심의 봉사조직과 별개의 '전문 봉사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2008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 IT 전문봉사단 활동

SK C&C는 2005년부터 간헐적으로 실시하던 IT 봉사활동을 2007년부터 'IT 전문봉사단'으로 정식 발족하여 결연기관과 IT 교육원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IT 시설 및 운영능력이 열악한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컴퓨터 사양을 파악하고 시스템이 최적화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검사·치료, 악성코드 제거를 비롯 컴퓨터 수리·정비 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정보통신부와 연계한 민관 공동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종의 특화된 전문성을 자원봉사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열정과 공로를 널리 인정받아 연말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제3회 SK C&C 가족봉사캠프 개최

SK C&C 임직원과 가족들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무연고 장애아동시설 '승가원'의 어린이들과 함께 임직원 가족봉사캠프 '행복나눔 가족 농촌체험' 행사를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열었다. 이번 가족봉사캠프에는 승가원 장애아동 32명과 SK C&C 임직원 가족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평소 가족의 따뜻함을 접할 수 없는 무연고 장애아동들이 모처럼 농촌에서 훈훈한 외갓집을 경험했다.
2007년 3회째를 맞은 가족봉사캠프는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캠프파이어, 봉숭아 물들이기, 미니운동회, 인절미 만들기 등 장애아동들과 임직원 가족이 하나되어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 체험의 장이 되었다.

● 제3회 경영층 부부동반 행복나눔 자원봉사

SK C&C는 매년 CEO 및 전 임원이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영층 부부 동반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1월 1일에는 전 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한사랑마을'을 찾아 뇌병변 장애아동들을 위한 목욕 봉사, 식사 및 산책 보조, 생활장애아동 미니 공연 관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시설 식구들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쌀 90포대와 세탁기 2대 등 생필품도 기증했다.
한사랑마을은 1988년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현재 260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SK C&C 자원봉사단은 2004년부터 매월 한두 차례씩 이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입사원 자원봉사

SK C&C 신입사원은 2월과 7월 두 차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육재활원과 한사랑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체험 기회를 갖는 한편, 지체 및 중증장애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청소 봉사, 식사 보조, 만두 빚기, 윷놀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입사원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SK C&C의 기업문화와 애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제3기 사랑의 발걸음

SK C&C 경영지원부문 임직원으로 구성된 햇살봉사단과 재가장애인들이 함께하는 테마여행 '사랑의 발걸음'이 6월 22일부터 이틀간 경남 안동 하회마을에서 치러졌다. 성남지역 재가장애인 15명과 기관 담당자·자원봉사단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한 여행은 안동 한지제조공장 방문, 탈 제작 체험행사, 경북산림과학박물관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 외도 여행, 설악산 여행에 이어 3회째 진행된 장애인 테마여행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인 봉사단원들 간의 유대감 증진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추억을 제공해 참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장애인과 함께 텃밭 가꾸기

SK C&C 다솜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무지개동산 예가원'을 방문하여 장애우들의 식사 보조, 목욕 보조 등의 일상생활 봉사와 함께 기관 내에 있는 텃밭 만들기, 청소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실내에만 있는 장애우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장애우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장애아동과 요술풍선 만들기

SK C&C 나누미 봉사단은 2월 24일 삼육재활관 아이들과 함께 2007년 첫 만남을 갖고, 1년간 신기한 요술풍선 만들기를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요술풍선은 장애아동에게 흥미를 유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집중력 향상 및 신체기능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나누미 봉사단은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남산N타워 숲속 놀이터 봉사활동

SK C&C 거듭나기 자원봉사단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승가원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0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산 N서울타워의 '숲속 놀이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주말농장 활동, 추석송편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아동과 행복한 외출 'GO GO 세상 속으로'

SK C&C 행복나눔 봉사단은 3년 전부터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시설인 '영락 애니아의 집'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현장학습을 진행하였다.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찾기 등 사소한 일상생활들이 장애아동들에게는 큰 도전이며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

SK C&C 제조서비스사업본부 한울타리 봉사단은 매월 연희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자들은 분기별로 독거노인들의 생신상을 차리고 축하해 드리는 한편 저소득층 공부방 아동들과 '싱그러운 봄 이야기'를 주제로 봄꽃을 심고 화분에 담아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3월), 송편 빚기 행사(9월) 등



신입사원들은 두 차례의 자원봉사를 통해 SK C&C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가장애인들과 함께 테마여행을 하는 '사랑의 발걸음'은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나누미 봉사단은 장애아동과 요술풍선을 함께 만들면서 장애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행복나눔 봉사단은 장애아동시설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풍선아트를 복지관 행사에서 선보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봉사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배운 발마사지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참우리 봉사단은 청암노인요양원에서 심기신수련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풍선아트 봉사활동

SK C&C 풍선아트 교육생들은 5월 15일 한솔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은빛사랑 대축제에서 2개월간 배운 풍선아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풍선아트 봉사활동을 통해 강아지·칼·왕관 등을 만들어 주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다.

● 어르신 전문 발마사지 봉사

SK C&C에서는 구성원 봉사역량강화 및 전문 봉사영역 확대를 위해 2개월여에 걸쳐 봉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발마사지를 배운 구성원들이 5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정성노인의집,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 봉사를 펼쳤다. 발마사지 봉사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스킨십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 어르신과 봉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 활동

SK C&C 솔루션본부 한마음 봉사단은 다니엘직업재활원생들을 도와 종이를 접고 붙여 봉투를 만들고 한지를 가지고 전등을 만드는 등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에 참여했다. 다니엘직업재활원생들이 만든 한지공예는 연말에 열리는 SK 행복나눔 바자회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 청암노인요양원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SK C&C 참우리 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암노인요양원을 방문, 심기신수련 활동을 함께하고 식사 보조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우리 봉사단은 심기신수련 봉사활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심기신수련은 육체적·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SK C&C 금융영업2팀
임성준 차장

함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2007년 SK C&C에 입사한 임성준 차장은 '2007 SK C&C 임직원 가족봉사캠프'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봉사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에서 1박 2일로 치러진 이 행사에 중학교 2학년인 딸과 함께 참여한 이후로는 봉사활동, 특히 가족봉사캠프가 얼마나 필요한 활동인지를 깨달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11살 가영이와 '한가족이 되어' 옥수수도 따고 머드팩 · 물놀이도 하고, 또 캠프파이어와 장기자랑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색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딸아이가 가영이를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편견 없이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로 깨달음이 남달랐던 임 차장은 12월 29일에는 가영이를 집으로 초대해 나흘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신정을 쇠는 임 차장의 집에서 가영이는 임 차장의 자녀 및 조카들과 함께 세배도 하고 대형마트에 쇼핑도 다녀왔다.

"가족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가영이도 자연스럽게 '한가족'이 되더군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임 차장은 앞으로도 가영이에게 자신들이 사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줄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 '빨간 코 알루'와 함께하는 뮤지컬 여행

SK C&C 금융본부 거듭나기 봉사단은 승가원 장애아동들을 초청해 '빨간 코 알루' 뮤지컬을 관람했다. 모처럼 생활시설 밖으로 나와 뮤지컬을 보게 된 아이들은 빨간 코 알루와 사진을 찍고 빨간 코를 만져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듭나기 봉사단은 뮤지컬 외에도 외출이 쉽지 않은 승가원 장애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본부 거듭나기 봉사단은 승가원 장애아동들을 초청해 뮤지컬 '빨간 코 알루'를 관람했다.

● 장애아동과 함께 '작은사랑 큰사랑 만들기'

SK C&C 공공사업본부는 장애아동 생활시설 '암사재활원'에서 월 2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목욕과 식사, 김장 담그기 등 장애아동 생활보조뿐 아니라 동반 영화 관람, 뮤지컬 관람 등 장애아동들에게 정기적인 외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공동체 장애아동 마음 들여다보기

SK C&C 인프라사업본부 미드미 봉사단은 6월 28일 '우리공동체' 정신지체 장애아동 20여 명과 함께 인천공항철도 체험 견학을 했다. 공항철도 운전석에 앉아 직접 시운전을 해 보고 인천공항의 여러 시설물을 둘러보며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서로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에는 SK C&C 사옥 인근 탄천수영장에서 우리공동체 장애아동들과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 TR을 활용한 어르신 행복날개 달아 주기

SK C&C는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및 중탑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TR을 활용한 어르신 행복날개 달아 주기' 프로그램을 2년째 지속하고 있다. TR(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주로 하루를 방안에서 보내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바람직한 여가시간 활용 패턴을 알려 드리고 봉사자 및 주변 어르신과의 자연스런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으로 KBS·조선일보 등 각종 매체에 소개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 C&C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T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K C&C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거듭나기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지체장애아동 일상생활(식사·목욕) 및 사색체험활동 보조	서울
나누미	삼육재활관	장애청소년 지역사회 적응훈련 및 여행 장애아동과 요술풍선 만들기	광주
다솜	예가원	정신지체장애인 농장체험 활동보조 및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성남
더불어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아동 등반활동 및 1박 2일 산행캠프	성남
미드미	우리공동체	장애아동 지역사회 익히기	성남
보태미	성심의 집	치매어르신 미술치료 프로그램, 나들이 및 식사보조	서울
사랑누리	소망재활원	뇌병변 장애인 보치아 게임을 통한 재활 지원	성남
산하사랑	새날복지회	공부방 아동 건강테마 프로그램, 산타잔치	성남
아름다운세상	한빛맹아원	시각장애아동 체험교육(자전거타기, 안전훈련 등)	서울
어울림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독거어르신 치료 레크리에이션	성남
예그리나	소망의동산	장애인 일상생활(식사·목욕) 보조 및 농장 가꾸기	광주
온누리	사랑의학교	장애청소년 사회적응 훈련 및 산업현장 교육	성남
우나미	암사재활원	미혼모 장애아동 일상생활(식사·목욕) 및 문화공연 관람 1일 부모 되기(어린이날 행사)	서울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정나모	성모자애복지관	미인가대학 정신지체 장애청소년 경제활동서비스 교육	서울
징검다리	한사랑마을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일상생활(식사·목욕) 보조 및 외식 나들이	광주
참우리	청암노인요양원	어르신 건강체조 및 안마 지원, 계절별 四色나들이 활동 지원	서울
파랑새	주몽재활원	뇌병변 장애아동 일상생활(식사·목욕) 및 재활체육서비스 보조	서울
한마음	다니엘직업재활원	성인 장애인 사회체험 프로그램 보조	서울
한울타리	연희노인복지시설 목련의집	1+3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어르신·봉사자·아동), 경로식당 배식, 나들이	서울 울산
햇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임마누엘의집	재가장애인 가정환경 개선 서비스 및 이동목욕 서비스, 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사랑의 발걸음'	성남 성남
행복나눔	영락애니아의집	뇌병변 장애아동 지역사회시설 이용학습(우체국·은행·지하철 등)	서울
IT 봉사단	결연기관	PC 점검 및 정비	-
SK for U	정성노인의집	음악·원예 프로그램, 어르신 작품 전시회	성남



SK건설 자원봉사단은 매주 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생활실 청소, 산책 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SK건설 2007년 상반기 138명의 신입사원들은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이웃들과 함께 행복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SK건설은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활동을 펼쳤다.

SK건설

● 청운양로원 봉사활동

SK건설 자원봉사단은 2004년부터 매주 화요일 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생활실·목욕실 청소, 레크리에이션 활동, 말벗되어 드리기, 산책활동, 문화공연 관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정기봉사 외에도 생활이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영화 관람, '오즈의 마법사 콘서트' 관람 등의 이벤트를 열고 있으며, 연말에는 워커힐 쇼 관람 등의 위로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 신입사원 자원봉사활동

SK건설 2007년도 상반기 신입사원들은 지난 1월 26일과 2월 8일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총 138명의 신입사원들은 10개조로 나뉘어 은파노인복지사업소,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등 10개의 복지단체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진행, 환경미화, 식사 보조, 시설 개보수 및 청소 등의 행복나눔 활동을 펼쳤다.

●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활동

SK건설은 5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와동초등학교에서 '조선일보와 함께하는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놀이터 시설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웅석 사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놀이터 모래방지턱 시공, 놀이시설 페인트칠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외에도 SK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활동을 펼쳐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제3공구 현장에서는 충북 보은군 현장 인근에 위치한 회인초등학교에 이동식 배구대와 책가방 걸이대를 설치하는 등 놀이터 시설관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원평-금구 간 도로현장에서는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원평초등학교 내에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조성·기증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생활 학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SK건설 자원봉사단은 8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SK건설 임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락 세척부터 음식 조리·포장·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SK건설은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음식의 조리에서부터 포장·배달을 도왔다.

SK건설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청운양로원 봉사	청운양로원	양로원 생활실 및 목욕실 청소, 레크리에이션 활동, 말벗되어 드리기, 산책, 기타 문화공연 관람 등	서울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	창덕궁	문화재 유지 관련 청소, 잡초 제거, 고건물 및 주변 청소 등	서울
덕수궁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	덕수궁	잔디밭 낙엽 수거·잡초 제거 등 문화재 주변 정리, 고건물 청소 작업 등	서울
서울고객센터 봉사단	저소득층 가정	주거개선활동 - 내부 도배, 바닥재(장판), 화장실 및 주방타일 시공, 다용도실 도장, 등기구 교체, 외부도장 등 행복장학금 전달 - 대상 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등	서울
수도권고객센터 봉사단	저소득층 가정	주거개선활동 - 내부 도배, 바닥재(장판), 화장실 및 주방타일 시공, 다용도실 도장, 등기구 교체, 외부도장 등 행복장학금 전달 - 대상 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등	수도권
중부고객센터 봉사단	저소득층 가정	주거개선활동 - 내부 도배, 바닥재(장판), 화장실 및 주방타일 시공, 다용도실 도장, 등기구 교체, 외부도장 등 행복장학금 전달 - 대상 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등	중부
영남고객센터 봉사단	저소득층 가정	주거개선활동 - 내부 도배, 바닥재(장판), 화장실 및 주방타일 시공, 다용도실 도장, 등기구 교체, 외부도장 등 행복장학금 전달 - 대상 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등	영남
안전환경 행복나눔 봉사단	건설현장 인근 주민 및 아동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환경사랑 체험교육,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 등	전국

SK해운

●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SK해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벽지·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해운 신입사원들이 사내교육기간 중인 1월 31일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도배작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SK해운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벽지·장판 교체 등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벌였다.



손가락출판사는 임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많은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은 제3회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증정했다.



연탄 나눔은 이정화 사장이 매년 SK해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K해운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은 매주 1회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SK해운 이정화 사장과 자원봉사단은 12월 24일 울타리공동체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가락출판사

SK해운 손가락출판사 자원봉사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도서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싶다고 신청한 책을 한글(hwp) 파일로 입력하여 전자도서의 기초 재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자신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입력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 벌룬아트 자원봉사 풍선 증정

SK해운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은 4월17일 남산 국립중앙극장 광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에 참여하여, 걷기대회에 참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자원봉사자·일반 시민에게 풍선을 만들어 증정하며 웃음을 함께 나누었다.

● 사랑의 연탄 나눔

SK해운은 11월 12일 이정화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용산구 후암동 저소득층 가구에 총 6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행사는 고유가와 경기불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과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SK해운 경영층의 바람과 솔선수범으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따뜻한 자원봉사의 손길은 200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거주하고 있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모금한 식권으로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잔치 봉사활동

SK해운 자원봉사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 울타리공동체 봉사활동

SK해운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시설 '울타리공동체'를 방문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월에는 신입사원들이 방문하여 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5월에는 각종 야채의 모종을 심는 활동, 7월에는 콩을 심고 그 이외의 잡초 제거, 10월에는 한국시리즈 동반 관람, 12월에는 성탄절 파티를 실시하였다. 특히 12월 24일 성탄절 파티에는 이정화 사장이 참석하여 각각의 원생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고 케이크와 음료 등을 함께하고 풍선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날 SK해운 임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였다.

● 김장 나누기 행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가하여 배추 손질하기, 배추 절이기, 배춧속 만들기, 양념하기 등의 일을 도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목욕 봉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매월1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인근 목욕탕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목욕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도 목욕 보조는 어르신들에게 절실한 것으로, SK해운의 따뜻한 손길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SK해운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주거환경개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벽지·장판 교체	서울 중구
수상구조대		수상사고로 인한 재난과 인명 보호 맑은 한강 가꾸기 사업을 위한 오물 수거 한강오염원 감시활동 어린이 및 청소년 수상체험활동	한강
도시락 나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 배달	서울 중구
농활	울타리공동체	일손 돕기 문화체험 기회 제공	파주
해양캠프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주문진
벌룬아트	행사장	소외계층이 참가하는 행사에 매직 풍선 증정	
문화 나들이	영화관·공연장	소외계층에 문화체험 기회 제공	
손가락출판사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음성도서 제작 지원	
학습지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서울 중구
야구교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서울 중구
목욕 봉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목욕 봉사	서울 중구
방선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에게 해양문화체험 기회 제공	울산

도시락을 배달하며 인생을 생각합니다

SK해운 LNG선팀
문주희 대리



문주희 대리는 몇 년째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2004년 7월, 그룹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진 뒤부터이다. SK해운의 일명 '도시락 나눔'팀 33명은 매주 목요일이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서울 중구 소재 아홉 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배달한다. 도시락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준비하지만, 도시락 배달과 수거는 도시락 나눔팀이 담당한다.

독거노인들의 대부분이 남대문 시장 근처의 높은 곳에 사는 데다 좁다란 골목길을 가야 하는 탓에 도시락 배달은 회사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몸으로 때워야' 하는 중노동이다. 33명의 도시락 배달원들은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지만, 문 대리는 이 모임의 코디를 맡은 덕분에 한 달에 두세 번씩 배달원이 된다.

"동료들에게 전달사항·일정·배달위치 등을 전해야 하고 또 배달도 다른 동료보다 자주 해야 하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제때 드실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습니다."

도시락 나눔팀은 도시락 수거 및 배달에 그치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사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빵과 음료 등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서 도시락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보며,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울 수 있다면 열심히 돕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SK증권 종로지점은 대학로선교회와 함께 매월 1회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SK증권 수원지점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목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K증권 임직원들은 교남 소망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저녁식사 준비·배식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K증권

●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

SK증권 종로지점은 2005년부터 대학로선교회와 함께 매월 1회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로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종로지점뿐만 아니라 본사 임직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로 내에서 SK증권의 고유한 자원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월 18일에는 김우평 사장 및 임원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노숙자들을 돕는 대학로선교회에 기부금 100만원과 양말 1,000켤레를 기부하였다.

● 임직원 1% 나눔 봉사활동

SK증권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1인 1봉사 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K증권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본사와 지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서부지역본부·동부지역본부·영남지역본부의 4개 지역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봉사단 산하의 부서·지점을 기본 단위로 54개 봉사팀이 지속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장애인,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SK증권 수원지점은 매월 수원시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년간 매월 실시함으로써 지속성과 진정성을 높여 SK증권 자원봉사단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목욕 봉사와 더불어 복지관 아동들의 생일잔치를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시설 '교남 소망의 집' 자원봉사

SK증권 봉사동호회 '나눔회' 와 리서치센터·자산운용본부 직원들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남 소망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저녁식사 준비 및 배식,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3월, 5월, 9월, 11월에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청소년 보호시설 남산원 봉사활동

남산원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청소년 보호시설로 2005년부터 SK증권 Wholesale사업본부·상품본부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 곳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경제교실, 아쿠아리움 방문, 놀이동산 방문, 캠프파이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방문하여 도배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봉사활동

SK증권은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여성 보호시설로, 2001년 SK증권 IT지원실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4년 SK증권 자원봉사단 결성 이후부터는 봉사단 차원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여성 보호시설이라는 특성상 남성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IT지원실 봉사단은 청소, 빨래, 채소 경작, 주변환경 정비 등으로 일을 분담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외에도 2007년 12월에는 온풍기 등의 물품을 기증했다.

● Smile Kids 봉사단 봉사활동

2007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Smile Kids 봉사단'은 SK증권 기업문화실과 감사팀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이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알게 된 영등포지역 결식아동들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놀이문화 활동을 갖고 있다. 봉사단은 2월 요리 만들기를 시작으로 여의도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 타기, 놀이동산 나들이, 영화관람 등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 가고 있다. 12월에는 성탄절을 맞아 선물을 전달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비 등의 활동을 펼쳤다.



'Smile Kids 봉사단'은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영등포 지역 결식아동들과 더불어 다양한 놀이를 함께 했다.

SK증권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별(지점별 운영)	대상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경안지점	아동	광주꽃보리푸른학교	시설수리, 청소, 저녁식사 보조	경기 광주
경영지원부문	장애인	늘푸른나무복지관	청소, 작업장 개선	서울
구서지점	아동	저소득층 아동	기부금·쌀 전달	부산
기업문화실·감사팀	아동	영등포 결식아동	나들이, 생일파티, 레크리에이션	서울
나눔회	아동·장애인	교남 소망의 집	나들이, 식사 보조, 청소	서울
논현지점	장애인	위캔	장애인 목욕, 식사 보조	서울
대구서지점	기타	대구지역 실업계고 교사	증권 경제교실	대구
대구지점	아동	삼영초등학교	경제교실	대구
대전지점	아동	대전성심보육원	경제교육, 레크리에이션	대전
대치역지점	어르신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배식, 청소	서울
리서치·자산운용	장애인	교남 소망의 집	나들이, 식사 보조, 레크리에이션	서울
부산·구서·해운대	어르신	부산 반송동	독거노인 연탄 배달	부산
삼천포지점	어르신	삼소원	청소, 식사 보조	사천
상무지점	어르신	장평면	농촌봉사	광주
성남지점	아동	과천시 부림아동센터	체육활동, 청소	경기도
성서지점	저소득층	성서신당복지관	김장	대구
수원지점	아동·장애인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목욕 봉사	수원
안산지점	아동	사랑의집	청소, 환경정비	안산
왜관지점	어르신	분도노인마을	청소, 세탁	왜관
이천지점	장애인	에덴의집	환경개선, 레크리에이션	이천

SK증권 수원지점
김도균 지점장

목욕 봉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는 시간



김도균 지점장은 매월 한 차례씩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갈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초등학교 1~3학년의 저학년 꼬마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처럼 김 지점장과 직원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들이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어 주고 간식거리도 사 주기 때문이다. SK증권 수원지점에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를 시작한 것은 2006년 초.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아이들은 방과후에 복지관에서 생활하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일반 아이들과 달리 목욕조차 여의치 않아 매월 한 번씩 목욕탕에 가는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직원 한 명당 보통 2~3명 때를 미는데, 아이들과 투닥투닥 하다 보면 두세 시간은 금방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목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복지관에서 '목욕탕에 안 데려간다'고 할 정도예요. 아이들의 때를 벗겨 줄 땐 좀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의 때를 벗기는 기분입니다."

김 지점장은 목욕 봉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갖는 외식과 연말 즈음 복지관 측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이라며 흐뭇해한다.

봉사팀별(지점별 운영)	대상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전주지점	도서지역 아동	식도초등학교	경제교실, 영화 관람, 나들이	전북
종로지점	저소득층	대학로선교회	무료급식(CEO·임원 참석)	서울
중동지점	아동	인천부흥초교	어린이 경제교실	인천
진주·서진주지점	아동	경남하동 농촌아동	경제교실, 청소, 대화, 가정 방문	경남
창원지점	어르신	동진복지센터	청소, 식사도움	창원
포항지점	아동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경제교실, 바자회, 환경개선	포항
IB사업부문	아동	서울SOS어린이마을	사랑나눔대바자회 참가	서울
IT지원실	장애인·어르신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빵 만들기, 청소, 성탄절 트리 제작	서울
Retail사업본부	장애인	환한웃음의집	김장, 연탄 배달, 환경정비	충남
Wholesale사업·상품본부	아동	남산원	경제교실, 체험학습, 김장, 나들이, 식사	서울



워커힐은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을 갖고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음식 제공 및 식사 보조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워커힐은 10여 년 전부터 양평 '은혜의 집'에서 대청소, 목욕 도우미, 말벗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워커힐은 SK텔레콤, SK텔링크, SK C&C와 함께 6월 3일 열린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에 물품을 후원했다.

워커힐

●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워커힐은 11월 23일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행사로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음식 제공 및 식사 도우미, 생필품 지원, 전자제품(세탁기) 기증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파주양지무료노인복지원을 방문하여 대청소 및 시설 점검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워커힐 구내 이발소가 이발 봉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인 오성주유소에서 생필품을 후원하여 더 큰 행복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 은혜의 집 봉사활동

워커힐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양평 '은혜의 집'을 방문하여 대청소, 목욕 도우미, 말벗 도우미, 전기시설 점검, 식사 도우미, 휠체어 산책, 이발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용종 사장이 직접 참가하여 은혜의 집에서 만든 비누를 구입하고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시설팀은 대용량 청소기를, 산악회는 운동기구를 기증했다.

●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봉사활동

워커힐은 6월 3일 개최된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에 생수 700통을 후원하였다. 이 체육대회에는 워커힐 외에도 SK텔레콤이 도시락 600인분을, SK텔링크 및 SK C&C가 각 500만원 상당의 국제전화카드를 지원하여 SK의 '따로 또 같이'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 결연단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캠프

워커힐은 평강회 동우회 주관으로 자매결연 단체인 '하늘이네 집' 식구들을 2005년부터 하계휴양소로 초청,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고 있다. 2007년 여름캠프에는 평강회 회원뿐만 아니라 어울림 동우회도 함께해 하늘이네 집 식구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1박 2일이 되었다.

●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워커힐 사업개발본부(시설팀)는 협력업체와 함께 인근지역 소외계층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 도배, 장판 교체, 전기(형광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점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워커힐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워커힐 자원봉사단	아차산	아차산 자연환경 보존활동	서울 광진구
	중랑천	중랑천 환경보호 캠페인	서울 광진구·중랑구
	화성영아원 하늘이네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물품 및 현금 후원	서울 광진구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중식 배식 및 생필품·전자 제품 기증	서울·경기
	파주양지무료노인복지원	물품 후원 및 이발·청소 봉사	서울·경기
	양평 은혜의집	전자제품 기증, 식사 도우미, 청소·목욕 봉사, 말벗 도우미, 전기시설 점검, 이발 봉사	경기도
면세사업본부	화성영아원	간식 및 장난감 지원, 청소 봉사, 공연 관람	서울 광진구
W호텔 사업본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외국어(영어) 교육	서울 광진구
외식사업본부	독거노인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무료식사 제공	경기 · 인천
전략본부	광진구 65세 이상 저소득층	매월 1회 광진구 65세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대상 30만원 지원	서울 광진구
사업개발본부	소외계층	도배, 장판 교체, 전기(형광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점검	서울 광진구
쉐라톤호텔 사업본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속공연 협찬	서울 광진구
	구리시청	동구릉 건원문화제 민속공연	구리
	광진구청	광진구청 주관 고구려축제 기념 민속공연	서울 광진구
	청운수양원	땔감용 나무 지원	경기
기업문화실	하늘이네집	밑반찬 전달	서울 광진구
평강회	하늘이네집	문화공연 관람 및 방학 캠프 활동	서울 광진구



워커힐 평강회는 하늘이네 집 원생들을 하계휴양소로 초청해 여름캠프를 열고 1박 2일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워커힐 사업개발본부 시설팀은 인근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도배 및 장판 교체, 전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

SK E&S

● 태안 기름방제 자원봉사

SK E&S와 자회사 임직원 470여 명은 12월 26일~27일 이틀에 걸쳐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해수욕장 부근에서 바위와 자갈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봉사활동은 SK E&S와 자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자원봉사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 손질 봉사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는 물품 손질·가격 매김·운반·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SK E&S는 특히 일손이 부족한 손질봉사 영역에서 2007년 10월부터 총 3회에 걸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SK E&S는 자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태안에서 기름방제 봉사활동을 벌였다.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품을 손질하는 데 SK E&S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손을 도왔다.



부산도시가스 자원봉사단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배달했다.



부산도시가스는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소화영아재활원에 분유와 세제류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부산도시가스는 성탄절을 맞아 동산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선물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웅기를 북돋았다.



포항도시가스는 노인복지시설 정애원을 방문하여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시가스는 순천의 YMCA 노인복지식당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SK E&S는 일산지역 소외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월드비전 일산지부 사랑의 도시락 나눔센터에서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 인수원 봉사활동

SK E&S는 무의탁노인 양로시설 '인수원'을 연 2회 방문해 시설환경 조성 및 월동 준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생필품을 기증했다.

● 부산도시가스 - 사랑의 도시락 지원

부산도시가스는 2007년 6월 말부터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에서 추천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 10세대에게 회사 구내식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매일 지원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 자원봉사단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3개조(2인 1조)를 구성, 독거노인 가정에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 부산도시가스 - 소화영아재활원 봉사활동

부산도시가스는 5월 19일 천주교 성바오로수녀회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감만동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활원의 강당 및 숙소 주변을 청소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분유와 세제류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 부산도시가스 - 사랑의 선물 전달

부산도시가스 자원봉사단원 10여 명은 12월 21일 부산시 수영구 소재 동산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2곳을 찾아 성탄절 이벤트를 진행했다. 자원봉사단원들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미리 준비한 책과 장난감 그리고 스포츠용품 등을 성탄절 선물로 전달했다.

● 영남에너지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정신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사랑의 쉼터'를 찾아 교실 환경정리, 농장 운영, 울타리 조성, 휴게실 조성, 시설 개·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보호시설 '성심요양원', '김천베다니성화원' 결손가정 어린이 보호시설 '상록모자원' 등에서 일손 돕기, 나들이 보조, 숙소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포항도시가스 -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

포항도시가스는 4월 14일 노인복지시설 '정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애원은 5년 전부터 포항도시가스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봄을 맞아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대청소를 실시하고 잡초·낙엽 등을 깨끗이 청소했다.

● 포항도시가스 - 행복나눔 김장행사

포항도시가스는 11월 17일 제철동사무소 부녀협의회와 함께 인덕동 상가 공터에서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실시했다. 포항도시가스는 이날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철강공단 관내 제철동 영세가정 100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도시가스 - YMCA 노인복지식당 배식 봉사활동

전남도시가스는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0월 16일 순천시 조곡동 YMCA 노인복지식당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 강원도시가스 - 산업단지 환경정화활동

강원도시가스는 10월 26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춘천시 후평공단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1시간 일찍 출근해 회사가 속해 있는 후평공단 주변의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했다.

● 강원도시가스 - 나눔의 동산 동절기 준비 지원

강원도시가스는 10월 9일 춘천시 지암리 소재 '나눔의 동산'을 찾아 주변환경 정리와 땔감 마련 등 동절기 준비 지원활동을 했다. 강원도시가스는 정기적으로 나눔의 동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시가스는 나눔의 동산을 찾아 주변환경 정리를 비롯하여 땔감 마련 활동으로 동절기 준비를 도왔다.

SK E&S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SK E&S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아름다운가게 용답되살림터	기증품 운반, 분류, 가격매김 등 재활용품 손질	답십리센터
	사랑의 도시락 나눔	소외계층 아동들의 석식 도시락 만들기 및 포장 (1회 140인분 조리)	일산
	인수원	노인요양원시설 환경개선 자원봉사	평택
	태안	기름유출사고 복구지원 해수욕장 바위 및 주변 청소	학암포해수욕장

부산도시가스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부산도시가스 봉사단	감만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부산 남구 감만동
	애광원	청소 및 가스기기 점검	애광원
	신망애 노인요양원	청소 및 빨래 물품 후원	부산 사상구
	금정산	등산로 휴지 줍기	부산 금정산
	소화영아재활원	청소 및 빨래, 물품 후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청소	부산 수영구
	송도해수욕장	해변 청소	부산 서구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청소	부산 해운대구
	장산	등산로 휴지 줍기	부산 해운대구
	남천동	도로 및 골목 청소	부산 수영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가정 15세대 도시락 배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안전공급2팀	저소득층	저소득 가정 가스레인지 무료교체	부산 진구·영도구
공무팀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부산도시가스 봉사단	신애재활원	청소, 놀이, 배식, 물품 후원	부산 부산진구
	저소득 가정	연탄 배달	부산 남구
	저소득 가정	김장 배달	부산 해운대구
	저소득 가정	쌀 배달	부산 기장·해운대
	고아원 및 아동센터 어린이	사랑의 산타 보내기 - 선물 전달	부산 수영구
	태안	기름 제거	태안
영업2팀	소화영아재활원	청소 및 물품 전달	부산

(주)충남도시가스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나누우리	한울타리	독거노인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쿠키 만들기	대전
나누우리	중촌사회복지관	도시가스 공급 및 시설 지원 독거노인 가사 방문 독거노인 무료급식	대전
충남도시가스 전 구성원	월평사회복지관	도시가스 공급 및 시설 지원 독거노인 가사 방문 독거노인 무료급식	대전
경영지원팀 안전공급1팀	갑천주변 정화운동	3대 하천 살리기 위한 하천 주변 정화운동	대전
안전정비팀 안전관리팀	생명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및 도시락 배달	대전
공무팀	-	CO_2 1% 줄이기 운동, 자전거타기운동 캠페인	대전
영업팀 영업지원팀	중촌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방문 독거노인 무료급식	대전
안전공급2팀 고객지원팀	계족산	계족산 살리기 운동 쓰레기 수거 및 나무 심기	대전
충남도시가스 전 구성원	대한적십자	전 구성원 헌혈봉사(130명)	대전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사랑의쉼터	시설 개보수, 농장운영 등	구미 도개면
	성심요양원	농작물 재배, 땔감 나르기 등	구미 선산읍
	김천베다니성화원	뮤지컬 관람, 함께 요리하기 등	김천 덕곡동
	상록모자원	견학, 사랑의 고리 만들기, 나눔장터	칠곡군 왜관읍
	대성지저수지	환경정화활동	구미 남통동
	김천 직지천	환경정화활동	김천
	구미 천생산	환경정화활동	구미 구평동
	구미장애인복지관	영화관람, 예절교육, 질서지키기 외	구미 형곡동
	낙동강 강변도로	환경정화활동 및 폐기물 수거	구미 공단동
	소외어린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구미·김천 동시 참석)	구미 송정동
		제4회 사랑의 산타 보내기 행사	김천 평화동
	태안	기름 오염지역 복구 활동	학암포해수욕장

충청에너지서비스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청사랑	은혜의집	목욕 및 청소 봉사	청주
안전공급팀	베데스다의집	주변 정리	청주

전남도시가스(주)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노인복지식당	점심 배식, 청소, 설거지	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장 담그기	순천

포항도시가스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정애원	목욕 봉사, 노인 돕기	포항 북구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불우어린이 돕기	포항 남구
	대명지역아동센터	불우어린이 돕기	포항 북구
	선린애육원	불우어린이 돕기	포항 북구
	제철동	장애인·독거노인·생활보호대상자 돕기(김장 나눔)	포항 남구
	월드비전	독거노인·저소득층 연탄 배달	포항 북구
	태안	기름 제거	태안
	저소득층	가스 점검	포항 남구·북구

강원도시가스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함사모	나눔의동산	정기 성금 전달(연 3회) 정기 위문 방문 및 노력봉사	춘천
	보금자리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선도	춘천
	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후원(연 1회) 불우이웃 연탄 배달 행사(연 1회)	춘천 춘천
	행복나눔터 1호	목욕봉사 및 물품지원 정기 성금 전달(연 3회)	춘천
	행복나눔터 2호	정기 성금 전달(연 3회)	춘천
	행복나눔터 3호	가스시설 무료 설치(공사·보일러·가스레인지) 양로원 노력 봉사 및 물품 지원	춘천
	예담교회	매주 화요일 사랑의 도시락 배달	춘천
	월드비전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무료급식 배식	춘천
	산업단지	산업단지 환경정화활동	춘천
	춘천시립노인복지관	독거노인 가정 도배 및 장판 교체	춘천
	고교(춘천고 외 5개)	분기별 장학금 지급(120만원/인)	춘천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영보은혜의 집	전기설비, 제초·정원관리, 식사 제공	함열 나환자촌
	시온육아원	수영장 도색, 배수작업, 놀이터 제공, 식기 세척, 정 나누기, 어린이날 행사	왕궁
	기독삼애원	매월 생일잔치, 연말 송년잔치	익산
	호월리마을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익산
	배산	배산주변 환경정화(청소) 자연보호활동	익산
	익산시 및 종교단체와 공동	사랑의 김치 나누기	익산
	전북지역 SK계열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익산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사랑의 쌀 나누기	익산
	태안	기름 제거	태안
	지역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생대회	익산
	2산단	하천정화활동	익산



SK가스 본사 임직원들은 은평재활원에서 점심 배식, 목욕 봉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SK가스 울산기지는 매월 자원봉사의 날을 정하여 애리원·나눔터 등의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K가스 평택기지는 안식의집·열린재활원·동명복지재단에서 식사 준비, 목욕 봉사를 비롯 주변시설을 정비했다.

SK가스

● 본사 정기 봉사활동

SK가스 본사 임직원들은 전 직원이 10개조로 나뉘어 매주 화요일에 은평구 소재 은평재활원에서 점심 배식, 목욕 봉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울산기지 정기 봉사활동

SK가스 울산기지는 매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애리원·나눔터 등의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가정에서 식사 준비, 목욕 봉사, 주변시설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평택기지 정기 봉사활동

SK가스 평택기지는 매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식의 집·열린재활원·동명복지재단을 방문해 식사 준비, 목욕 봉사, 주변시설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가스 울산기지
이석우 선임대리

어려운 이웃들이 좀더 편해질 수 있다면



이석우 선임대리는 울산기지의 봉사활동이 작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전 직원을 통틀어 43명에 불과하지만, 두 곳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보살피는 봉사활동은 그 어떤 일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시작해 이듬해부터 본격화한 울산기지의 봉사활동은 회사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지체장애인시설 '애리원'과 또 다른 복지시설인 '나눔터'를 매월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전개된다. 90여 명이 생활하는 애리원의 경우 임직원 가족들을 포함해 20~30명이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목욕 봉사를 비롯해 시설 보수 및 청소, 잡초 제거, 페인트칠, 생필품 전달 등 시설이 가려운 부분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 10명이 생활하는 나눔터 역시 봉사인원은 다소 적지만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주 만나고 얘기하면서 제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몸은 불편한 대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이 밖에도 이 선임대리는 매월 한 번씩 4~5명의 직원들과 함께 세 명의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 주로 청소 · 빨래 등 몸으로 부딪치는 일이지만 마음만큼은 부모님을 대하듯 성심성의껏 모시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SK가스 임직원 자원봉사팀 현황

봉사팀 명	봉사처	봉사활동 내용	활동 지역
본사	은평재활원	점심 배식, 목욕 봉사, 청소	서울
울산기지	애리원 나눔터 독거노인(개인)	식사 준비, 목욕 봉사, 주변시설 정비	울산 인근
평택기지	안식의집 열린재활원 동명복지재단	식사 준비, 목욕 봉사, 주변시설 정비	평택 인근
국내 영업지사 (수도권, 충청, 경북, 경남, 강원, 호남지사)	사회복지시설	노력 봉사	영업지사 소재지
중국 지사	사회복지시설	헌혈	중국 청도

함께 나눈 사랑, 행복의 씨앗을 뿌리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딛는 한 걸음이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
우리들이 내민 작은 손길은 아이들에게 꿈을 되찾아 주고,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곳곳에서 함께 나눈 SK의 사랑으로 세상의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행복의 크기가 조금 더 자랐다.

자원봉사 현황

봉사팀 수

2004	219
2005	322
2006	377
2007	383

봉사단원 수

2004	7,073
2005	13,799
2006	18,780
2007	20,601

봉사단 가입률

2004	36.2%
2005	70.5%
2006	83.1%
2007	88.4%

봉사시간

2004	108,997
2005	209,954
2006	329,701
2007	382,124

1인당 봉사시간

2004	15.4
2005	15.2
2006	17.6
2007	18.5

봉사 연인원

2004	16,908
2005	42,586
2006	44,780
2007	67,308

임원 봉사 연인원

2004	154
2005	731
2006	828
2007	871

임원 봉사시간

2004	661
2005	3,515
2006	4,888
2007	6,128

임원 1인당 봉사시간

2004	8.6
2005	14.0
2006	15.2
2007	15.6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현황

(일자리 창출 숫자)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2005	34
2006	68
2007	125

227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2005	122
2006	92
2007	57

271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2005	17
2006	392
2007	1,506

1,915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2006	300
2007	212

512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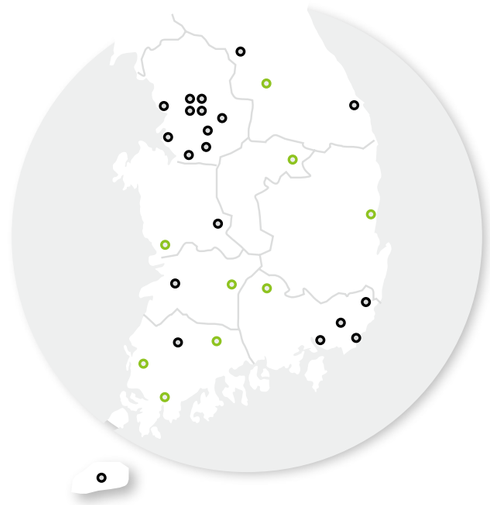
2005	437
2006	1,096
2007	1,253

2,786

1318 해피존 전국 2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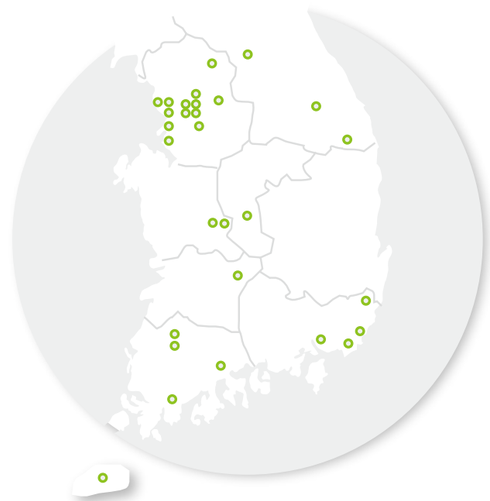
● 도시형 (20개소)
● 농산어촌형 (9개소)

서울	서대문 (서대문) 새움터 (광진) 무지개빛 청개구리 (송파) 희망오름 (관악)
인천	까르페디엠 (인천)
경기	모람 AGIT (성남) 아람 (용인) 우리 (부천) 꿈꾸는 숲 (평택) 민들레꽃 피우기 (하남)
대전	하늘세상 (대전)
충남	청꿈 (서천)
전북	행복스케치 (군산) 디딤돌 (장수)
광주	인디고 아이들 (광주)
전남	웃음꽃땅 (곡성) 푸른누리 (강진) 나비뜰 학당 (함평)
강원	한림 (춘천) 파란바다 (강릉) 초록세상 (홍천)
충북	Blue Vision (단양)
경북	I CAN DO IT (영덕)
울산	울산 (울산)
부산	꿈&꾼 (부산)
경남	행복지대 (진해) 사과나무 (김해) 도담다담 (거창)
제주	찬란한 미래 (제주)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전국 29개소

서울	중구점 (1호점) 강서점 (11호점) 노원점 (12호점) 관악점 (22호점) 송파점 (29호점)
인천	서구점 (2호점) 남구점 (4호점) 동구점 (25호점)
경기	포천점 (5호점) 부천점 (8호점) 성남점 (13호점) 남양주점 (15호점) 안산점 (21호점)
대전	동구점 (16호점) 대덕점 (19호점)
충북	보은점 (10호점)
전북	진안점 (28호점)
광주	북구점 (17호점) 서구점 (23호점)
전남	순천점 (6호점) 장흥점 (20호점)
강원	화천점 (3호점) 태백점 (9호점) 평창점 (18호점)
울산	동구점 (24호점)
부산	해운대점 (14호점) 서구점 (27호점)
경남	진해점 (7호점)
제주	제주점 (26호점)



2007 SK 사회공헌활동 대외 수상 현황

	수상자	수여기관	포상명	수상사유
SK	SK그룹	민관협력포럼	최우수상 · 행정자치부 장관상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SK그룹	교육인적자원부	감사패	1318 해피존 등 교육 발전 기여
	SK그룹	보건복지부	감사패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SK 에너지	SK에너지	한국경영관련학회 (26개 학회 공동)	최우량기업상	탁월한 경영실적 및 우수한 사회공헌활동
	SK에너지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상	보훈문화 저변 확산에 공헌
	SK에너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장	'장애인 먼저' 실천에 기여
SK 텔레콤	SK텔레콤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기업 사회공헌부문상	사회공헌 분야 발전에 기여
	SK텔레콤	한국윤리경영학회	기업윤리대상	사회공헌, 상생경영 등
	SK텔레콤	경기도	경기도지사상	자원봉사활동(봉사팀 미래나눔회)
	SK텔레콤	베트남 호치민 청년동맹	감사패	베트남 Sunny 자원봉사
	SK텔레콤	구세군	감사패	무료급식 차량, 모바일 기부 프로그램
	SK텔레콤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	표창장	자원봉사활동(봉사팀 한아름)
	SK텔레콤	부산노인건강센터	감사패	자원봉사활동(봉사팀 한아름)
	SK텔레콤	대구 가정복지회	감사패	자원봉사활동(봉사팀 한아름)
	SK텔레콤	대전시청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지역주민연대(봉사팀 행복날개 온)
	SK텔레콤	대전지방검찰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	감사패	자원봉사활동(봉사팀 행복날개 온)
SK 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감사장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지원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	강서 교남 소망의 집	감사장	지속적 봉사활동
SK 케미칼	수원공장 아세테이트생산팀	수원 청솔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체부문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울산공장	한국복지재단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케미칼	서울장애인복지관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케미칼	주보라의집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케미칼	한국우진학교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C	SKC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C	한국복지재단	감사패	청소년 후원
	수원공장	수원시립요양원	감사패	요양원 시설 유지 보수 및 봉사활동
SK C&C	SK C&C	경기도	경기도지사상	기업 자원봉사활동
	SK C&C	경기도	경기도지사상	자원봉사 사진공모전(가족봉사캠프)
	SK C&C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감사패	성남 IT 교육원 지원
	SK C&C	정보문화진흥원(정통부)	감사패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IT봉사단)
	SK C&C	정성노인의 집	감사패	자원봉사활동(SKforU 봉사단)
	SK C&C	한국복지재단	회장상	자원봉사활동(어울림 봉사단)
	SK C&C	예가원	감사패	자원봉사활동(다솜 봉사단)
	SK C&C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표창장	자원봉사활동(햇살 봉사단)
	SK C&C	청암노인요양원	감사패	자원봉사활동(참우리 봉사단)
	SK C&C	한빛맹아원	감사패	자원봉사활동(아름다운세상 봉사단)
SK 건설	SK건설	제주시	제주시장 감사패	태풍 피해복구 지원
	SK건설	태국대사관	감사패	쑹끄란축제 지원
	SK건설	청운양로원	감사패	지속적 봉사활동
	SK건설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감사패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감사패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청록재단	감사패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활동
SK 해운	SK해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장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WALKERHILL	워커힐	서울시	봉사상(장려상)	아차산 유적지 환경개선
	워커힐	광진구청	감사패	아차산 고구려 축제
	워커힐	지구촌 공생회	감사패	민속공연, 소외계층 후원
SK E&S	충남도시가스	계룡학사	감사패	중촌사회복지관 도시가스 공급 및 시설 지원
	충남도시가스	다원	감사패	독거노인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쿠키 만들기
	충청에너지서비스	충청북도지사	사회공헌 모범기업 표창장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요금 지원
	충청에너지서비스	청주시장	표창장	청주 무심천 환경정화활동
	포항도시가스	경상북도지사	감사인사장	소외계층 가스점검
	포항도시가스	포항시장	표창장	정애원에서의 봉사활동
	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시	최우수상	익산시 자원봉사 박람회
	전북에너지서비스 이재훈	익산시	익산시장상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전북에너지서비스 구양호	익산시	소방서장상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시	사진부문 장려상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전북에너지서비스	전라북도	자원봉사 도지사상	기업 자원봉사활동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 공동체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웃의 아픔과 굶주림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곧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마더 테레사이다.

광주시 남구 방림 2동 74-3번지에 자리한 '성요셉의 집 사랑의 식당'. 이곳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머니의 정성 같은 밥상이 펼쳐진다. 8년 전부터 수녀회에서 운영해 온 사랑의 식당은 비교적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방림 2동을 중심으로 남구지역 무의탁 독거노인 150여 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00명 가량의 어르신은 사랑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지만,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나머지 50명의 어르신에게는 집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해 도시락 배달, 식당 청소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직원은 달랑 베아트레스 수녀 혼자뿐이다. 다행히 가톨릭 관계자와 성도 30여 명이 매일같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아 사람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종종걸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SK에너지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5년 전부터 매월 10여 명이 방문해 설거지, 식판 나르기, 청소 등을 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0만 원의 후원금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연말마다 담가 주는 500포기의 김장김치 덕분에 베아트레스 수녀는 한시름 덜 수 있었다.

"SK에너지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사랑의 식당은 개인 봉사자들이 대부분이라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SK에너지의 지원은 저희에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아트레스 수녀는 특히 사랑의 식당이 국가나 구청의 도움 없이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SK에너지의 도움이야말로 빛과 소금 같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조손가정 등 그때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탄력적으로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데, '어디 어디에 도와 줘라'는 식의 도식적인 간섭이 이어질 수 있어 사랑의 식당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SK에너지가 명절이나 연말에도 빠지지 않고 후원품을 보내 주는 덕분에 독거어르신들이 자신보다 더 SK에너지 직원들을 알아보고 반가워한다는 베아트레스 수녀. 사랑의 식당을 밝히는 당신의 역할마저 다른 이의 덕으로 양보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천사단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묻고 싶어진다. 지나온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은 무엇이냐고,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른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안사랑마을의 어르신들의 얼굴이 문득 그런 생각을 일깨웠다. 2004년 10월에 개원한 대구 신안사랑마을은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꿈의 동산'이다. 이곳에서 63명의 어르신들은 무료로 의식주와 일상생활은 물론 의료 및 재활서비스, 여가·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다. 바로 SK에너지 대구물류센터 '달구벌 천사단'. 격월마다 10~15명씩 조를 이뤄 신안사랑마을을 찾고 있는 봉사단들이 어르신들의 나들이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인력과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곳 어르신들에게 SK에너지 대구물류센터 '달구벌 천사단'은 친구 같은 존재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연이 정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동반자 같은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나들이 행사는 달구벌 천사단이 없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007년에 시장 나들이와 송림사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달구벌 천사단 덕분이었다. 더구나 윷놀이도 함께해 주고, 어버이날 행사, 발마사지 및 목욕까지 함께 하니 효자손이 따로 없다. 신안사랑마을 최병대 국장은 젊은 직원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고맙고 반갑다.

"육체의 힘듦과 삶의 고단함을 안고 있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달구벌 천사단이야말로 말 그대로 천사들입니다."

달구벌 천사단들이 펼치는 노력 봉사 외에도 많은 후원 물품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된다. 2007년 한 해만 해도 세제 및 일상용품, 로션·오일 등 발마사지 관련 용품, 기저귀 커버, 김치, 연탄, 노트북 컴퓨터, 신안사랑마을 외부 간판제작 등 다양한 물품 덕분에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었다. 인생의 뒤안길을 지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릴레이 인터뷰 셋

성남 1318 해피존 모람아지트



아이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이룬 값진 승리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다가 밤에는 아무 곳에서 자던 아이, 걸핏하면 가출하던 아이,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아이, 비행을 일삼던 아이…. 성남 1318 해피존 모람아지트에 모이는 30여 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녀이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 더욱이 대부분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 오갈 데가 없어지거나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면서, 의지할 만한 사람마저 없어 방황하기 일쑤였던 아이들이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방이자 쉼터인 모람아지트에 발을 들여놓은 뒤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람아지트의 규율에 갑갑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집처럼 편하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 자치회의를 통해 규약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진동으로 해 놓기, 화장 진하게 하지 않기, 미니스커트 입지 않기 등은 스스로 정한 것들이다. 모람아지트에서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똑바로 인식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덕분이다. 교육 내용을 설명하는 모람아지트의 책임실무자 오일화 씨의 말에는 진지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오토바이를 훔치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식이었어요. 야간에 친구를 폭행하면 죄가 더 무겁고 집단폭행은 지켜만 보고 있어도 공모혐의가 적용된다는 것 등 착하게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는 좀이 쑤셔 한 시간도 앉아 있기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씩 국어·영어·수학을 배우고 밤샘하며 공부의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2007년 12월에는 박아름, 박성순, 방현수, 배인호, 함상만 다섯 명의 학생이 성남정보산업고에 합격했다. 다섯 명이 지원했는데 100% 합격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잘살까를 고민하고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름이는 사회복지사를, 상만이는 PC방 사장, 인호는 빵집 사장과 디자이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모람아지트를 통해 변해 가면서 제 나이 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아이들이나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회 모두가 일군 값진 승리였다.



릴레이 인터뷰 넷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김정숙 씨

이즈음의 나이가 되면 누구의 이야기를 엮어도 다 소설책 한 권은 나오겠지만, 내 인생도 정말 평범하지는 않다. 나는 백일도 되기 전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원장선생님 덕분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 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으나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딸 둘을 데리고 이혼했다. 하지만 하던 일이 실패를 하면서 자살 기도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식물인간의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4개월간의 병원생활을 마친 내게는 돈 한 푼도, 오갈 데도 없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이력서를 10장, 20장을 쓰면서 암담하기만 한 현실에 참 많이도 울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사회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처음엔 장애인을 통학시켜 주는 일인 줄 알았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이라니, 내가 장애

내 나이 오십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2007년 2월에 교육을 받고 특수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에게 많은 질문과 답을 구하고 있었다.

마침내 2007년 3월 중순, 지금의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두 아이들이 있는 통합학급에서 장애통합교육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수업시간에는 학습 보조를 해 주고, 특수학급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받을 때는 특수학급 수업의 보조를 하고 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간에도 활동 보조를 하는 일이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만 불행하거나 나만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데,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기대 이상이었다. 나와 함께 울어 주고 웃어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모른다.

나는 그 동안 우물 안 개구리였다. 상대방에게 관심받는 것도 싫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따뜻한 말도 건넬 줄 알게 되었고, 내 아픔이나 상처를 그들에게 털어놓을 줄도 알게 되었다.

날마다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어서 고맙다.

* 장애통합교육 수기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받은 김정숙 씨의 수기를 줄인 글입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2007년 11월 5일 '휴대폰 완전 정복, 가자 모바일 세상'이란 구호를 외치며 휴대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여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저 오는 전화만을 받고 있었는데, 건강한 노후 생활과 통합적인 사회구현을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휴대폰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기가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 배울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1회차 수업에 임했다. 다행히 지도하는 리더 강사와 짝꿍봉사자들이 1대1로 꼼꼼히 가르쳐 줘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76살의 나이에 휴대폰의 기능을 배우고 직접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업을 12월 3일에 5회차까지 마치고 나서, 학사모 쓰고 수료증도 받고 사진도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동안 휴대폰으로 손자 · 손녀와 사진을 찍고 나서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열어 보는지를 몰라 사진을 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휴대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사진을 찍고 확인까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40대 중반에 접어들은 작은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과 이모티콘을 사용한 "너를 항상 사랑한다" 등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이 문자를 받은 작은아들은 바로 내게 전화해서 역시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해 왔다. 휴대폰이 내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밤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고 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아 이번 교육으로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교육을 위해 애쓰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및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 글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SK텔레콤이 함께한 휴대폰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영한 어르신의 글입니다.



스피드메이트 사장이 되는 날을 지켜봐 주세요

SK와 함께하는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2기 수료생 손대성입니다. 전 지금 대구에서 처음으로 생긴 대구 남부중앙점 스피드메이트에서 막내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드메이트에 들어온 계기는 청소년 행복날개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스피드메이트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2때 방황하는 저를 보시고 시설 수녀님께서 SK에서 하는 것이니 한번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면접 보는 날, 엄청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합격을 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폴리텍2대학에서 이론과 실습이 어우러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부, 재미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형들을 만났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동차 면허랑 국가기술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성취한다는 그 재미,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화성에서 6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 본격적으로 서울 광진구 장호점 스피드메이트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습니다. 전 이 일에 자부심이 커서 어딜 가든지 "너 뭐하니?" 하면 "정비일 하는데, 아직 열심히 배우는 중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서툴러서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매장 형님 사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장실습 6개월이 끝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점에서 한 20일 일하다가 매장 사정 때문에 남부중앙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구 오자마자 매장을 옮기는 것이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친형님처럼 챙겨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오면 많이 못 배우리라 생각했는데, 남부중앙점은 저를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과 형님들 모두 다 저를 믿고 작업을 맡겨 주시니 정말 좋았습니다. 수요일마다 다른 매장 직원이랑 사장님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터라, 축구를 하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저는 행복날개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힘들지만 스피드메이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스피드메이트의 사장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스피드메이트 행복날개 프로그램 2기 수료생 손대성 씨가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김장김치처럼 묵을수록 깊어지는 사랑

서울 강동구 고덕1동에 소재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월 둘째·셋째 주 금요일이면 활기로 가득 해진다.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심기신(心氣身)수련'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설립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긴 역사와 최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의 진단·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수중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심기신수련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사회재활팀 정덕진 교사의 말을 들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편마비가 발생한 신체의 일부분을 본인 스스로 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다 풀리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기신수련 프로그램은 요가·기공 운동과 유사한 심신활성화 운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뇌졸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여 명의 성인중도장애인들은 이 시간을 꼬박꼬박 챙길 정도가 되었다.

고 최종현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창안했다고 하는 심기신수련법을 장애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들이 바로 SK케미칼 임직원들이다. SK케미칼 직원들은 심기신수련 전문 강사 1명과 5명씩 조를 이뤄 한 달에 두 번씩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SK케미칼의 관심은 남다르다. 겨울 동안의 양식이 될 김장김치도 함께 담그고, 지역의 '한울타리축제'에도 참가하여 마음을 나눈다.

"SK케미칼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장김치조차 담기 힘들었을 겁니다.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도와 주신 데다 절임배추와 속재료 구입비용인 550만 원까지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김장김치처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SK케미칼의 우정은 그렇게 깊어 가고 있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손지훈 지역복지팀장은 요양원에 행사라도 하나 잡히면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질 않는다. 요양원에 13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다, 이들 대부분이 뇌졸중·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혹시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이르기까지 온갖 걱정들이 잠 안 올 때 하는 양 한 마리 놀이처럼 펼쳐진다.

그런데 SKC 수원공장 자원봉사단들이 요양원을 찾아오면서부터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나들이 여행 등 요양원의 굵직굵직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맙다.

"어르신들을 일단 편하게 모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SKC 직원들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SKC 직원들을 좋아합니다. 자원봉사단들이 척척 알아서 해 주시니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거든요.(웃음)"

SKC 수원공장 자원봉사단이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 이때부터 어버이날이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손도, 말벗이 되어 드리는 역할도 SKC 직원들이 도맡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로 '나들이 여행'을 실시했는데, SKC 직원들은 차량과 점심식사를 준비해 와서 이날만큼은 어르신들의 자식이 되고 손자가 되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나들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개인의 힘만으론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업의 힘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손지훈 지역복지팀장의 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SKC 수원공장 직원들은 매월 한 차례씩 10여 명이 요양원을 방문해 보일러 점검, 옥상·식당 청소, 에어컨 청소 등 궂은일을 책임질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후원 물품을 요양원에 전달할 경우 차량을 지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작은 일이나마 요양원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할수록 더욱 커지는 사랑의 힘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와 SKC 울산공장의 관계는 남다르다. 결식아동 및 소외계층의 어린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상호 협정을 맺은 것. 이 두 기관은 2007년 5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협정을 맺고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나눔의 행사를 이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기업이 결합한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복지재단 울산지역본부는 SKC 울산공장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불우한 어린이 돕기에 사용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SKC 울산공장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어 조성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울산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2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사회복지관과 기업이 손을 잡은 CDA 협정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한국복지재단 울산지역본부와 SKC 울산공장이 맺은 협정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사회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울산지역본부 정재정 모금사업팀장은 기업과 복지기관이 손을 잡을 때 얼마나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본부와 SKC 울산공장은 이 외에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SKC 울산공장 전 직원들에게 소형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저금통이 꽉 차면 울산지역본부에 전달한다. 사랑의 저금통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전달되는데 보통 150~250개 정도가 모인다. 실제로 SKC 울산공장은 2007년 6월 결식아동 후원 캠페인으로 모금한 사랑의 저금통 150여 개를 바로 그 다음 달인 7월에 울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성금은 울산지역본부가 방학기간 동안 지역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만들기' 사업에 전액 사용됐다.

한국복지재단 울산지역본부는 앞으로도 SKC 울산공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정 팀장은 소개한다.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와 줄수록 큰 힘이 됩니다. 울산지역본부와 SKC 울산공장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OO정보고등학교 2학년 임연준(가명)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새날복지회를 통해 SK C&C 장학사업과 연결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하게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장학금으로 학원도 다니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차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차비가 많이 올라서 저에겐 부담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장학금 덕분에 편안히 좋은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돈으로 가끔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SK C&C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회사일까? 그렇게 종종 SK C&C라는 회사 이름은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저에게 주신 장학금을 잘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학용품도 좀더 튼튼한 것을 고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었으며, 공부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제가 지금 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장학금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만 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었으니까요. SC C&C에게도 또 저를 SK C&C와 연결해 준 새날복지회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다음에 저도 남을 돕는 그런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SK C&C의 행복장학금을 받은 임연준 학생이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마음 든든한 이웃이 있어 날마다 행복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과 평소에는 가 볼 수 없었던 곳들을, 쉽게 사먹지 못하는 것들을,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덕분에 하나하나 이루며 그렇게 한 해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SK C&C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부족한 것 같네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SK C&C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갖게 되는 행사를 위해 전년도부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법사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1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배려는 SK C&C 봉사팀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일까요? 덕분에 아이들이 활기차고 밝습니다. 날마다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신 덕에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부모님의 이혼도,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도 다행히 생각나지 않나 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시설이 아이들을 통해 SK C&C를 만나게 된 건 주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올해도 나들이를 비롯해서 때마다 과일과 음료수 등 풍성한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지난 여름 방염 공사를 위해 벽지값 일부를 지원해 주신 후원금도 큰 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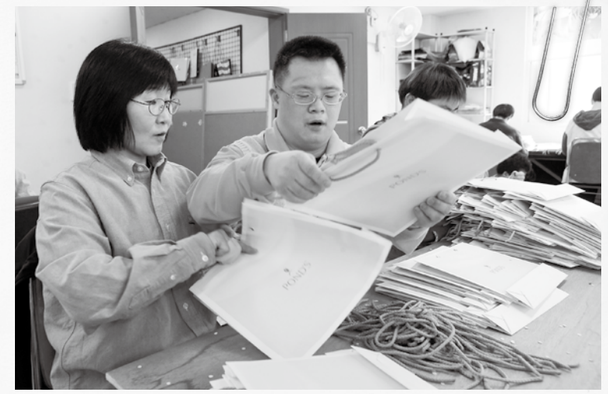
올해 우리공동체에 큰 사랑 보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 든든한 이웃으로 인해 날마다 행복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여전히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SK C&C의 사랑 가득한 봉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
장애아동생활시설 우리공동체 가족 올림

* 우리공동체 최영희 사모가 SK C&C에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우리 사회의 겨자씨가 되어…

성경을 보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는 의미의 구절이 나온다.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만 있어도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리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겨자씨 사랑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미종 원장은 성인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988년 10월 겨자씨 사랑의 집을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두 명에 불과했던 식구가 지금은 19명으로 늘었으며, 여성 장애인뿐이었던 식구도 이제는 절반 정도가 남성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19세에서 52세까지 다양하다. 다행히 2007년에는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 인가도 받았다.

이곳 장애인들의 정신적 어머니인 박미종 원장. 이들과 24년을 함께하느라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그이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 원장 혼자서 19명의 대식구들을 거느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와 후원이 필수적인데, 20여 년의 세월 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은 이웃들의 소소한 관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박미종 원장이 조금씩 지쳐 갈 무렵 SK건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기업 단위의 지속적인 도움이 박미종 원장과 원생들에게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04년 CEO를 비롯한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겨자씨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이불 빨래 등 궂은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SK건설과 겨자씨 사랑의 집의 인연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여직원 동호회는 일일찻집으로 거둔 수익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2005년부터는 회사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절실한 러닝머신, 실내운동 자전거, 김치냉장고, 요와 이불 · 베개로 구성된 이른바 '행복이불', 난방기, 구급 의약품 등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러닝머신을 받은 후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비싸서도 그렇지만, 빨리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속도를 천천히 해 놓은 세심한 배려 때문에요. 소소한 것들까지 잘 챙겨 주시고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SK건설 임직원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SK건설의 지원은 물품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 와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송년회 콘서트 등 문화예술 행사에 겨자씨 사랑의 집 가족들을 수시로 초대하기 때문에 정서 함양에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저희들에게 SK건설이야말로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 집으로 바뀐 집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서 초등학생인 딸 · 아들과 살고 있는 박영희(39세) 씨는 2006년 말 SK건설이 집을 고쳐 주기 전의 상황을 이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중국집이 망해 버리는 바람에 많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 오던 남편은 2005년 여름, 소리 소문 없이 가출해 버렸다.

시댁이나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의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라곤 정신지체 3급인 딸과 발달장애 1급인 아들뿐. 궁여지책으로 생활비라도 벌어 볼 요량으로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해 봤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2005년 8월 기초수급자 가정으로 선정되어 달마다 정부지원금과 두 아이들의 장애수당을 받게 되었지만, 월세 23만원을 내고 나면 두 아이들과 살 기조차 빠듯했다.

더구나 '망해 버린' 중국집에 차린 살림집은 말이 집이지, 도저히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다. 방 한 칸과 홀을 포함해 채 12평도 되지 않는 데다가, 샤워시설도 없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중국집을 했던 곳이라서 사방이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쉴 수조차 없는 바퀴벌레는 차라리 일상이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없어 부탄가스로 밥해 먹고 장판과 벽지가 너덜거리는 방에서 아이들은 중국집 할 때 식탁이었던 것을 책상으로 사용하고…."

그러던 차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만난 SK건설은 한 줄기 햇살이었다. 2006년 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어느 날, 10명이 넘는 SK건설 직원들이 참여한 '주거환경 개선 대작전'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페인트칠을 하고 장판과 벽지를 새로 가는가 했더니 싱크대까지 설치하면서 이전의 움막 같던 집은 거의 새 집으로 바뀌었다.

"예전 생각하면 지금은 양반집이나 다름없어요. 깨끗하게 변한 집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 같습니다. 집수리, 컴퓨터 책상, 싱크대도 고마운데 화장지 · 비누 등 생필품에 아이들 과자까지 챙겨 주셔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출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집 보증금마저 날린 터라 여전히 살림은 버겁지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사람들로 인해 박영희 씨는 이제 작은 희망을 키워 가고 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만나러 가는 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한리 한 자락에는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울타리공동체가 둥지를 틀고 있다.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이 시골마을에서 울타리공동체 식구들은 손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창근 원장을 제외한 17명은 정신지체장애인들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데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저마다의 아픈 사연만큼이나 이들의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곳에 기업의 후원은 SK해운을 빼고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니 1982년에 설립된 울타리공동체가 지나온 긴 세월이 어땠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행히 4년 전부터 울타리공동체를 찾기 시작한 SK해운 봉사단들은 이곳을 방문하면 농부가 되고 장애인들과 친구가 된다. 그 때문일까. 이 원장은 울타리공동체에게 SK해운의 도움은 '한 줄기 빛'과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SK해운 봉사단은 한번에 보통 15명 정도가 오십니다. 이분들은 봉사 와서 폼만 잡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예 장화 등을 비치해 놓고 인분이나 소똥을 치우며 거름을 뒤집고 비닐을 씌웁니다. 물론 바쁜 농사철엔 감자나 고구마를 같이 심고 수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름을 줘야 하는 2월, 감자를 심는 3~4월, 감자를 캐는 6월 초·중순, 장마 후에 배추·고구마 등을 심을 때면 어김없이 SK해운 봉사단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SK해운의 봉사는 농사일로 그치지 않는다. 엄동설한을 앞둔 계절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800포기의 김장도 함께 담근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치러야 하는 엄청난 양의 빨래와의 전쟁도 SK해운 봉사단들이 있어 한결 수월하다.



SK해운 봉사단들은 네 번의 정기적인 방문 외에도 회사의 특별한 행사, 연말이나 여름휴가에도 울타리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SK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중국무술 공연, 한강에서 고무보트 타기 등에 수시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히 한강에서 한 나절씩 보트를 탈 때 우리 식구들이 짓는 행복한 미소를 보는 일은 SK해운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미소를 보는 SK해운 직원들도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울타리공동체 식구들은 아마 모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잘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월급을 좀더 많이 받게 되면, 남을 도와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남을 돕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타인에게 가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남산원과 SK증권의 관계를 보면서 든 생각이 그랬다.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기슭에 위치한 남산원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55명이 함께하는 공동생활시설이다. 이들 55명은 결손가정 자녀, 혹은 사회의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사회복지법인 남산원과 SK증권의 인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증권은 2001년부터 남산원에 후원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정서를 고양하기 위해 영화·연극·뮤지컬 관람, 갯벌 체험·도자기 굽기 등의 현장 체험, 야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청소년 경제교실'. 남산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돈의 중요성, 저축의 필요성, 올바른 경제관 등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이러한 교육이 과연 시설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나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했다. 남산원 생활담당 이춘영 사회복지사도 기대하지 못한 효과였다.

"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들의 눈빛부터 달라져요. 각자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 금전출납부를 예전에는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씁니다. 교육을 받은 후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잘살겠다'고 말할 때마다, 이 경제교실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경제교실은 매 교육 때마다 20~25명의 청소년들의 참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희미하나마 자신의 미래를 경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에 이춘영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 감사하다. 그러고 보면 SK증권 직원들이 가진 경제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찌우는 거름이 되고 있었다.



아홉 명의 딸을 둔 엄마의 미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아담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하늘이네 집은 금남의 구역이다.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9명의 학생과, '엄마'로 불리는 예지연 원장 등 10명 모두가 여성이다.

2001년 5월에 문을 연 하늘이네 집은 예지원 원장이 한 독지가로부터 가정집을 영구무료임대로 기증받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그룹 홈' 생활을 하고 있다. 정원도 있어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학생들은 저마다 가슴 저린 사연을 지니고 있다. 9명 모두 결손가정 및 해체가정, 미혼모의 자녀들로 예원장과 24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금이야 문을 연 지 7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단계는 지났지만, 개원 초창기만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1983년부터 하늘이네 집을 개원하기 전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로 살아온 예 원장의 고민도 일반 가정의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클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혼자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예 원장에게 워커힐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2003년부터 워커힐 여직원 봉사단체인 '평강회'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면 5~10명이 찾아와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언니가 되어 주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워커힐의 하계휴양지인 강원도 송지호에서 1박 2일을 함께 한다.

워커힐의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총무팀 서태수 부장을 비롯한 또 다른 봉사단원들이 매월 60만 원의 후원금과 함께 매주 김치와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수리 · 전기수리 등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와 주는 것 외에도 명절이나 연말에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저희가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인생 상담과 학습 지도를 해 주면서 친자식·친조카처럼 대해 주시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예 원장은 하늘이네 집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워커힐 직원들의 따스한 손길 덕분이라며,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 제대로 생활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쿠키나라에서 함께 사는 나라 만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거리에 장애인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빚어진 결과임을….

그런 점에서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다원(茶園)의 존재는 반갑기까지 하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자립지원시설인 다원은 장애인들의 입소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다.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아침 9시면 이곳에 왔다가 다양한 재활훈련을 받고 오후 4시면 집으로 돌아간다.

다원에는 다른 복지기관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 직업재활센터인 '쿠키나라'가 바로 그것.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일터인 쿠키나라에는 현재 정직원인 정신지체장애인 7명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12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쿠키를 만들면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삶의 현장인 셈이다.

그런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이면 쿠키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다. SK E&S 충남도시가스 봉사단 '나누우리' 회원들이 찾아와 정신지체장애인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쿠키를 만들기 때문이다. 나누우리 회원들은 때로 가족들을 동반하고 오기도 한다. 아이들이 참여하면 시끄럽고 어수선할 법도 하련만 다원 사람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함께 쿠키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더불어 사는 법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는 독거노인들에게 배달되기도 하고 판매를 통해 다시 재활기금으로 사용된다. 2006년 3월부터 다원을 방문하기 시작한 SK E&S 충남도시가스 봉사단은 쿠키를 함께 만드는 것은 물론 쿠키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SK E&S 충남도시가스의 봉사활동은 다른 곳의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후원금만 내고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드러내는 곳과는 달리 장애인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낌으로써 마음을 나누기 때문이죠."

다원의 직업재활담당인 이진옥 사회복지사는 SK E&S 충남도시가스의 봉사활동에 그렇게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친가족처럼 대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 시설의 장애인들이 직원분들을 반기고 기다려요. 환청 · 망상 같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들에게 직원분들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화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행복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자원봉사는 이제 주말 여가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주말이면 자원봉사자로 넘치는 사회복지시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들은 또 하나의 고민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로 넘치는 주말과는 달리, 평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없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어지는 까닭이다.

이러한 사정은, 역사도 길고 입소 인원이 많은 탓에 비교적 후원을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 은평재활원이라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주혜진 재활팀장은 2006년 은평재활원을 처음 찾아온 SK가스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SK가스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하여 장애인 외출 봉사활동을 하긴 했지만, SK가스에 전적으로 기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매주 화요일마다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찾아와 장애인들의 식사 보조, 목욕 지원, 미술 활동, 책 읽어 주기, 설거지 등 재활원 내의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이들 SK가스의 직원들은 은평재활원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봉사 첫해에 비해 봉사 횟수가 대폭 늘고 봉사 내용이 바뀐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평일에 찾아주신다는 것이 저희에겐 아주 특별합니다. 봉사자들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주말과는 달리, 봉사자들이 거의 없는 평일에는 웬만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기 힘들답니다. 그러니 SK가스 직원들과 함께하는 화요일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지 짐작하시겠지요?"

주혜진 팀장은 SK가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설·추석 등 명절과 연말에 후원해 주는 물품도 은평재활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저귀는 중증장애인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고.

1980년에 설립된 은평재활원은 만 4세 이상 18세 미만까지의 무연고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장애극복 의지 및 직업적 기능을 습득하는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라는 주혜진 팀장. 그러면서 SK가스에 보내는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향한 무한 열정, SK 12개 관계사

행복을 키우고자 상생을 추구하는 철학이 있기에
SK 12개 주요 관계사는 힘을 모으고 협력한다.
세계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화학 메이저로 도약하는 SK에너지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출발한 SK에너지는 국내에 석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 축적된 핵심 역량과 노하우, 탁월한 기술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세계적인 종합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다.
SK에너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해외로 시선을 향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개국 27개 광구에서 추진 중인 석유개발사업, 인천정유와의 합병으로 한 단계 도약 중인 석유사업, 그리고 화학사업의 성장은 SK에너지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SK에너지는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세계 일류 수준의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추구하여 고객과 주주·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주도하는 SK텔레콤

SK텔레콤은 국내 최초 1세대 아날로그 이동전화 시대 개막, 세계 최초 CDMA 기술 상용화 성공으로 제2세대 이동통신시대 실현, 세계 최초 2.5세대 CDMA 2000 1x 서비스와 세계 최초 3세대 동기식 IMT-2000(CDMA 2000 1x EV-DO) 상용화, 영상통화가 가능한 HSDP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의 진화를 이끌어 왔다. 이런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업간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첨단 기술과 플랫폼 솔루션, 콘텐츠의 수출을 통해 세계 속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가고 있다. 이미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한국 통신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시장인 미국에서 현지합작 법인인 힐리오를 통해 차별화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해외 통신서비스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정부와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한·중 TD-SCDMA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여 중국과의 3G 통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업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동통신 기업의 특성을 살린 모바일 공익사업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유통, 무역, 프레스티지사업, 에너지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는 50여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마케팅 역량과 다양한 사업구조,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네트워크사업에서는 전자정부 통신망 서비스, 기업 대상 회선임대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유통사업에서는 2006년 11월 중국 선양 지역에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며 해외 휴대폰 유통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무역사업은 전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거점을 통해 에너지 화학 철강 자원개발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레스티지사업은 고객의 TPO(시간·장소·상황)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여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패션사업, 수입차 유통체계 정립을 선도하고 있는 S-모빌리언 사업, 신개념 주거상품을 개발하는 S-웰하임 사업 등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파트너로서 'Globally Localized Marketing & Logistics Company'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정밀화학·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사업과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SK케미칼

친환경 화학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대표적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SK케미칼은 현재 정밀화학사업과 생명과학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밀화학사업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기능성 수지인 PETG를 개발한 데 이어 다양한 화학제품 개발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환경 소재와 정보통신 소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명과학사업에서는 생명과학연구소의 탁월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신약 1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동신제약과의 합병을 통해 혈액제와 백신제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앞으로 생명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자회사인 인투젠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법인인 'SK 파마 베이징'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소재, 환경 소재, 정보통신 소재 등 정밀화학사업을 강화하고 생명과학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시대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SKC

1976년 창사 이래 필름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경제와 고객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SKC는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필름 가공 및 코팅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저장 미디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 첨단 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PI필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차세대 소재 경쟁에서 선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화학사업의 첨단 소재인 PU(Polyurethane) 사업 또한 지속 발전시켜 21세기 아시아 PU 사업의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핵심 기술력과 핵심 인재의 역량을 통해 달성된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및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에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글로벌 현지 경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C는 성숙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IT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행복한 U-세상을 만들어 가는 SK C&C

SK C&C는 정보화란 용어 자체도 낯설던 1990년대 초 SK의 IT서비스 전문회사로 설립된 이래 분야별 최정예 정보화 인력과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정상급의 IT 전문회사로 성장해 왔다.
IT 아웃소싱을 주 사업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SK C&C는 '행복한 U-세상을 만드는 Global u-Service Leader'라는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지식과 솔루션에 기반한 지식사업으로 전환하고, 유비쿼터스 영역에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핵심역량과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IT 기술을 통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행복한 U-세상의 한중심에 SK C&C가 있다.

앞선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설을 추구하는 SK건설

SK건설은 창립 이후 주택·건축·토목·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최신 공법 개발, 첨단 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으로 국내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해 왔다. 한편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구조를 개발하고, SK텔레콤·SK C&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U-City 사업을 수주하는 등 SK 관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SK건설은 아산 배방 PF사업,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여 민관합동 PF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파트에도 마감재 업그레이드 서비스와 '유기농 주말농장 분양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다.
토목사업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고속전철 및 지하철공사, 단지 조성, 매립, 신항만 공사 등 토목 전 분야에서 완벽한 설계·시공·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랜트사업에서는 석유화학·정유 등 화공 플랜트는 물론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의 산업 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의 E&C 회사로 인정받으며 10억 달러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전 세계를 잇는 최고 수준의 해상운송 서비스로 아시아의 메이저 자원수송 전문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SK해운

1982년 원유의 국내 도입을 위해 설립된 SK해운은 이후 20여 년간 국가 전략자원인 에너지 원료의 도입과 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간산업재의 수출입에 안정적인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석유제품·LNG·LPG·철광석·석탄·곡물 등 관련 수송사업으로의 다각화, 벙커링 등 신규 분야로의 진출을 거듭하여 아시아지역 최고의 자원수송 전문 해운사로 성장했다.
탱커 사업과 가스선 사업에서는 아시아 메이저 규모의 선대를 확보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벌크선 사업에서도 연간 500항차 이상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메이저 벌크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벙커링 사업에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인도양 해상에서의 연료유 판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 세계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SK해운은 앞으로 사업역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 및 주주에게 한층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수송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운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무선 통합 증권거래를 선도하는 고객중심 마케팅 전문회사 SK증권

SK증권은 1955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증권금융업과 함께 성장해 온 중견 증권회사로서, 리테일 브로커리지, 법인영업, 상품, 투자은행(IB) 사업, 자산운용, 리서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상품 소싱(Sourcing) 기능을 가진 법인영업, IB 등 본사영업 부문에서 해외 부동산 상품 등 투자가들의 투자 선택폭을 넓히고 고수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리테일 분야에서는 자산관리 지점 등을 개점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홈 트레이딩 시스템 'SK Enstock V7'과 자산관리 계좌인 'SK Magic CMA' 등의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PDA 무선 증권거래 서비스 'M-Stock'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센터에서는 우수한 리서치 전문인력들이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분석으로 최상의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진정한 투자 동반자 SK증권은 자산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여 자산관리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고객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휴식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추구하는 국내 호텔산업의 리더 워커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W 서울 워커힐호텔, 워커힐 면세점, 인천공항 환승호텔 등 (주)워커힐의 다양한 사업들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치로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문화공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품격 있고 안락한 객실과 레스토랑, 바, 국내 최고의 카지노, 면세점, 첨단 컨벤션센터 및 웨딩홀,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뮤지컬 하이라이트 쇼로 새로워진 워커힐쇼를 통해 비즈니스 겸 리조트 호텔로서의 명성을 더하고 있다. 2004년 오픈한 W 서울 워커힐은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 스타우드사가 아시아에 처음 오픈한 가장 트렌디한 호텔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호텔로 부상하고 있다.
워커힐은 독창적인 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 육성과 더불어 다양한 레저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LPG, 도시가스, 발전사업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선도하는 SK E&S

SK E&S는 LPG 수출입 판매회사인 SK가스와 9개 도시가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공통 기능은 통합·표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가스산업의 필수 요건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구성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고객만족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 E&S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해 LNG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구조 다변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력집단에너지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에너지 사업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도시가스, LNG, 전력 집단에너지 사업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LPG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 도약하는 SK가스

1985년 LPG 수입 전문회사로 출발한 SK가스는 단일 지하 암반 저장 형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기지를 설립하고, 1999년 수도권 지역 LPG 수요 대처를 위해 평택기지를 준공하여 국내 LPG 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SK가스는 전체 매출의 약 40%를 해외 LPG 트레이딩으로 획득하며 해외 LPG 시장에서도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일본 종합무역상사인 ITOCHU와 아시아지역에서의 LPG 터미널투자,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해외 LPG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글로벌 트레이딩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국내 LPG 업체로서는 최초로 중국 LPG시장에 진출하여 충전소·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SK가스는 2007년에는 사업 범위를 넓혀 SK에너지와 함께 중국 핑딩탄광 개발에 투자하였고, SK E&S와 함께 중국 도시가스회사, 차이나가스홀딩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투자에도 참여하였다.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LPG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SK(주)	http://www.sk.co.kr
SK에너지	http://www.skenergy.com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SK네트웍스	http://www.sknetworks.com
SK케미칼	http://www.skchemicals.com
SKC	http://www.skc.co.kr
SK C&C	http://www.skcc.com
SK건설	http://www.skec.co.kr
SK해운	http://www.skshipping.co.kr
SK증권	http://www.priden.com
워커힐	http://www.walkerhill.com
SK E&S	http://www.skens.com
SK가스	http://www.skgas.co.kr

한국고등교육재단	http://www.kfas.or.kr
행복나눔재단	http://www.happynanum.org
아트센터 나비	http://www.nabi.or.kr
장학퀴즈	http://www.janghakquiz.com

2007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행처 SK자원봉사단
연락처 100-99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1
발행일 2008년 2월 29일
발행인 조정남
편집 및 진행 SK텔레콤 홍보실 사회공헌팀